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부활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새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계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을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계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3954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것이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 6

말씀이 육신이 된 일 **8**

8739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8

8151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하다 9

8263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11

예수의 사명 **14**

5640 영의 나라로 향하는 다리. 예수 그리스도 14

8454 예수는 이 땅에서 사랑을 가르쳤다 15

7864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17

788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 18

예수의 몸의 영화 **20**

6000 육체의 부활 20

7579 부활절 22

7693 예수의 부활과 영화 23

예수의 부활 **25**

5934 1954 년 25

6810 3 일 후에 부활 26

7322 지옥으로 내려가심 28

8984 예수의 승천 29

8469 예수의 부활 30

7085 내 구세주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32

죽음을 이긴 예수 **34**

7086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자신의 가시를 잃게 되었다 34

7580 죽음을 극복하는 일. 부활 35

8123 죽음은 극복되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36

예수의 생명의 약속 **39**

6354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39

5637 생명의 약속. 죽음. 무기력 40

5988 삶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41

7305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4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44**
5523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44
6427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력 있는 믿음 45
7066 예수 이름의 구속하는 능력 46
5952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48
죽은 후에도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 **50**
3299 혼의 지속적인 삶을 믿으라 50
5871 변화시키는 역사.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계속되는 삶을 믿는 믿음 51
8059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 52
7343 죽음 후에도 혼은 계속 산다 53
생명이나 또는 죽음 **56**
5696 육체의 죽음 후에 실제적인 삶이 시작된다 56
6175 생명이나 또는 죽음. 자유의지의 결정 56
6571 죽음이나 생명. 세상을 극복하는 일 57
6802 삶과 죽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 58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 **61**
7911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 61
5476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는 일. 머무는 기간. 하루와 같은 천년 62
6325 이 땅의 삶은 단지 고향을 향하는 길에 통과하는 과정이다 63
6789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64
잘못된 가르침**:** 혼의 잠 **66**
6541 혼의 수면. 잘못 된 가르침 66
8991 혼이 잠잔다는 가르침의 오류 (가톨릭) 67
심판의 날 **69**
0634 마지막 심판의 날.... 저 세상에서 선한자와 악한 자의 운명 69
4432 심판의 날. 저세상의 문을 닫히는 일 70
4888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죄짐 70
5159 가까운 종말에 대한 예고. 마지막 심판의 날 72
생명으로 부활 **74**
6311 올바른 사랑은 생명이다 74
6234 죽음과 부활. 생명 75
6593 거듭남은 부활과 같다 76

7262 부활. 육체의 부패 77
8794 생명으로 부활 78

저세상에서 사는 혼의 삶 81
6397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나라가 아니다 81
5146 죽음 후의 혼의 상태. 빛의 상태와 황혼의 상태와 어두움의 상태 82
5670 육체의 일은 드러나게 된다. 저세상 83
1623 저 세상의 삶은 지속적으로 규칙적인 일을 하는 삶이고, 쉬는 상태가 아니다 84
1772 영원 가운데 사는 삶. 연결. 다시 만나는 일 85

영적인 죽음 87
5024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87
4088 영적인 죽음. 생명의 개념 88
3916 죽음의 잠과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깨어나는 일의 오류와 진정한 의미 89

영원한 생명 91
5255 예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 91
5017 영원한 생명. 활동. 하나님에게서 나온 힘과 사랑 92
6108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 자유의지 93
7974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94

구원을 얻기 위해 이 땅의 기간을 활용하는 일 96
6185 이 땅의 기간을 올바른 사용하는 일 96
5301 영원으로부터 원래의 법인 자유의지의 법. 축복을 받는 일 97
4629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힘을 활용하라. "누가 사랑 안에 거하는 지는..." 98
4455 이 땅에서 영적 보물을 모으는 일. 저세상에서 하는 후회 99
6528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약. 죽음과 생명 100
6302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일 101

영의 거듭남 103
3266 영적인 거듭남. 은혜 103
3704 혼의 거듭남 104
4072 영의 거듭남 107
5489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는 일 108
5329 죽음을 기억하라는 심각한 경고 109
4307 나는 너희가 축복되기 원한다 110
5363 부활절에 주는 계시 111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왜냐면 이 말씀은 자신을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계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무한 가운데로 끊임없이 발산된다. 이 능력은 자신의 창조물 안에서 형체를 입고, 자기 자신을 가장 개인적인 표현으로 말씀 안에 형체를 입는다. 너희 심장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자신이 너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너희 사람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음성을 심장 안에서 음성으로 듣거나 또는 생각으로 받으면, 너희는 살게 되고, 영원히 죽음을 더 이상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중단하지 않고 창조하는 영이고, 쉬지 않고 역사하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은 그의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있고, 절대로 종말이 없는 그의 능력을 증거하는, 영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창조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능력이고, 이 말을 자신의 심장으로 영접하는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야만 하고, 그는 죽음을 피해야만 한다. 그는 스스로 창조하고, 생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곳에서, 중단없이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항상 지속적으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인,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쾌활하게 하면. 모든 무능력한 상태는 너희에게서 사라져야만 하고,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연약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말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은혜에 합당하면, 너희가 이 은혜를 갈망하고, 너희 안에서 세밀하게 낮은 소리로 울리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는 증가된 힘의 공급을 의미하고,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생명은 충만한 능력을 갖는 일이고,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일이다.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 너희는 음식과 음료를 섭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 영적인 삶도 똑같이 혼을 위한 음식과 음료가 요구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신의 말씀을 통해, 혼을 위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한다. 그는 혼을 유지하고, 성숙하게 해주는, 혼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능력이 충만한 생명의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양식을 혼에게 제공한다. 그는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먹고 마시게 한다.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제공되는 양식을 자주 섭취하라. 이 양식이 이 땅에서 너희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알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의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냐면 그는 너희가 영원히 살기 원하고, 너희 자신이 심장을 닫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느끼게 해줄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함을 받았다. 단지 나의 말씀이 너희를 이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영접하라. 나의 말씀이 너희 자신에게 말하게 하라. 하나님 자신이 너희에게 베

푸는 이러한 아주 큰 은혜를 의식하라. 왜냐면 그가 원래 초기부터 너희를 사랑하고, 영원히 너희를 얻기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B.D. No. **8739**
1964 년 1 월 29 일

나는 내가 영원으로부터 말씀이라는 한가지를 항상 또다시 강조하길 원한다. 나는 말씀이다. 그러나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너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 자신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다. 왜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생명을 주어서 발출되어 나온 능력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와 같은 특성을 가진 그의 원래의 성품이 나 자신과 같은 신적인 사랑의 힘을 가진 존재를 창조했다. 나는 이 존재와 태초부터 말씀을 통해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존재가 나로부터 창조되었을 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전에는 비록 내 안에서 영원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 지라도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 왜냐면 나는 자신을 의식하는 생각하는 존재로써 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었다. 즉 나에게 아이디어나 생각으로 임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었다.

내 능력으로 창조 된 존재는 자율적으로 나로부터 생성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항상 내 말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나를 이해했다. 이로써 그들은 넘치게 축복 되었다. 나 자신이 말씀이었다. 왜냐면 그들이 나를 볼 수 없었을 지라도 내 말이 그들에게 내 존재를 증명했고 그들은 자기들을 창조하고 자기들을 넘치게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내 말이 그들 안에 있는 실제적인 생명이었다.

내 말은 끊임없이 그들에 흘러가는 능력의 흐름이었고 그들에게 최고의 깨달음을 주었다. 왜냐면 내 말을 통해 그들에게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연관관계를 파악했다. 그들은 그들에게 흘러 들어간 원래의 능력을 알았다. 그들은 이런 원래의 능력과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었다. 왜냐면 그들은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원래의 능력에게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말씀 자체이고 이 말씀은 내가 생명을 불러일으킨 모든 피조물들에게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존재들에게는 시작이 있는 반면에 나 자신은 영원부터 있었다.

그러나 나로부터 창조 된 존재에게는 끝은 없다. 그들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다. 항상 그들의 가장 큰 축복은 내 말을 통해 나 자신을 체험하는 데에 내 대화 요청을 받는 데에 축복된 교제를 할 수 있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 된 존재들의 큰 부분들이 이 은혜를 나을 말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잘못 사용했다.

왜냐면 그들은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을 거절하여 내 말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은 나를 떠났고 말씀을 통한 모든 교제를 방해했고 자신을 닫았고 나와 더 이상 어떠한 연결도 할 수 없게 되므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사

랑의 비추임이 형체가 된 것인 내 말이 그들에게 전하는 모든 축복을 잃게 되었다. 나와의 긴밀한 연합은 거절할 수 없이 내 말이 들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나를 떠난 것은 항상 내 사랑의 표현이 내 말이 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존재는 영원히 사라질 수 가 없다. 그러나 축복되게 되는 것은 단지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또는 나 자신이 말씀이다. 단지 내 임재만이 존재들에게 축복을 준다. 존재들이 나에게서 들을 수 있는 것을 통해 내 임재는 항상 증명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존재들을 아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내 말이 그들에게 가장 밝은 빛을 자신들의 근원에 관한 깨달음을 내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모든 무한함 가운데 있는 내 사역과 역사에 관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지식은 존재들을 행복하게 한다. 만약에 존재들이 오랫동안 알지 못하던 상태 처해 있었다면, 아주 오랜 동안 나로부터 떨어져 있어 고립 된 존재로써 나와의 어떤 연결도 포기했던, 그러므로 축복 되지 못했던 존재들을 특히 더 행복하게 한다.

원래에 그랬던 것처럼 내 말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면 축복 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면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임재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내 임재는 존재들이 그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내 크고 넘치는 사랑이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생명을 불어넣은 모든 온전함 가운데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왔던 것처럼 다시 신적인 피조물이 되었다는 원래 상태 다시 가까이 같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와의 긴밀한 연합은 내 말을 들음을 통해 비로소 증명 된다. 왜냐면 내 말이 울리는 곳에 영원으로부터 "말씀"인 나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내 생각과 의지와 역사를 내 피조물들에게 전해주기 원한다. 이런 일은 항상 단지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울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존재들과 나와의 접촉을 통해 일어난다. 이 말은 다시 나로부터 나온 생각이 형체로 굳어진다.

나는 내 모든 생각과 의지와 역사에 내 피조물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 말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존재들은 내 말을 통해 그들이 내 의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통해 나와 같은 생각과 의지를 자신 안에 가짐으로써 그럴지라도 전적으로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로써 내 강요 아래 있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거나 원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행복을 찾는다. 왜냐면 그들은 원래 초기에 그들이 가졌던 온전한 정도에 다시 도달했기 때문이다. 단지 가장 긴밀한 나와의 연합만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존재들에게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

아멘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하다.

B.D. No. **8151**
1962 년 4 월 15 일

영적인 빛이 어두움 가운데로 비추어 나간다. 내 말은 이 땅 아래로 울려 퍼지고 이 땅에 퍼져 있는 밤을 물리치게 한다. 왜냐면 내 말은 위로부터 비추어지는 어두운 영역을 뚫고 들어가는 빛이기 때문이다. 내 말은 영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의 증거이다.

만약에 빛이 그들이 처해 있는 위험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심연에 삼키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심연의 가장자리로 향하고 있고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 대적자에 의해서 항상 더욱 심연으로 이끌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빛의 비추임 받아야만 한다. 인류는 이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볼 수 있게 돼야만 한다. 이 길은 단지 빛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운명에 맡긴다고 믿어서는 안 되고 그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과정과 성공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나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모든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원하는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소경임을 항상 심연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지속적인 위험이 바로 너희가 거하고 있는 어두움이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 누구였는지 다시 어떤 사람이 되야 하는지 전혀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인 빛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단지 나만이 줄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이 지식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두워진 상태는 너희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너희 안에서 진정한 빛이고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면, 이 빛을 얻을 수 있지만 스스로 이 빛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 빛을 다시 선물해줘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사랑이 없이 살고 이로써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면, 나는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줘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빛을 선물해 줘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비록 너희가 스스로 진리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하다 않다 할지라도 진리를 전해 줘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들 향한 내 사랑은 아주 크다. 이때가 종말의 때이다. 너희가 심연으로 빠질 위험이 더 크게 되었다. 너희를 이런 깊은 곳으로 추락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준다. 너희 스스로 진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벌어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선물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내 대적자가 너희를 빠지게 한 영적인 눈먼 상태에 있는 줄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저항을 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빛을 비추어 준다. 너희가 이 빛을 영접하면, 너희 주변의 어두움은 떠나갈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르쳐 주는 너희가 가야 할 길인 사랑의 길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말을 이 땅에 보낸다. 나는 너희에게 지속으로 너희가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켜야 한다고 그러면 너희는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밤의 어두움을 벗어나서 낮의 밝음으로 들어선다면, 너희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너희가 전적으로 어두운 영역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하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이 빛을 자유의지로 받아야만 한다. 너희는 이 빛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빛의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단지 작은 빛을 보내줄 수 있으면, 너희에게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만큼의 진리를 전할 수 있으면, 너희들 스스로 이미 더 많이 알기를 원하면서 이 빛의 비추임을 크게 만들 것이다. 이런 소원을 진실로 내가 들어줄 것이다. 단지 작은 빛 줄기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한다. 빛의 주는 행복이 너희가 사랑을 행하면서 스스로 너희 안에서 빛을 불타오르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을 빛의 근원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제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는데 도달했으면, 어두움의 밤은 물러난 것이다. 왜냐면 사랑의 빛이 밝게 밤 가운데 비추어서 밤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영의 태양은 떠오를 것이고 모든 위험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빛을 위로부터 이 땅에 보내야만 한다. 왜냐면 이 땅에는 단지 비추임을 주지 않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역광만이 종종 비추이고 있기 때문이다. 빛은 영원한 빛과 능력의 근원인 나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런 빛은 만약에 단지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으면, 진실로 모든 것을 꿰뚫을 것이다.

진리 안에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빛은 비추어 질 것이다. 그는 내 말을 통해 진리에 합당한 광범위한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지식이 그에게 한때 그가 누구였는지 그가 다시 무엇이 되야 하는지 깨달음을 줄 것이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진지하게 추구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그는 그에게 이제 밝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확실하게 목표로 인도하는 완성에 이르게 하는 나와 연합이 되게 하는 길을 깨닫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B.D. No. **8263**
1962 년 9 월 3 일

나는 내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그는 내 영원한 원래의 사랑에서 생성된 존재이다. 내가 원래 창조한 영들의 큰 무리가 나를 떠나 타락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사랑을 나에게 드렸고 비록 그가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나를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로 깨달았다. 그는 일회적인 역사를 통해 나를 떠나 타락한 자녀들을 나에게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면서 그의 아주 큰 사랑을 나에게 증명하기를 원했다. 그의 사랑이 이런 역사를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 역사를 허용했고 내가 그가 이 땅으로 임하는 일에 동의했다. 그는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되었던 빛의 나라를 떠나 최초의 타락한 존재였고 내 상극이 되어 나를 대적하는 영인 루시퍼의 나라인 어두운 영역으로 임했다.

나는 내 아들을 땅으로 보냈다. 그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한 겉형체로 섬기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왜냐면 나는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돌아가는 길이 끊어졌고 그들은 끝없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나와 가장 멀리 떨어진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야만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는 내 피조물이고 내 사랑과 권세와 첫번째로 창조된 존재인 루시퍼의 의지를 통해 생성된 존재들이다. 루시퍼는 원래 초기에 내 힘을 사용하여 피조물들을 생성되게 하는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었다.

내가 내 형상으로 생성되게 한 원래 영이 타락하는 일을 실제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막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사랑과 지혜로 타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권을 최종 목표로 전적으로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과정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의지로 이런 목표를 이뤄야만 했다. 그러나 타락한 존재들의 의지는 내 대적자의 영인 루시퍼의 영향으로 아주 약해져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도움은 의무단계로서 내 뜻대로 물질적인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런 후에도 존재들에게 전혀 힘이 없었다. 왜냐면 그들이 한때 내 사랑의 힘을 거부했고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단지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내 아주 큰 긍휼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길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그들 안에 사랑의 불씨를 넣어 주었다. 그럴지라도 엄청나게 큰 원죄의 죄짐이 남아 있었다.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에게 대적한 죄짐이 타락한 원래의 영들 각자에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죄짐은 신적인 공의 법에 따라 해결돼야만 했고 이런 타락한 존재들이 스스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속죄가 이뤄져야만 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머물렀던 원래의 영이 땅에서 구속역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왜냐면 그의 나를 향한 사랑과 타락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아주 강해서 이런 구속역사가 요구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가 자원하여 짊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으로서 이 땅의 과정을 가기를 원했고 인간의 겉형체인 예수 안에 육신을 입고 최고의 사랑이 필요한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 이 길이 또한 영원한 신성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 왜냐면 나는 단지 사랑이 있는 곳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사랑으로 나 자신과 연결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나는 자신을 전적으로 사랑으로 형성한 그릇을 내가 거할 그릇으로 택했다.

예수의 혼은 실제 나를 향한 사랑을 이 땅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탄생했을 때 그의 혼이 들어선 영역은 루시퍼의 나라였고 그의 혼은 루시퍼의 공격을 받았고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루시퍼의 일부였다. 그가 인간으로서 타락한 형제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또한 내 아들로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루시퍼의 공격에 자신을 방어하고 떨쳐내기 위해 사용할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의 이웃들처럼 투쟁해야만 했고 사랑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돼야만 했다. 그러나 악한 영이 그를 방해하려고 시도했고 그의 인간의 겉형체가 모든 유혹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고 이로써 자신 안의 사랑이 점점 더 강하게 되어 발산되어 그가 또한 자신의 육체의 겉형체도 영화시킬 때까지 그의 혼이 이에 대항해서 싸워야만 했고 이로써 그의 사랑의 빛은 항상 더욱 밝게 빛나고 대적자가 그가 행하는 일을 막기 원하는 일을 행할 때 까지 그의 혼이 이에 대항해서 싸워야만 했다. 대적자가 막기 원하는 일은 그가 사랑으로 초인적인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 그가 내 원수에게 사랑으로 대항하고 사랑으로 그를 물리치는 일이었고 그가 내 공의를 만족시키고 대적자가 더 이상 포로로 가둘 수 없는 혼들을 위해 구매 가격을 지불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를 충만하게 채운 사랑이 긍휼의 역사를 완성했다. 이 사랑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이런 어두움을 거쳐야만 했고 루시퍼의 나라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는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영으로서 소유했던 자신의 빛과 힘을 뒤에 남겨 둬야만 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연약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왜냐면 그

가 사람들에게 나에게 돌아가는 길인 사랑과 고난의 길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이 길은 인간 예수가 진실로 자신의 이웃보다 앞서 갔던 길이었고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의 혼에 원죄가 없었고 그의 사랑이 그에게 그의 인간의 육체를 영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이 이 땅의 과정을 갔다. 왜냐면 사랑에 저항하는 일이 단지 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인간의 심장 안에 내 신적인 사랑의 불씨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랑에 불을 붙이고 최고의 화염으로 타오르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면 단지 의지의 연약함이 사랑을 행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너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런 일이 그가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얻은 은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이런 구속 사역의 은혜를 활용해야만 한다. 이로써 그의 긍휼의 역사가 너희에게 헛되지 않게 해야 하고 너희가 예수 안의 나 자신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죄짐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의 겉형체 안에 거했다.

아멘

영의 나라로 향하는 다리. 예수 그리스도.

B.D. No. **5640**
1953 년 3 월 30 일

내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나 자신이 영의 나라로 향하는 다리를 놓았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 원하면, 너희 모두는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다. 올바르게 이해하라: 나를 자신의 안내자로 택한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 자신이 갔던 길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고 또한 가야하고, 그는 잘못된 길을 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 자신이 또한 인간으로서 내가 온 나라와 연결을 올바르게 유지했다.

초기에는 인간 예수로서 내 기원이 나에게 숨겨졌고, 나는 이 땅에 살던 이웃보다 더 많이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내 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내 혼은 항상 또 다시 내 진정한 고향인 가장 축복받은 영들의 나라로 향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갈망이 아주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 빠르게 임해 나에게 이 땅의 내 사명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나와 모든 사람들이 단지 이 땅의 손님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죽음의 시간에 모든 사람을 위해 영의 나라가 다시 열리고 단지 각자의 영역이 아주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 땅의 사람으로서 영의 나라를 알았고, 영의 영역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나는 영의 존재들의 큰 축복과 또한 그들의 큰 고통을 보았다. 내 혼은 갈망했고, 또한 끔찍해했다. 이런 영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이 내 혼이 이 땅에서 이미 이룬 성숙한 정도였고, 그러므로 내 혼이 영의 나라의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위험이 더 이상 없었다. 나는 이미 내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다리를 놓았고, 위험에 처하지 않고 다리를 건너 영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너희 안의 사랑이 다리를 놓을 수 있고 영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설명을 너희에게 항상 해주기를 원하고, 그러면 더 이상 너희 자신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깨어난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영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이라는 설명을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나라로, 너희에게 비할 데 없는 보물을 제공하는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또한 염려 없이 위험이 없이 어두움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러면 너희 안의 사랑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돕기를 원하게 된다.

이 땅에서 영의 나라로 가는 다리는 비유적으로뿐만 아니라 문자 적으로도 이해해야만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을 준비했다. 너희는 이 길을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한다. 나는 사흘 후에 부활을 통해 너희에게 내가 죽음을 극복했고, 너희 안에 생명력이 있는 불멸의 존재에게 제한이 없고, 너희의 혼이 언제든지 영의 나라에 머물 수 있고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너희가 깨어나게 한 내 영이 너희를 너희가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영의 나라와의 연결이 나를 믿는 믿음 없이, 영적인 추구가 없고 사랑 없이 이뤄지는 곳은 다르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숨겨진 영역을 볼 수 있기 위한 권한이 없이 다리를 점령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나를 깨닫지 못하고, 절대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지은 다리 위에 머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다리 건너 영의 나라로 보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내 대적자가 그들을 자신에게 유인하기 위해 속이는 거짓 환상이다. 왜냐면 어두움 속에서 빛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빛의 존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단지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진리의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빛과 순수한 진리를 그들에게 풍부하게 제공한다. 어두움의 나라에서는 단지 재앙이 오고, 빛의 나라에서는 단지 축복이 온다. 너희는 어두움의 나라에 대해 너희 자신을 닫아야 하고, 빛의 나라에게 너희 자신을 열어야 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빛의 나라에서 너희를 부르기 때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가 다가오도록 너희를 부를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한 그러나 단지 사랑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닦기 위해 내가 이 땅과 영의 나라 사이에 세운 다리를 건너야 한다.

아멘

예수는 이 땅에서 사랑을 가르쳤다.

B.D. No. **8454**
1963 년 3 월 31 일

예수의 혼은 이 땅에 사랑을 주었다. 그러므로 그는 넘치는 고난을 스스로 짊어질 수 있었다. 왜냐면 사랑이 그에게 그렇게 할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바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므로 그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비록 자신 안에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사랑을 행할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이 의지를 질식시켰고 자기 사랑을 항상 더욱 증가시켰고 모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나타나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랑의 삶을 살았다.

예수는 자신의 이웃에게 단지 선한 일을 행했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다.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고 항상 사람들의 세상의 운명을 쉽게 만들어 줄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는 이 땅의 삶의 결과를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삶이 주는 결과를 눈 앞에 보여주었고 최고의 능력을 쓸 수 있고 병자를 고치고 계속 증가되는 그의 사랑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자신에 대해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왜냐면 그가 영원한 사랑 자체인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도록 가르쳤고 이런 연결은 단지 사랑을 통해 긴밀한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이런 모든 일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 됐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산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곧 약속 된 메시아로 깨닫고 그 안에 아버지를 깨닫고 사랑을 통해 그들 안에 작은 빛이 밝혀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양분을 제공받아 어두움이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인류 가운데 이 가르침이 전파되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자신이 자기의 제

자들을 가르쳐 자신과 자신의 구속역사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고 세상으로 파송했다. 왜냐면 사람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로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했으면, 그는 절대로 이런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사랑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사랑에는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일이 없고 사랑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일도 없다. 왜냐면 인간으로서 그에게 부과 된 이런 크기의 고통과 고난의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힘이 그가 승리하게 도왔다. 사랑의 힘으로 그는 가장 극심한 고난과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견뎠고 역사가 완성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다.

사람들이 죄짐을 해결받지 못하는 동안에는 자신을 묶고 있었던 대적자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이 자신이 인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구하고 강하게 해주기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그리고 그의 전횡에 넘겨지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사랑의 삶을 통해 능력을 얻으면, 사람들은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랑의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깊은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고 사랑의 복음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땅에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향상 제공한다. 왜냐면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이는 사람은 능력이 없게 되고 그는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 빛이 있을 수 없다. 왜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적자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추종자들을 잃지 않게 깊은 어두움을 전한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도 빛 가운데 그를 원수로 깨닫는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람들이 단지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깨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포도원 일꾼은 열심히 일하며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내용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왜냐면 사람들은 단지 사랑이 그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줄 수 있고 단지 사랑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사랑이 빛을 선물하고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지식을 갖게 해 그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그들의 이 땅의 길을 가게 하고 의식적으로 그들의 과제와 그들의 목표를 이제 모든 힘으로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 자신이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제 그에게 의식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그들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 땅에 목표에 도달해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최종적으로 연합을 이룰 것이다.

아멘

B.D. No. **7864**
1961 년 4 월 3 일

너희는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밤에서 생명에 도달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빛의 나라의 문을 너희에게 다시 열어 주지 않았다면, 어두움이 너희의 운명이 되었을 것이고 너희는 어두운 운명 가운데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 빛의 나라의 문을 너희에게 다시 열어 주기 위해 나 자신이 너희 죄를 해결했고 너희를 위해 내 피를 흘렸고 이를 통해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죄짐을 해결할 때 까지 영원으로부터 너희를 포로로 잡고 있던 대적자에게 너희 혼을 위한 구매가격을 지불했다.

대적자는 이제 너희를 자유롭게 해줘야만 하고 너희가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너희를 위해 구원 역사를 완성한 나에게 도피하면, 그는 너희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짐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러므로 속죄의 역사도 특별해야만 한다. 나에 의해 생성된 원래의 영인 빛의 혼이 자신의 타락한 형제인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가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인도하고 너희에게 빛의 나라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 주기 위해 자신을 드렸다. 그렇지 않으면 빛의 나라로 가는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되었을 것이다.

빛의 혼이 이 땅으로 임했고 인간의 겉형체를 입었고 인간으로 사랑의 삶을 살았다. 이로써 그는 자신을 형성해서 나 자신이 이제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나는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그 안에서 구속역사를 완성했다. 인간 예수는 스스로 엄청난 고난을 짊어졌다. 왜냐면 그는 십자가의 가장 쓰라린 죽음으로 끝난 자신의 고난의 길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내 공의를 만족시키기를 원했다. 왜냐면 그는 아직 죄짐을 지고 있는 어떤 존재도 내 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희생 제사를 받아들였다. 왜냐면 사랑이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 안에 사랑이 거했고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역사는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신비로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의 본질을 헤아릴 수 있게 되면, 내가 육신을 입은 사랑의 역사를 너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서 나 자신은 고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자원하여 고통받기 원하는 인간이 속죄를 행해야만 했다. 왜냐면 내가 이웃을 위해 그런 희생을 하도록 어떤 사람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 사랑이 자유의지로 그가 자신의 모든 혼의 열성을 다해 사랑한 아버지께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게 했다.

그러므로 그는 나를 전적으로 그의 심장 안으로 받아들였고 모든 생각과 모든 호흡이 그를 생성되게 한 나에게 향했다.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 예수를 전적으로 모두 나 자신으로 충만하게 했고 그러므로 내가 희생 제사를 드렸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 역사를 이뤘다. 인간 예수는 큰 죄를 속죄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견뎠고 나는 이런 사랑의 행위로 만족했고 큰 죄를 해결했다.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렸고 어두움의 나라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다리가 건설 되었다. 깊은 곳에서 높은 곳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다리를 건널 수 있고 내가 첫 번째로 나를 떠나 타락한 자가 세상으로 가져온 죽음을 이겼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고 죽음을 이겼다. 나는 나를 단지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구속 역사의 은혜를 활용하고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아래로 옮기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매했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고 이로써 너희가 단지 나를 믿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를 너희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너희에게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이 없게 될 것이고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 예수로서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영광으로 빛의 나라가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진실로 죽음의 밤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왔고 그러면 너희가 다시는 영원히 이런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원래 초기부터 너희를 사랑하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너희를 사랑할 내 손에서 이런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

B.D. No. **7885**
1961 년 5 월 4 일

너희가 아무리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생각할지라도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이 역사는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어나게 될 일들 중 가장 거대한 역사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하나님 창조주,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인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고 이 땅의 인간의 과정을 갔다.

너희가 최고의 빛에 서기 전까지 너희는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일이 너희들 때문에 일어났음을 사람들에게 항상 알려야 한다. 너희가 진실로 아무리 자주 얼마나 큰 사랑이 나로 하여금, 너희 가까이에 거하기 위해 육신을 입게 했는지 아무리 자주 생각할지라도 충분하지 않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 가까이에 거하기 위해 너희들 앞에서 나를 가리우지 않았으면, 너희는 내 빛 앞에서 소멸되었을 것이다. 무한한 가운데 가장 큰 영인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하여 사람의 형체를 입었다. 왜냐면 너희를 위해 한때 자유의지로 너희가 벗어났던 나에게 향하는 길을 다시 열어주기 위해 아주 큰 죄짐에 대한 속죄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구속의 역사는 진실로 일회적인 일이다. 왜냐면 순수하고 죄가 없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당했던 어떤 고난보다 더 큰 가장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한 사람이 짊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속죄하기 위해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이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견뎠다. 이 사람 안에 나 자신이 있었다.

나는 영으로써 고통을 당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죄짐의 해결을 의미하는 내 사랑에 대항하는 모든 죄악에 속죄를 요구하는 공의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나 자신이 당하기 위해 인간의 형체를 입었다. 그러므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영원한 아버지가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죄짐 때문에 영원히 나와 격리되야 하고 너희의 죄짐이 해결되지 않는 동안에는 빛의 나라를 향한 문이 닫

혀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에게 귀환의 길을 갈 수 없는 너희를 구원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이런 큰 긍휼의 역사의 모든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의 생각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받기 전까지 너희 자신이 그가 인류의 죄짐을 위해 흘린 그의 피를 통해 그에 의해 구속을 받기까지 어두운 상태에 다시 말해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구속을 받으면, 비로소 너희 안이 밝게 될 것이고 너희가 비로소 너희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는 비로소 누가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의 과정을 갔는지 누가 너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인간 예수가 모범적으로 산 것처럼 사랑의 삶을 살면, 항상 밝은 빛이 너희 안을 비출 것이고 너희의 혼은 더욱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자주 생각으로 그에게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그 안의 나 자신을 깨달을 것이다. 너희는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임한 것에 대해 나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릴 것이다.

단지 나 자신이 너희와 너희의 죄짐을 위해 예수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제물을 드리면서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내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는 모든 시간을 위해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드려진 일회적인 역사이다. 이 역사는 절대로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의 나라에서는 빛의 세계가 빛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존재들이 언제든지 이 역사를 체험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이런 큰 사랑의 역사를 이룬 아주 큰 그들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측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나와 내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것이다. 그들 자신이 빛이 충만한 가운데 구속사역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직 구속받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즉 나 자신에게 인도하려고 시도하면서 그들은 전적인 사랑과 감사함으로 구속역사에 동참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고 모든 창조 된 존재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영원에 영원까지 남기 위해 머물렀다.

아멘

육체의 부활.

B.D. No. **6000**
1954 년 7 월 13 일

진리를 향한 의지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지식을 보장한다. 진리 안에 서기 원하는 너희는 가장 순수한 진리를 받고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전파하기 원하면 항상 축복을 받는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의심의 원인이 되는 것. 내가 너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빛이 있을 것이다.

육체의 부활에 관한 교리. 인간이 이해하기 원하는 것처럼 요.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 내 모든 말의 의미를 영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면 이미 영적 지식에 조금 뚫고 들어갔을 때 쓸모 없게 된다. 내가 말한 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읽으려는 의미는 진실로 내 말씀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말씀의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나 자신에게 이성을 구하는 사람, 그러므로 진리를 꿰뚫 으려는 사람은 곧 말씀의 영적 의미를 가볍고 분명하게 깨닫고 편지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부활. "너희에게 이 말씀는 죽음 이후의 삶과 동의어이다. "너희들에게 "생명" 은 "육체로 걷는 "와 같은 의미이다."너희의 혼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한,"생명"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너희에게 아직 이상하다면. 지속적인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육체적인 겉형체에 머무르는 일은 "생명" 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통해 이 겉형체를 잃어 버리고 또한 삼자 분열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몸, 혼, 영. 그들에게는 육체, "육체"만이 있고, 그 죽음과 함께 "생명" 이라는 용어는 소멸된다. 그들을 위한 육체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그들의 물리적 겉형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일은 어려운 교훈이다. 인간에게 믿음이 요구되는"육체의 부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을 통해 부활에 동참하다면, 축복이 될 수 있다. 저세상에서 믿는다.

이 믿음으로 그는 또한 자신의 성품을 바꾸고, 이 변화는 깨어남으로 이어지고, 내 영으로 빛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육체의 부활" 이라는 말씀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는 그 영적 의미를 파악하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 상태에서 발생한다. 어두움을 벗어나 빛 속으로 그러므로 처음으로 밤의 어두움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빛을 발할 것이다. 그일은 일어나고 스스로 드러난다. 낳기 위해 살아난다.

죽은 상태에서는 증언할 수 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삶에서 일어난 일, 너희가 이 땅에서 육체로 걸었을 때 이제 나타나고 자신을 드러내며 너희를 증언하거나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새 생명을 위해 새로 입히기 위해 물질적인 육체가 먼지에서 다시 떠오르는 일은 아니다. 왜냐면 이 육체는 혼을 위한 썩기 쉬운 겉형체 일뿐이다. 그일은 썩지 않고 죽을 수 없고, 땅에서 헤어질 때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그일은 아직 너머 나라에서 생명으

로 깨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아직 부활할 수 있다. 그녀가 이제 그녀에게"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취 하셨고 이 육체도 이 땅의 사망을 당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의 삶이 너희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의 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너희에게 증언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의 말의 진실의 표시로 그의 몸을 키웠다. 그러나 그일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 었다. 그의 몸은 영화되었기 때문이다.

혼은 영적인 옷을 입고 이 땅의 육체에서 모든 영적 존재를 제거했다. 이일은 이미 그의 생사를 통해 완전히 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영적 물질이기도한 육체의 물질적 물질은 이미 이 땅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여 혼과 합류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자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눈에 띄게 된다. 완전한 영은 땅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가 하늘나라에 올라 갔을 때 너희는 부활 후에도 육신을 갖게 될 것이다. 영적인 옷을 입는 것이다. 이일은 육신대로 만들어 질 것이다. "뿌린대로 거둘 것이다. "너희가 육체로 죄를 지었다면, 너희의 혼은 그것을 배반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혼은 다시는 무거운이 땅의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일은 물질 세계에서 자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짧은 땅 시간 동안만 머물렀던 것이다. 물질적 창조의 의미와 목적, 이 창조물을 통한 타락한 영적 성장에 대해 아는 사람은 나에게 성장할 목적으로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가르침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무의미한다. 그러나 너희가 "육체" 의 부활에 대해 절대적으로 말하기 원하면, 내 말씀이 떠오를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도 너희를 증언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나는 육신이 된 말씀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간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 모두가 심판 앞에 나타나야 할 때 내 말 자체가 너희를 위한 심판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육체가 부활 될 것이다. 그일은 음식으로 너희에게 제공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너희는 배고픈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너희 자신이 강해지게 해야 한다. 너희는 내 사랑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는 지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설명은 또한 진리와 일치하고, 영원으로부터 오는 말씀인 그가 너희를 위해"육체"가 된 그에게 자신을 먹이고 물을 주도록함으로써 이 땅에서 육체로 너희의 삶을 사용하도록 자극해야 한다. 때문. 비록 인간이 아직 영적 지식에 침투하지 않았더라도 참 지혜는 모든 설명에서 너희를 향해 빛날 것이다.

너희가 깨어난 영이라면 너희는 자원하여 받아드릴 것이다. 내 말씀의 잘못된 해석은 너희에게 저항하려는 의지를 불러 일으키고 또한 깨워야 한다. 왜냐면 이 잘못된 해석은 내 대적자, 그의 목표는 사람들의 생각을 혼동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를 향한 모든 믿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런 잘못된 해석은 또한 인간과 내 말씀을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영적 저조함을 증명한다. 편지가 죽는다. 단지 영만이 생명으로 깨어난다. 너희는 모두이 영을 요청하고 깨달은 생각을 위해기도하고 순수한 진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활절.

B.D. No. **7579**
1960 년 4 월 17 일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나는 성전을 다시 세웠다. 나는 죽은 후 삼일만에 부활했다. 내 육체도 무덤을 벗어났다. 왜냐면 내가 사람들이 내 부활을 알게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죽음 후에 계속 사는 것을 믿지 안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내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 나에게 가능함을 증명해주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영화 된 상태의 육체가 무덤으로부터 부활하게 했다. 나는 나를 보았고 느꼈던 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왜냐면 그들이 내가 이전에 그들에게 선포한대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그들의 성장 정도가 나를 볼 수 있게 허용하는 사람들만이 나를 볼 수 있었다.

왜냐면 나는 단지 육체적으로만 그들 가운데 거했던 것이 아니라 육체와 혼도 영화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사람들만이 단지 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에도 육체와 혼이 영화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삼일 후에 내 부활을 의심하는 것처럼 한편으로 사람들이 의심하며 내 육체가 불법적으로 숨겨 졌다는 혐의를 말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혼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육신이 죽을 때 혼이 육체를 떠나 저세상으로 들어갈 때 같은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왜냐면 혼은 죽을 수 없고 단지 혼의 상태가 그들의 삶의 내용에 따라 아주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 땅에서 혼을 성숙하게 했다면, 혼은 생명으로 영의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

내 혼은 성숙하게 되었다. 내 혼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었다. 내 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다스릴 줄 알았고 모든 육체의 갈망을 완화시켜 육체의 모든 입자가 영화되는 것을 이미 이 땅에서 이루었고 그러므로 혼과 마찬가지로 죽음 후에 부활할 수 있었다. 내가 이에 대한 증거를 삼일 후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지 믿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에 대한 어떤 증거도 더 이상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영이 깨어난 사람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목적과 목표를 아는 사람은 삼일 후에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 왜냐면 내 승천 후에 체험하게 된 내 부활 후에 내 제자들에게 부어준 내 영이 그에게 이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내 승천도 단지 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이미 자신을 준비해 영의 부음을 받는 체험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지의 강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 부활 후에도 단지 몇몇의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이런 특별한 체험을 통해 이런 몇몇의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했다. 왜냐면 내 제자들이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

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삼일 후의 내 부활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에 비추이는 내 빛의 충만함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나를 그리고 내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은 내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가 이를 믿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면 그 안의 나로부터 발산 된 영이 내면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는 내적으로 자신의 혼이 생명으로 부활할 것에 모든 전적인 확신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게 것이다. 그는 나와 하나가 되길 추구할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이고 그 안의 나 자신과 연결될 것이다.

그는 영적인 추구를 하고 항상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할 것이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자신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함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의 부활과 영화**.**

B.D. No. **7693**
1960 년 9 월 6 일

내 혼과 마찬가지로 내 육체도 영화되었다는 것을 너희는 안심하고 진리로 영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장 과정을 아직 가야만 하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도 무덤 안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너희는 안심하고 진리로 영접할 수 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모든 입자들을 영화시켰다. 다시 말해 나는 인간 예수로써 모든 입자들을 영원한 내 아버지에게 향하게 했고 내 안의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어떤 것도 육체에 더 이상 없게 되었다.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나 때문이거나 내 육체의 영화를 위해 당한 것이 아니고 이 고통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내 육체는 아직 인간적인 요소이고 육체가 큰 고통을 느끼고 견디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했을 때 나는 내가 영화 된 증거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내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났고 그러므로 육체와 혼이 부활할 수 있었다. 왜냐면 육체와 혼이 영화되는 일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이제 이런 영적인 존재를 무덤에 묶어 둘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왜냐면 영은 모든 것을 비록 가장 굳은 물질이라도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육체를 영화시키는 일이 나에게 가능했다. 왜냐면 나는 전적으로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고 사랑이 모든 순수하지 못한 입자를 분해시켰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순수하지 못한 것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사랑은 영원한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보장해주기 때문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분해시키고 이제 영원한 근원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단지 가장 순수한 것만 남겨두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랑 가운데 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변화되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 육체를 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물질적인 입자를 올바른 질서 안에 있게 할 것이다. 물질적 입자 안에 묶임을 받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영원한 사랑인 나에게 향하고 한때 자신의 입자를 굳어지게 한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게 만든 원

인을 제공한 모든 저항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너희 육체를 영화시키는 일은 이 땅에서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가능하다. 그러면 너희 육체는 혼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너희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체험하는 일이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는 믿을 수 있고 내 육체가 무덤으로부터 일어섰다는 것을 너희는 믿을 수 있다. 왜냐면 인간으로써 내 삶은 진실로 육체가 영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계속되는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한 아버지와 연합을 이루었고 나는 전적으로 그에 의해 충만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성품밖에 있지 않게 되었고 나는 그와 영원에 영원까지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없다.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것을 통과하는 영이기 때문이다. 그를 인격화 할 수 없고 그를 볼 수 없다. 만약에 존재가 자신을 높은 정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않았고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내 안에 거했던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멸시켰을 정도의 힘과 빛이다. 나는 소멸되지 않고 이런 빛과 능력으로 전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영화 된 육체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태를 유지했고 그러므로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한 존재들로서 나 자신 앞에 나온 존재들에게 내가 볼 수 있게 머물렀다.

모든 공간을 채우는 영원한 큰 영이 인간의 형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내가 창조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너희가 스스로 사랑이 충만하고 나와 하나가 되면, 너희 사람들이 비로소 이해하게 될 나 자신이 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부활의 문제와 육체와 혼이 영화되는 일과 내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전적으로 하나가 된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이해할 것이고 너희는 나와 전적으로 연합이 된 것이다. 너희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는다. 왜냐면 그와 나는 하나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기 때문이다.

아멘

1954 년

B.D. No. **5934**
1954 년 4 월 18 일

부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면 그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말했다. 그들은 내가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믿었고 내가 실제로 진정한 하나님이었고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었다. 나는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로써 나는 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 내가 3 일 후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한 내 말이 진리임을 증명했다. 나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쳤다.

그러나 내 부활이 단지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돼야 하고 사람들은 죽음 후의 삶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마친 모든 각각의 혼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길을 갔다. 왜냐면 죽음 후의 삶을 믿는 믿음이 모두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선지자의 죽음을 가장 경건한 사람도 결국에는 죽는다는 예로 사용했다. 그들은 삶의 영적인 효력을 알지 못했고 혼의 부활을 의심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고 불편해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가르침을 따르는 일의 영적인 효력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은 사람들을 살렸다. 사람들은 나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통해 나에게 죽음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것과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은 비록 이 땅의 삶을 마칠지라도 생명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 땅의 육신을 부활시켜, 육신 안에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이 들어 있지 않음을 보여줬고 내가 영화되었음을 보여줬고 이로써 육신이 영적인 형체가 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내 육체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전혀 없었다. 왜냐면 끔찍한 고통을 통해 전적으로 정화되었고 모든 이 땅에 속한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영적인 것이 전적인 생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체가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왜냐면 그 어떤 것도 육체를 이 땅에 묶어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육신의 죽음 후 다시 살아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왜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정을 모든 인류가 깨달아야 한다. 왜냐면 이를 깨닫는 일과 내 부활을 믿는 일이 내 신성에 대한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내 사명을 믿는 믿음과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로 진실로 죽음에서 부활했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나를 볼 수 있게 나타냈다. 이를 통해 나는 내가 사람으로서 죽음을 극복했다는 사실과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가 구속 역사를 통해 영적인 옷을 입은 내 육체를 이 땅에 묶어둘 권세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

명했다. 이런 구속역사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 그러므로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을 받아 내 대적자의 세력을 벗어난 어떤 혼도 내 대적자가 묶어둘 수 없게 되었고 혼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혼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면 혼은 그의 구속자가 살아 있음을 알고 그의 구속자가 자기를 믿고 자기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3 일 후에 부활**.**

B.D. No. **6810**
1957 년 4 월 20 일

너희 사람들이 내 구속사역을 어떻게 고백하는 지가 너희가 죽음 후의 삶을 믿을지에 결정적이고 무덤으로부터 부활과 저세상으로 가는 일을 믿을 지에 결정적이다. 왜냐면 구속사역인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3 일후에 부활을 통해 최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내 부활은 이 전에 내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을 확인시켜주고 사람들에게 육체의 죽음 후에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사람이 내 가르침대로 산다면, 이제 영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람들은 실제 이런 내 부활을 의심하고 단지 전설로 안다. 내 부활은 증명해줄 수 없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단지 믿거나 거부할 수 있다.

믿음도 또한 내 구속사역의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이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았다는 증거이다. 왜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이다. 즉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내 육체가 볼 수 있게 무덤으로부터 일어난 일은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내 겉형체인 육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전적으로 영화되었다는 의미이다. 혼이 입은 것은 영적인 옷이었다. 내가 죽음에 대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모든 놀라게 하는 일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이 영적인 옷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내 이 땅의 삶은 사람들에게 깊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줘야 하고 나는 내 모든 가르침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과 연결시켰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믿는 믿음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나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본다. 내 제자들 자신도 믿음이 연약했고 내가 나를 내 원수의 손에 맡겼을 때 그들은 죽음과 같은 두려움에 빠졌다. 그들의 믿음은 내가 죽음을 다스리는 자임을 믿을 정도로 아직 강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3 일 후에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한 말을 믿지 않았다.

나를 가장 긴밀하게 따랐던 그들 모두는 큰 슬픔에 빠졌다. 그들이 내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해야만 했을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들을 돕기 원했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해주고 동시에 그들에게 내가 삶과 죽음의 지배자라는 증거를 주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혼들에게 해당이 되는 일인 혼은 죽을 수 없고 다른 세상에서 깨어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따라 저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해줬다. 혼은 육신을 떠난다. 그러나 육신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써 뒤에 남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 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의 자유 때문에 그에게 증거를 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동시에 부활하게 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의 입자들이 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3 일 만에 부활한 일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그들에게 3 일 후에 내 부활을 알려 주었고 그들의 성장 정도가 허용하기 때문에 단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내 육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 충분한 다른 이유들을 찾았고 그러므로 이런 일이 믿음의 강요가 되지 않았다. 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사람들이 단지 내 육체를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육체도 내 십자가의 죽음 후에 더 이상 자연의 법칙 아래 놓이지 않게 되었다. 왜냐면 육체가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육체의 죽음 후에 육신의 입자들이 혼과 동화될 수 있는 성장 정도에 희귀하게 도달한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 단지 연약하거나 또는 잘못 된 개념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먼저 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아직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모든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없애 버릴 것이고 그는 항상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내 구속사역과 내 부활을 그들에게 믿을 수 없게 묘사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전적으로 모두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3 일 후에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 영이 그에게 이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은 내 올바른 인도를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내 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찾은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약속한 생명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을 벗어났다. 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도피했기 때문에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린 순간부터 이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고 그는 이제 비로소 생명력이 있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멸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세상적인 육체를 잃을지라도 그의 혼이 존재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의 혼이 단지 죽음과 같은 상태로 저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덤이 혼을 가두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무덤의 바위를 치우지 않으면, 혼은 자신의 무덤 속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세주는 모든 혼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언젠가 모든 혼들에게 부활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왜냐면 언젠가 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부르게 될 것이고 내가 이런 부름을 듣지 않고 지나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혼은 무덤에서 일어나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고 그러면 무덤의 어두움이 혼으로부터 사라지고 혼은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무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들도 내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생명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준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매해주기 위해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너희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희에게 더욱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살다 죽었던 그들에게 내가 아직 생명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직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혼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이런 혼들은 그들의 이 땅의 삶에 따라 자신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가운데 죽음의 나라에서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거하던 영역은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이 전적으로 사탄의 추종자인 것을 입증하고 처신했던 혼들이 거하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지옥 전의 영역으로 평화와 축복의 장소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깊은 어두움과 고통의 장소도 아니었다. 그들의 의식 가운데 밝은 순간이 있어 그들이 서로 나눌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고 이 땅의 삶의 기억이 그림처럼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고 이 영역에서 그들이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선지자를 통해 이미 그들에게 예언 된 구세주를 통해 구원받게 되리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혼들은 이런 구원자를 기다렸다. 나는 내 십자가의 죽음 후에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들도 내 사랑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들을 위해도 내 피가 흘려졌다. 나는 그들의 혼을 지배하던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 구매하기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자유의지로 동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강요하는 빛의 능력으로 인해 따라야만 하는 빛나는 빛의 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로써 모든 내 십자가의 죽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럴지라도 자신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게 한 인간으로써 그들에게 다가 갔다.

왜냐면 그들도 강요받지 않고 내가 약속 된 메시아임을 먼저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도 내가 이 땅에 거하던 때에 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로 나를 따라야만 한다. 그들 모두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럴지라도 내가 부활한 후에 빛과 영광이 나를 감싸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영의 옷을 입은 가운데 이 나라로 내려갔다면, 이런 빛을 어떠한 존재도 저항할 수 없게 되면서 갖게 되었을 전적인 확신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지옥으로 내려 갔다. 그들 모두는 지옥 전에서 나를 따랐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단지 가장 작은 빛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내가 고통스러운 내 십자가의 죽음의 증거들을 통해 이 빛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이 충만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으로써 가장 깊고도 깊은 곳으로 내려 갔다. 그러나 나는 단지 적은 수의 믿음을 얻을 수 있었고 단지 적은 수의 존재들 만이 멸망의 무리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왜냐면 그들 모두는 아직 그들을 묶고 있는 원수의 발톱 아래 깊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대적자는 자신의 타오르는 분노 가운데 자신에 대한 내 승리를 깨달아야만 하고 자신의 추종자들을 깊은 곳에 가두어 두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대적자는 이제 내가 그보다 훨씬 더 강함을 알게 되었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의 사슬을 풀어줄 수 있는 일이 나에게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방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혼들에 대한 권세를 영원히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신의 추종자를 잃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언젠가 모든 사람이 그로부터 구속을 받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 자신도 언젠가 내 사랑의 힘 아래 복종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언젠가 내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데 영원한 기간이 흘러갈지라도 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의 승천.

B.D. No. **8984**
1965 년 5 월 27 일

내 승천도 또한 너희 사람들에게 의심스러운 일이다. 왜냐면 단지 모든 온전하게 된 혼들은 체험하지만 너희는 볼 수 없는 단 하나의 과정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너희가 단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일어난 내 승천이 너희에게 믿기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단지 나에게 속한 사람들과 내 제자들과 그리고 나와 내 사명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단지 승천을 볼 수 있고 내 안에 가장 높은 존재가 거한다는 것을 믿고 이로써 믿도록 강요받지 않고 모든 특별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지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게 높은 곳으로 올라간 목적은 내가 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라는 사명을 준 내 제자들이 단지 모든 믿음의 힘으로 나와 내 말씀을 대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였다.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이로써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사라지는 그들의 믿음의 절정의 순간을 경험했다. 그들은 나를 아주 분명하게 보았고 깨달을 수 있었고 내가 갑자기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을 보았다. 왜냐면 내가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리는 영의 나라가 나를 다시 받아드렸기 때문이다.

내 몸은 영화되었다. 내가 제자들의 눈 앞에서 사라질 때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겉형체였다. 그러나 이런 내 승천은 그들에게 공허함을 남기지 않았고 그들에게 단지 그들이 내 입술을 통해 들었던 모든 말이 진리라는 확증을 주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내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할 수 있었다. 즉 그들은 일어난 긍휼의 역사에 관한 모든 일을 언급했고 이로써 그들은 나와 구속 역사에 대해 증거했다.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내 승천을 의심하는 일은 그들이 실제적인 인간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고 그들이 육체가 영화되는 과정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진지하게 그들의 영적으로 성숙한 정도를 높이기 위한 결심을 하기 까지 육체가 영화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얻을 수 없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 그들이 설명을 얻었다면, 승천하는 과정이 그들에게 믿을 만하게 되었을 것이다. 승천하는 과정은 단지 영화된 몸이 모든 축복가운데 계속해서 살게 되는 저세상의 나라로 옮기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혼이 계속해서 산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은 너희 사람들에게 죽은 후에 혼이 계속 산다는 증거가 되야 할 과정을 믿기를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고 그들이 단지 내 임재에 대한 볼 수 있는 증거를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승천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지식을 얻었고 이제 지식에 대한 확인을 단지 체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은 내가 마침내 그들의 진정한 고향이 있는 곳에 거한다는 것을 알고 슬퍼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이 이 땅의 삶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언젠가 머물게 될 장소를 준비하기를 원했다 것을 알았다. 그들의 이 땅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만 했던 길이 아무리 어려웠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나를 체험했고 그들은 내가 이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그들의 생각을 인도하고 내가 항상 또 다시 그들의 임무를 더 쉽게 해주는 지시들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들이 또한 이제 나로부터 직접 힘을 받고 이로써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또한 내 영으로 충만해졌다는 믿음을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다. 그들이 마찬가지로 이 땅의 계곡을 떠나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그들이 단지 성취시켜야만 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너희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일이 믿을 수 없는 전설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 승천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미 영적인 깨달음에 더 깊이 도달한 사람과 스스로 자신의 육체를 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내 승천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영원한 빛을 향해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웃이 믿도록 강요하지 않기 위해 영원한 빛이 단지 이웃에게 숨겨져 있고 숨겨져야만 한다.

그러나 내 제자들은 이미 생명력이 있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승천이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일에 단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믿도록 어떤 강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단지 내 승천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승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영접해야 하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약간의 깨달음이 너희에게 주어지면, 너희는 또한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의 부활**.**

B.D. No. **8469**
1963 년 4 월 15 일

죽음을 극복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육신을 죽음 이 후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의 혼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삼일 후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함으로써 너희에게 증거를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죽음을 이 세상에 가져온 자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약속을 나 자신이 해주었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너희 혼이 죽음의 상태로부터 깨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이 생명에 도달하기를 원하지 않는 동안에는 내 대적자가 그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내가 실제로 무덤으로부터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단지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가르침을 지키면, 너희는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면 너희는 무덤의 밤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낮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혼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전에 너희 사람들에게 내가 삼일 후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함을 알려 주었다. 내 약속은 성취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비어 있고 어떤 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의 증인이 되었다.

나는 단지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 육체를 영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그리고 모든 육신의 입자들이 영화가 되어 혼에게 연결이 되면, 육체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고 내 승천이 너희에게 증명해 준 것처럼 진실로 살아 있는 가운데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거를 너희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기를 원했다.

너희가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전해준 것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것은 인류가 처해 있는 사랑이 없는 상태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너희에게 전해진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를 진리 안에서 인도하는 그의 영이 그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내면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그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믿음을 떠나게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육체의 죽음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 왜냐면 그는 소멸되지 않고 이제 비로소 그가 영원히 살게 될 자신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죽음을 극복했다. 왜냐면 내 구속사역이 없이는 너희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의 상태에 남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원히 나로부터 떨어져서 남게 되었을 것이고 너희에게 내 사랑과 생명력이 비춰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구매해주기 위해 내 생명을 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너희의 혼이 육신을 벗어나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만약에 너희가 육체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화 시키면, 너희의 사랑을 통해 혼으로부터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면, 너희가 육체가 전적으로 나에게 헌신하게 나를 따르는 생활을 하게 정할 수 있으면, 너희는 너희 육체를 빛과 축복의 나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증명을 해준 것처럼 혼과 육신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주 희귀하게 전적으로 영화되는 일에 성공을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안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나를 인정하는 모두를 위해 죽음의 모든 끔찍함을 나는 해결했다. 모든 사람에게 내 가르침이 진리라는 증거가 되야 하는 부활을 통해 구속사역은 종료가 되게 되었다.

왜냐면 내가 삼일 후에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미리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믿음과 의지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내 가르침대로 살아서 이를 통해 그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고 이제 영을 통해 구속사역의 끝까지 삼일 후의 부활까지 포함이 되는 가르침을 받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스스로 증거를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은 너희에게 어떠한 증거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영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그렇지 않고 서는 너희에게 믿을 수 없게 보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내 부활을 믿을 수 있으면, 너희는 육체의 죽음으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혼이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부활함을 알게 된 것이다.

아멘

내 구세주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B.D. No. **7085**
1958 년 4 월 6 일

영의 세계에서 내 구속사역으로 인해 환호와 기쁨이 있었다. 왜냐면 모든 빛의 존재들에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또 다시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자로써 빛의 나라의 문을 그들에게 열어 준 나를 찬양하고 칭송했다. 그들은 내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3 일만의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알았다. 그들은 이런 가장 큰 인류를 위한 긍휼의 역사를 통해 부활이 보장됨을 알았다.

그들은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을 알았고 끝 없이 긴 기간 동안의 가장 극심한 포로상태가 지난 후에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구속의 순간이 다가옴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나를 향한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증가하고 동시에 그들은 항상 또 다시 현재로 체험할 수 있는 구속사역에 참여한다. 왜냐면 빛의 나라에서는 시간의 제한이 없고 그들은 모든 과거에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는 과정에 동참하려고 시도하면, 그들은 이를 통해 가장 큰 축복의 얻을 것이고 그들의 심장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것에 대한 환호와 깊은 감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 과정은 일회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이런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을 짊어진 사람이 없다. 비록 이웃의 잔인함으로 그들에게 견딜 수 없게 보이는 환경의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자주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끝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역사 가운데 영적인 과정이 함께 역사했다. 이는 그의 육체의 고통을 더 많이 증가시켰다. 왜냐면 혼은 가장 높은 깨달음 가운데 있었고 이로써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당했을 영적인 위험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악한 역사를 그에게 행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순수한

육체가 지옥의 보냄 받은 자로 느꼈던, 그들의 불쌍한 욕망과 악한 충동 만족시키는 일을 당하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이를 견디었다.

그는 모든 영광 가운데 3 일 후에 그를 가두어 둘 수 없는 무덤에서 다시 부활했다. 이로써 그의 부활은 그의 구속사역의 최고봉이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구속하게 만든 모든 사람이 자신들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함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전에도 사람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왜냐면 혼은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은 영원히 계속 산다. 그러나 혼의 상태가 생명의 상태인지 죽음의 상태인지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 왜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 만이 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만이 축복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은 저세상에서 죽음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기를 구할 때까지 그는 오랫동안 죽음의 상태에서 머물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의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한 분이 죽음을 극복했고 이 한 분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모든 깊이를 이해하고 이 역사에 참여하기 원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그의 가시를 잃어버린 것이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의 찬양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는 진실로 부활했다. 내 구세주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아멘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자신의 가시를 잃게 되었다.

B.D. No. **7086**
1958 년 4 월 7 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럴지라도 그는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 순간이 실제 끝이 아니고 그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혼이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에게 사슬이었던 이 땅의 겉형체를 버리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내 뜻에 합당하여 그의 혼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성장에 도달했다면, 이제 어려움 없이 저세상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혼의 죽은 상태는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다시 말해 사람의 혼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게 혼이 무덤을 벗어나 혼의 진정한 고향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3 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혼이 소멸되지 않는 일은 바꿀 수 없는 법칙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것은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혼은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영적인 존재이고 그러므로 혼은 육체가 죽을지라도 계속해 존재한다. 그러나 혼이 빛과 영광 가운데 육체의 죽음 후에 부활할 수 있는 일은 내 십자가의 죽음과 내 부활 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왜냐면 혼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원죄의 짐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는 항상 혼이 피할 수 없었던 어두움이었고 무덤의 어두움이었고 이 상태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치우지 않은 무덤의 돌이 있는 상태였다.

다시 말해 이런 혼들에게 아직 속죄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들의 죄짐은 속죄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 안의 혼은 어두웠고 혼들에게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었고 음산한 무덤의 밤이 혼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죽음이 혼들에게 끔찍한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3 일만에 부활했 혼이 부활했고 단지 육체와 혼이 영의 옷을 입었고 육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성장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서 가능했던 것처럼 육체가 혼과 동시에 영의 나라로 같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영화되지 않은 육체만 버려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3 일만에 부활했다.

나는 내 부활을 통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원했다. 나는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서 그들이 이 땅의 육신을 벗게 되면, 혼이 단지 거하는 장소를 바꾸는 것임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왜냐면 내가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죽음의 순간은 단지 실제적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자신의 가시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이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은 은혜를 영접하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구원을 받게 허용하는 한 가지가 필요하고 이 전의 그의 원죄를 사함 받고 혼이 무덤의 어두움으로부터 밝은 빛으로 나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예수그리스도가 무덤에 돌을 치울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큰 죄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고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 것이다. 그는 비록 그의 육체가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가 아직 그의 죄의 무덤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내 품 안에 맡기고 그가 죽음의 순간이 임했을 때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나에게 긴밀하게 부탁했다면, 그는 그의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축복스럽게 잠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자신의 육체를 이 땅에 남겨 둘 것이다. 그러나 그의 혼은 부활할 것이고 혼은 빛을 향해 올라갈 것이다. 혼은 자신 주변에서 무덤의 어두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혼의 손을 잡고 혼의 겉형체인 육체를 벗게 이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할 것이다. 혼은 죽음으로부터 자신이 부활했고 이제 자신이 영원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알 것이다.

인간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이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내가 보낸 존재로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단지 먼저 가는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그들을 자신에게 데려갈 것이다.

아멘

죽음을 극복하는 일**.** 부활**.**

B.D. No. **7580**
1960 년 4 월 18 일

너희의 삶은 축복될 것이다. 왜냐면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는 것은 너희가 한때 깊은 곳으로 타락하는 죄로 인한 불행을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는 것은 깊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성장했다는 것이고 빛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영원히 어두움을 벗어 났다는 것이다.

생명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너희는 능력을 받고 빛과 자유 가운데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생명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하는 일이 너희를 축복되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와 같이 창조할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생성될 것이다.

너희가 아직 인간으로써 또는 창조의 작품 안에서 묶임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인간으로써 그의 상태는 이미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었지만 너희가 비록 인간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단지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생명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너희는 아직 죽음의 상태에서 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먼저 이런 영원한 생명을 내 피를 통해 구매해야만 했다. 나는 먼저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고 삼일 후에 죽음으로부터 부활 했다. 왜냐면 내가 죽음을 그리고 죽음을 이 세상에 가져온 자를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비로소 너희가 영원히 더 이상 잃지 않을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구속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내 부활의 기적이 해당 된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극복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모두가 생명에 도달할 수 있게 했다. 나는 내 부활을 통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전적으로 자신이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죽음이 없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했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 생명에 도달할 것이다. 단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사랑의 삶을 통해 내 혼과 내 육체를 영화시킨 것처럼 자신을 영화시킬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 왜냐면 사랑이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쉬지 않고 일하게 자극하는 능력이다.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에 도달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은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에게 죽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는 단지 겉형체를 벗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세상적인 물질이고 자신의 육체를 의미하는 무덤을 벗어날 것이다. 그는 모든 곳에 거할 수 있고 항상 일할 수 있고 더 이상 장소와 시간에 묶임을 받지 않는 그러므로 말할 수 없이 축복된 자유로운 영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죽음은 극복되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B.D. No. **8123**
1962 년 3 월 12 일

너희는 단지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너희는 부활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한 너희의 구속자이다. 그는 너희는 어두움으로부터 들어올리는 구세주이다. 그가 자신이 바로 싸움을 위해 대적자에게 응했고 대적자를 극복했다.

그러므로 그는 대적자가 세상에 가져온 죽음을 극복했다. 예수는 너희와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갔다. 너희가 너희의 죄짐을 십자가를 향해 가져가면, 너희는 예수가 대신해 자신의 피를 흘린, 예수가 대신해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에 속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을 구속하기를 스스로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그를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의 겉형체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속사역을 완성시켰다.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는 사랑을 통해 영원한 사랑 자체와 긴밀하게 연합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또는 영원한 신성 자신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그를 충만하게 채웠다. 그러므로 예수의 혼이 자신이 사랑인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되는 일이 이뤄졌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의 측량할 수 없는 죄를 해결했다. 예수 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수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원래의 성분인 사랑이 전적으로 인간 예수를 채웠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나타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예수가 하나님이 되었다. 왜냐면 예수는 영원한 사랑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와 영원한 사랑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향하는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단지 십자가를 통해 보장 된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아래로 옮겨야만 한다. 그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사해주기를 구해야만 한다. 진실로 그에게 아버지를 향하는 길은 열릴 것이다.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왜냐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극복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혼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을 더 이상 잃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면 그는 이 세상에 죽음을 준 자의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스스로 깊고도 깊은 곳으로 타락한 비록 자유의지로 그를 떠났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로 그로부터 다시 벗어날 능력이 더 이상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를 함께 타락시킨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다. 이런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능력을 다시 구매해 주었다. 그는 존재들의 의지가 강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그는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여 대적자가 자신의 권세를 떠나려는 존재들이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택하면, 더 이상 묶어 둘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으로 그가 사람들과 대적자 사이에 서게 하는 데 충분하고 그의 진정한 고향의 나라를 향해 위로 가는 길을 가는 능력을 모두에게 제공해 주는데 충분하다.

왜냐면 이제 빛의 나라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서 있고 단지 그에게 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든 죄에 대한 죄사함을 그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한다. 왜냐면 예수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예수가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그에게 요구하고 자신을 자신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없이는 구속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원죄의 짐을 지고 있다. 그는 절대로 빛의 나라의 입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를 자유롭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자유의지로 깊은 곳까지 자기를 따른 자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가야 하고 인류 때문에 죽은 분에게 한때 자유의지로 아버지를 떠나 깊은 곳으로 빠졌던 사람들에게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구속사역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스스로 짊어진 분에게 넘겨 드려야 한다.

예수에게 긍휼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예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한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왜냐면 사랑 자체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B.D. No. **6354**
1955 년 9 월 13 일

나는 너희를 행복과 생명을 위해 창조했고 죽음을 위해 창조하지 않았고 너희를 내 사랑과 지혜와 일치하지 않게 무가치하게 존재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런 상태는 절 대로 온전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타락한 너희의 운명이다. 너희는 완전히 온전하게 나에 의해 생성되었다. 그러나 너희의 현재의 상태는 전혀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고 오히려 반대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완전히 다른 형체를 취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잘못에 의해 피조물이 되었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불릴 권리가 없게 되었다. 왜냐면 내가 한때 창조한 존재는 가장 온전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는 이런 온전함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는 내 소유이다. 왜냐면 존재는 내가 내 피조물 안에 내 힘을 표현한 내 힘이기 때문이다. 이 힘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나에게 속한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처한 상태는 너희가 나로부터 끝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는 너희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생명은 사랑과 지혜로 힘을 사용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일할 힘이 없고 활용할 지혜와 사랑이 없다. 비록 내가 너희의 출처이지만 너희는 죽은 피조물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하고 너희가 다시 나에게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 이로써 내가 너희에게 빛과 힘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이 힘을 내 뜻 대로 사용해야 한다. 왜냐면 그런 일이 너희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언젠가 이 사명을 성취시킬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너희가 생명이 되도록 너희를 창조했고 나는 너희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 자신이 너희를 돌봐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절 대로 생명에 도달할 수 없고 힘이 없이는 너희가 절 대로 끊임없이 생명을 누리는 영역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힘을 공급해줘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 힘을 받아드려야만 하고 한때 너희가 아직 내 가까이에 있고 축복을 받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내 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너희가 한때 자원하여 나에게서 등을 돌린 것처럼 너희는 다시 나에게 향해야만 한다.

너희가 나를 힘의 원천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나를 너희를 생명으로 생성되게 한 아버지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한때 나를 떠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완전히 바꿔야만 한다. 너희가 빛과 힘이 충만한 가운데 영원히 축복되기를 원하고 너희의 사명 대로 살고 역사하기를 원하면, 너희는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돼야 한다.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너희를 신적이고 온전한 존재로 만든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너희의 자유의지가 이런 변화를 일으켜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다시 돌려주기 원한다. 왜냐면 내 사랑은 절 대로 너희에게 축복이나 성취를 의미할 수 없는 죽은 상태로 너희를 놔두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또한 생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내 형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항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전적으로 의탁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저항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너희의 저항을 멈추라. 그러면 내가 모든 영광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영원으로부터 생명 자체인 분을 부름으로 죽음을 벗어나라. 죽음의 밤 깊은 곳에 머물지 말고 너희의 속박을 풀 수 있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을 부르라. 너희가 한때 너희의 배교와 너희에게 생명을 의미하는 그 분의 사랑을 거부한 일을 통해 지은 죄를 지었던 분을 인정하라. 너희가 단지 그 분의 사랑의 힘을 갈망하고 너희를 그 분에게 드리면, 그 분은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그 분의 사랑의 힘을 제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기를 원한다. 너희는 절 대로 무기력하게 느끼지 않게 될 것이고 곧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달을 것이고 너희가 누구였는지 너희가 누구이고 너희가 다시 어떻게 돼야 하는 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전적으로 의식하는 한때 가졌던 온전함에 도달하기 위해 추구할 것이고 생명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빛과 힘을 가지고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불행하고 죽은 존재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모든 사랑을 드리게 될 것이고 이제 내 자녀가 될 것이고 영원히 내 자녀로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생명의 약속. 죽음. 무기력.

B.D. No. **5637**
1953 년 3 월 27 일

내가 생명을 주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존재할 수 있고, 죽음의 상태에 거할 수 있다. 그러나 죽었다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무기력한 가운데 존재하고,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올바른 생명은 빛과 힘으로 역사할 수 있고, 축복되고, 나와 같은 의지로 나와 함께 그의 힘을 사용하는 일이다. 이런 올바른 생명을 내가 단지 빛과 힘을 공급하는 일을 통해, 제한이 없게 생명의 흐름을 흘려주는 일을 통해 존재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힘의 공급은 존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왜냐면 이런 힘을 받아드릴 수 있고, 받아드리기를 원하는 일이 존재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고, 내 힘이 존재의 의지와는 반대로 어떤 존재에게도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고, 존재를 형성하는 일이 또한 힘의 흐름이 적당한 그릇을 찾는 일과 같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 행하도록 강요받게 되고, 그러면 존재가 축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이 없이는 존재는 마비된 상태와 죽음의 상태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존재는 자신의 상태를 고통의 상태로 느낀다. 왜냐면 존재가 이미 자유한 상태를 알고, 존재가 자신의 사명대로 전진한 것이 아니라 퇴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존재에게 죽음을 주지 않고 생명을 주었다.

그러나 존재 자신이 자발적으로 생명을 주는 나를 떠나 죽음을 추구했다. 즉 존재가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을 거부했고, 이런 거부하는 일이 영원한 고통과 어두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 존재 자신이 한때 경멸했던 것을 다시 요구해야만 하고, 존재 자신이 한때 자유의지로 거부했던 내 힘을 다시 요구해야만 하고, 존재 자신이 인간으로 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내 사랑의 힘을 얻고, 내 사랑의 힘이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자신을 형성해서, 존재가 이제 다시 내 힘에 의해 살아 있게 되고, 이제 활동할 수 있고, 축복되게 하고 이로써 존재가 살고, 그의 생명을 영원히 더 이상 잃지 않게 하는 과제를 완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한 모든 존재는 살고, 이런 사랑의 힘이 없는 모든 존재는 죽은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절대로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잊은 상태이거나 무감각하거나 또는 쉬는 상태를 절대로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는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태이고, 죽은 자를 되살리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내 약속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를 위한 조건은 너희가 한때 행했던 것처럼 더 이상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단지 너희 자신을 내 사랑의 힘의 흐름 앞에 여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사랑의 힘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죽은 상태에 있다. 왜냐면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갈망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힘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하지 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존재들이 큰 위험과 깊은 어두움 속에서 거한다. 그러나 존재들은 빛과 권세와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부하는 동안에는 나는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없다. 나는 단지 그들에게 내 도움의 손길을 항상 또 다시 펼칠 수 있고, 그들이 이 손을 잡고 나에 의해 자신을 살아 있게 만들게 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이런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할 것이고, 내 사랑은 또한 항상 구원 역사에서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존재들이 빛과 힘을 갈망할 때까지, 존재들이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이제 생명으로 깨어날 수 있고, 이로써 존재들이 생명을 영원히 잃지 않게 될 때까지 영원한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

아멘

삶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B.D. No. **5988**
1954 년 6 월 29 일

나는 죽음을 피해 세상에 죽음을 가져 오신 분에게서 돌아 서고, 내가 깨어 나면 영원히 살겠다는 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한다. 나 혼자서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고, 나 혼자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죽음을 계명할 수 있고, 나 혼자서 너희가 삶에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와서 내 손에서 생명을 얻는다. 진실로 살고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힘을 원하고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한다. 왜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죽음에서 쫓아 내고 원하기 때문에 너희의 혼의 생명이 없는 상태를 바꾸고 너희 자신의 행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나는 그녀가 이미 이 땅에서 언젠가는 영의 나라에서 빛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의지에 반하는 아무것도할 수 없다. 너희가 죽음을 피하고 싶을 때 내 힘을 먹을 수 있다. 너희가 모든 생명의 원수로부터 돌아서야 그는 너희를 향한 그의 힘을 잃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에 접근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너희에게 힘이 흐르고, 너희에게 생명을 보장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내 사랑의 힘의 흐름에 너희 자신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심장은 이제 생명수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죽음을 피했다.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도 혼의 적을 풀어줄 수 없다. 왜냐면 의지가 약해지고 그것에 의해 재갈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그일은 너희를 땅에 유지하고 혼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접근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로 깨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너희를 포로로 잡은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원수가 너희에게 제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이일은 너희가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너희를 그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다. 너희가 그것을 원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의 손이 너희를 만지고 그의 사랑의 혜택을 느끼게 한다. 그는 너희가 그를 존중하고 그가 너희를 구속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너희의 길을 걸어간다. 십자가에서 의 죽음을 통해 대적자의 영역에 침투할 권리를 획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긍휼로운 사랑은 또한 깊은 곳의 혼에게도온다. 이 땅에 있든 너머의 나라에 있든.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세주이 가까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죽음의 밤에서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분에게가는 길을 택하라. 그는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서 육신을 취한 생명 그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희를 만난다. 너희가 도움을 주 자마자 너희가 십자가에 눈을 돌리고 일어나고 저항하고 너희는 내 도움으로 포로에서 자유로워진다. 내가 너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했다.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B.D. No. **7305**
1959 년 3 월 12 일

나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생명이 없다. 왜냐면 내가 생명이고 나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육신을 입은 초기에는 아직 훨씬 더 죽음에 속해 있다. 그는 이 땅에서 먼저 진정한 생명에 도달해야 한다. 그는 이를 위해 정해진 길을 가야만 한다. 이 길이 다시 바로 나 자신이다.

그는 내 손에서 진리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에 도달하고 생명에 도달하는 한 가지 길만이 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 원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진리 안에서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모두가 단지 나를 따라야 할 길을 그들 앞서 가기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아직 죽음의 밤 가운데 산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이 길을 알면, 그들에게 이 길을 갈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이 능력을 선물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인도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그들이 축복된 생명에 도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했다. 내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진리에 생명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면 그가 나를 인도자로 모시지 않는 동안에는 그는 확실하게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생명에 도달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을 죽음 가운데 유지하려는 그가 올바른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는 일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할 자에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사람 자신이 살기를 원해야만 하고 생명의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그에게 능력과 인도를 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가 혼자 이 길을 가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 길은 위를 향해 가는 길이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길은 힘이 들고 유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표 때문에 이 길을 가려는 사람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왜냐면 목표가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목표는 축복과 빛 가운데 능력과 자유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신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에게 능력이 부족해 실패하거나 또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죄와 죽음과 연약함과 어두움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과정을 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그가 단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면, 단지 한 분이 생명을 줄 수 있고 스스로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분을 믿으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내가 생명에 대해 말하면, 이 생명은 단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짧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나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고 이런 너희의 생명이 축복된 생명이 되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거쳐야만 한다. 너희는 전적으로 확실하게 모든 자유한 진정한 생명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 생명을 더 이상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B.D. No. **5523**
1952 년 11 월 2 일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 이런 내 말씀이 분열을 일으켰다. 내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위해 나를 믿는 믿음을 요구한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입으로 고백하는 일이 아니라, 내 구속역사를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진리라는 내적인 확신을 믿음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런 내적 확신은 단지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 또한 사랑이 필요하고 이로써 사랑이 제일 먼저이다. 나를 믿음으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은 그런 믿음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약속한다. 그러나 이성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런 이성의 믿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고,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믿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믿음이다. 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원한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믿음은 단지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사람이 사랑을 통해 자신 안에 안전감을 느끼면, 그가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산다. 이런 믿음은 진실로 행복한 믿음이고 이제 그의 모든 뜻과 생각을 정하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삶을 살게 한다.

이성적으로 믿는 일은 혼이 성숙한 증거가 아니다. 왜냐면 인간은 양육을 통해 기독교의 영역으로 가도록 떠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 인간으로 살았던 이 땅의 내 삶과 내 구속 역사를 거부할 수 없고, 이 모든 일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이에 감동할 필요는 없다. 그에게 이런 일은 그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의 심장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성장할 때 비로소 그의 심장이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이를 믿는 믿음은 그 안에 축복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생명력이 있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이 가운데 인류에게 행하는 내 역사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 그가 비로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첫번째로 요구한다. 왜냐면 영원한 생명의 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속받을 수 없는 죄짐으로 인해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의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로서 믿음을 요구했지만 믿음은 항상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된 믿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먼저 내가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

에게 준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켜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또한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력 있는 믿음**.**

B.D. No. **6427**
1955 년 12 월 16 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부름을 통해 그와 그의 구속 역사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을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너희는 예수 안에 내가 육신을 입은 일을 믿어야 하고 이 믿음은 사랑으로 다시 깨어난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사랑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이 사는 사람은 대적자와 싸울 의지가 없다. 왜냐면 그가 대적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또한 약한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약한 의지가 그가 사랑을 행하고 대적자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막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하고 자신의 뜻을 강하게 해주도록 그에게 구해야 한다. 그는 먼저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는 곧 그의 의지가 강해지는 일을 체험할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점점 더 많이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 그의 인간 예수의 신성에 대한 믿음과 그의 구속사역과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 생명력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 내 이름을 대변할 것이다. 단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비록 처음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적인 확신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린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지식일지라도 이런 사람에 대한 생각은 이미 그와 연결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고 이런 연결이 언젠가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 준다. 그가 그의 이 땅의 삶을 생각하고 선한 의지가 있다면, 이런 생각이 그를 더 이상 놓아주지 않는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그를 자신에게 묶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의 모든 생각을 안다. 그가 영원한 그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나와 긴밀한 연결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그에게 직접 다가 갈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예수를 통해 이런 연결을 일우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에게 순수하게 역사적인 일로 말해줘야 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으로 역사하여 그가 인간 예수가 그런 삶을 살고 행한 이유를 찾으려고 시도하게 하고 그러면 그는 그의 삶과 죽음이 영적인 원인에 기초한 것이라는 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를 얻는 일이 가능하고 이제 그에게 가르침이 진리에 합당하게 제공 된다면, 그는 더 이상 가르침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려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아직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일은 어렵다. 왜냐면 아직 전적으로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그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 그에게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지식을 얻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이든지 그에게 예수의 이 땅의 삶에 관한 지식이 제공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이 예수의 이 땅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알려고 시도한다면, 내가 진실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씀이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으로 선포되고 예수 자신이 온 세상에 선포 된다면, 이런 일은 항상 축복된 일이다. 이로써 사람이 진리와 역사적 사실과 그가 예수의 사명을 인정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에 도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이성적인 믿음이 또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믿음이 비로소 너희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믿고 내 구속사역을 믿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빛과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너희에게 연다. 너희 모두는 이런 생명력 있는 믿음에 도달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돼야 한다.

아멘

예수 이름의 구속하는 능력.

B.D. No. **7066**
1958 년 3 월 14 일

너희는 내 이름 안에서 구원을 구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해야만 함을 알아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와 그의 긍휼의 역사를 믿어야만 함을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임했다. 나 자신이 그의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내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 나는 그를 통해 기적을 행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고 세상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다.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자신을 사랑으로 만들어 나 자신에게 합당한 겉형체가 되어 나를 전적으로 모두 자신안에 받아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용서하기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름 예수는 영원한 너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때 너희를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아직 부족한 축복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 이름 안에 모여야 하고 나 자신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이런 믿음은 모든 것을 생성되게 한 그러므로 너희를 생성되게 한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너희는 이제 한때 너희를 위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비로소 갈 수 있게 해준 구세주를 인정해야만 한다. 너희는 단지 이 길을 통해 아버

지께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러면 비로소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 너희 혼이 이제 비로소 전에 가졌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에 도움을 줘야만 하고 도움이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 안에서 구원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필요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함을 헤아려 보거나 또는 증명하기 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이해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눈을 들어 주변을 관찰하고 창조물에 대해 창조물의 생성에 대해 생각하면,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구속하는 능력에 관해 말하고 있다.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고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 이름을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 구속사역의 의미를 먼저 체험해야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빛의 나라의 문이 열려진 시대가 되었고 전적으로 구속을 받은 혼들이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돌아 갈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많은 혼들이 축복의 문 앞에 서있기 때문이다. 많은 혼들이 이제 비로소 축복된 영의 존재로써 그들이 원래 초기에 생성되어 나온 곳에 거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원죄를 해결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아버지 집으로 귀환하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나라의 문이다. 그의 이름이 빛의 영역의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진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 안에 있고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로써 나를 부르는 것이다. 나는 진실로 그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 자신에게 너희 안건을 아뢰면, 너희는 잘못 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너희는 너희의 짓누르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사랑이 다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고 내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성취시켜줄 것이다. 나는 항상 영원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단지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비로소 자유의지로 너희를 온전한 존재로 바꾸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귀환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너희는 비로소 "피조물"에서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자유의지는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강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면, 비로소 나에게 향하는 길을 들어선다. 왜냐면 이 길 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인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멘

B.D. No. **5952**
1954 년 5 월 9 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만으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중요성을 잊었다. 왜냐면 인류가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생각이 없이 자신을 아버지께 향하는 다리로 묘사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지 영과 생명이 없는 문자이고 사람들은 말씀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말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로써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확신을 가진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아버지에게 향해 다가갈 의지가 없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찾지 않고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자세가 멸망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이끈다. 그들은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머물고 그들이 높은 곳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곳에 머물게 된다.

사람들이 위를 향해 전혀 추구하지 않고 그들의 이 땅의 과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복음에 무관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설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에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일은 아주 불쌍하게 여길만한 상태이다. 아무도 그가 아버지에게 귀환하기 위해 이 땅에 머문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끊임없이 귀환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가 믿지 않기 때문에 굳어진 생각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과 아버지 사이의 간격이 크지만 한 분이 인도하고 전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고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다리를 건설했고 이런 분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분이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먼 가운데 이 분을 지나친다. 비록 이런 분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자신에 대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진리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가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것을 활용해야만 하고 삶의 목적인 아버지와 연합하는 일에 성공하는 이 땅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구해야 한다. 아버지와 연합이 비로소 축복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보장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무관심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어떤 운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유일하게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을 도피처로 삼지 않음으로 무엇을 얻지 못하게 되는 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엇을 얻지 못하는 지를 알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비록 말씀이 위로부터 전해질지라도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자원하여 귀를 여는 다른 목소리인 세

상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구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러므로 죄와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혼의 지속적인 삶을 믿으라**.**

B.D. No. **3299**
1944 년 10 월 19 일

육신의 죽음 후에 계속 산다는 확신이 사람들이 이 땅의 고통을 훨씬 더 쉽게 인내할 수 있게 한다. 왜냐면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단지 영의 나라의 실제의 축복된 삶에 도달하는 예비 단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 땅의 삶이 최고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려움과 고난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기쁨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기쁨이 헛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죽음 후의 혼의 삶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생각이고, 죽음의 두려움이 또한 사라지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단지 영적 삶을 살게 되는 문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은 혼이 계속 존재하는 일을 부인하는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사후의 삶을 부인하는 사람은 단지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 땅의 삶을 활용하고, 이 땅에서 단지 오래 잘 사는 일을 추구한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죽음으로 자신들이 소멸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단지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통해 혼이 계속 산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이웃사람이 그에게 전해줄 수 없고, 사람은 단지 생각하도록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물이 반드시 계속 존재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가 결함이 있는 작품을 만든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이 보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는 창조물로써 완성된 형태를 가진 창조물이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위로 성장하는 일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런 성장은 당연히 사람이 됨으로 멈출 수 없고 영의 나라에서 계속된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의 삶이 끝남과 함께 완전히 끝이 난다는 생각보다 더 즐겁게 죽음 후에 삶이 계속 된다는 생각을 기쁨으로 받아드리는 긍정하는 느낌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이런 성장을 증명해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만 하고, 그럴지라도 그는 그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이제 그가 의심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살게 한다. 왜냐면 죽음 후에 계속 산다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아주 다르게 이 땅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혼이 높이 성장하는 일을 이 땅의 삶의 목표로 여기고, 죽음 후에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인 혼이 성장하게 만드는 일을 목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지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단지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그는 기쁨이든 슬픔이든 몸과 연관된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혼의 삶을 위한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감정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실제 이 땅의 밖의 영역에 있지만, 이런 일이 유일하게 이 땅의 목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혼이 구하는 일임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육체의 욕

망이 항상 우세하여 혼을 이런 영역에서 끌어내린다. 계속 산다는 믿음이 사람 안에서 깨어나, 혼이 육체의 욕망에 저항하기 전에는 육체가 성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가올 때의 고난은 계속되는 삶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의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그들의 시간적인 끝이 온 것으로 여기고, 이를 아는 일이 그들 안에 그들을 마비시키는 공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왜냐면 믿음이 항상 위로와 힘의 근원이 될 것이고, 믿음은 절대로 짓누르지 않고, 일으켜 세울 것이고, 믿음이 의지의 연약함이 아니라 의지의 강함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강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믿음은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경시하고 놀리려고 시도할지라도,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것이다.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 왜냐면 사람이 불멸한다고 생각하면, 그는 또한 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이 땅의 삶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혼의 불멸하는 것을 그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할 때, 비로소 그가 믿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랑이 지배적이고, 자기 사랑은 죽음 후에 계속 산다는 믿음을 항상 거부할 것이다. 왜냐면 혼이 자신의 결함이 있는 상태를 알기 때문에, 계속 산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사랑을 계속하여 끊임없이 가르쳐야만 한다. 이로써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야 하고, 그가 이 땅의 삶을 지나치는 과정으로 깨닫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상태로 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의식적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한 추구를 하게 해야 한다.

아멘

변화시키는 역사**.**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계속되는 삶을 믿는 믿음**.**

B.D. No. **5871**
1954 년 2 월 7 일

나는 너희를 단지 이 세상을 위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창조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너희의 삶은 너희가 존재해온 가운데 너희가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받은 영의 존재가 되어 살기 전에 거쳐야만 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단계 가운데 단지 하나의 가장 작은 단계이다. 너희 자신의 의지에 의해 너희가 아주 온전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너희는 더 이상 소멸될 수 없다. 그러나 너희의 목표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너희가 수많은 성장단계를 거쳐야만 하고 이런 단계들 중 하나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제 너희의 존재가 너희가 태어난 후 몸이 죽을 때까지만 지속된다고 믿는다면, 너희의 믿음에 아직 심각한 결핍이 있다는 신호이다. 왜냐면 너희에게 높아지는 성장정도가 얻게 하는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너희의 자유의지를 통해 너희 자신이 정한 올바른 삶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 가진 아직 결함이 있는 상태를 온전한 상태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내가 너희가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너희에게 선물과 은혜를 부여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바꿀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

너희가 성공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이런 가능성을 활용하면, 너희 안에 이 땅의 기간이 단지 과정이라는 믿음이 살아날 것이다. 즉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육체의 죽음으로 너희의 삶의 끝난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된다. 이런 믿음은 이미 너희의 진정한 자신이고 불멸한다고 인정하는 너희의 혼이 성장했다는 증거이다. 나라는 정체성은 소멸되지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변하는 중에 있고 한 성장 단계를 활용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게 하려면, 이런 변화되는 일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할 너희의 과제이다.

이런 너희의 자아는 이 땅의 삶을 시작할 때 깨달음이 없고 생명이 없는 아직 죽은 존재이다. 왜냐면 먼저 나로부터 나온 힘의 흐름이 진정한 생명으로 깨어나게 해야만 하고 존재가 스스로 이런 힘의 흐름을 원하면, 비로소 힘의 흐름이 존재에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성과 생각할 능력을 부여받았고 인간의 이성이 신체의 생명의 기능을 이끌 수 있고 의지를 한 방향을 향해 일하게 할 수 있다. 비록 사람의 이성이 아직 강하게 발달되지 않았을지라도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여 그가 내면으로부터 사랑을 행하도록 이끌림을 받게 만들고 이런 내적인 충동을 따르려는 그의 의지에 따라 그가 아직 경직된 혼을 살아나게 하고 혼은 이제 의지에게 올바른 방향을 줄 수 있다. 왜냐면 혼이 가장 작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혼에게 생명을 주는 힘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혼의 생명이 깨어나게 하고 사랑이 의지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공하고 사랑이 또한 사람에게 깨달을 힘을 준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수록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이런 삶이 그가 점점 더 나에게 향하게 하고 그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원하는 일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죽음 후에 계속되는 삶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의 생각이 잘못될 수 없고 그가 행하는 모든 사랑과 함께 내 사랑의 힘이 그에게 흘러 가기 때문이다.

모든 사랑을 행하는 일이 사람을 나와 연결시키고 그의 영을 밝게 하고 혼은 더 이상 죽지 않고 혼은 살아 있고 영원히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혼은 또한 이런 확신을 사람의 이성에게 전하고 사람은 이제 계속되는 삶을 믿는 믿음을 모든 웅변을 동원하여 대변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된다. 왜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가 죽을 때 그에게 영원 가운데 생명을 보장하는 성숙한 정도에 그가 도달했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은 혼에게 혼이 지칠 줄 모르는 활동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런 활동이 혼을 상상할 수 없게 축복되게 하고 이런 활동은 끊임없이 사랑을 행하는 일이다.

아멘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

B.D. No. **8059**
1961 년 12 월 9 일

사람들이 단지 그들의 실제적인 자기인 그들의 혼이 불멸한 것을 믿기를 원하면, 혼이 인간으로써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 맞이할 운명을 준비함을 믿기 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처할 운명에 무관심했던 것을 언젠가는 쓰라리게 후회할 것이다.

왜냐면 언젠가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에게 항상 또 다시 전해진 경고와 권면을 받아들였다면,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하지 않은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

들의 미래의 운명에 관해 무관심 한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곳으로 빠지게 위협하는 큰 죄악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단지 죽은 후에 계속 산다는 것을 그들이 비록 이 땅의 육체를 벗어야만 한다 할지라도 소멸될 수 없음을 알게 해야 한다.

그들의 생각은 마치 내일이 다가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다가올 때를 향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그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이를 그들에게 증명해줄 수 없다. 그들은 이를 단지 믿을 수 있다. 만약에 그들이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실제적인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해 본다면, 그들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이 혼의 진정한 고향인 나라로부터 생각을 통해 답변을 받기 위해는 단지 영적인 방향으로 향한 생각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로 이런 질문하는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그는 강요를 통해 이런 영적인 생각으로 인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게 하기 위해 아주 작은 자극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질문은 단지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종종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에 해당될 수 있는 세상적인 소유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를 잃음으로 인해 그가 이런 생각하 수 있게 해주는 느낄 수 있는 손실을 봐야만 한다. 이런 손해가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시도하는 영의 세력이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심각한 운명적인 일이 그에게 오히려 축복이 된다.

사람에게 혼이 계속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면, 비록 그가 교회를 통해 교육을 받았을 지라도 공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이를 의심할 것이다. 그들에게 내적인 확신이 부족하다. 이것이 영의 나라의 삶을 위해 살아야 할 그의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무관심 하게 만든다.

그러나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혼에게는 종말을 의미하지 않지만 확실한 종말을 향하게 할 수 있는 체험이 있다. 항상 또 다시 그에게 대화를 통해 또는 기록의 형태를 통해 그가 자유의지로 영접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가르침이 주어질 것이다. 세상의 물질을 잃어버리는 일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목적인지 질문하는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면 그는 죽음 후의 계속 산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그는 언젠가 다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자신 안에 항상 강할 것이다. 왜냐면 이 땅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려는 단지 아주 작은 의지가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게 되고 버림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 후에도 혼은 계속 산다.

B.D. No. **7343**
1959 년 4 월 22 일

비록 육체가 죽을지라도 너희가 산다는 한가지를 너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의 육체의 죽음 후에 너희가 어떠한 상태에서 살게 될지는 즉 너희 삶이 실제로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지 또는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사랑없음과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러나 너희가 아직 존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해야만 하는 상태에 거하게 될지는 너희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너희가 전적으로 소멸되는 일은 너희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일은 너희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 행복한 상태를 만드는 일이 너희의 염려가 되야 한다. 왜냐면 한때 저세상에서 가질 너희의 운명은 너희 자신의 고유의 의지에 관련 된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너희의 삶의 방식에 따라 이 운명을 만들어 나간다 . 삶의 방식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이라면, 너희는 너희에게 축복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너희 자신을 위해 살면, 너희에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 너희는 확실하게 고통이 가득한 상태를 기다릴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빛과 능력과 자유가 부족한 것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이 땅의 너희의 사람들이 계속해 산다는 것을 아주 적게 믿는 일이 너희의 삶의 방식을 정한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육신이 사라질지라도 혼은 계속해 존재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혼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진짜 너희 자신이 혼임을 믿지 않는다. 혼이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똑 같이 느끼고 자신의 행복과 밝음을 갈망하고 언젠가 깨달음의 빛 줄기를 얻으면, 혼은 자신의 실제 이 땅의 과제를 깨닫고 돌아보면서 이 과제를 성취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가장 쓰라린 후회를 한다.

반면에 빛이 충만한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은 찬양과 감사를 노래할 것이고 충만한 능력과 자유 가운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소멸이 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혼이 어떠한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것을 느낄지는 너희 사람들 스스로 이 땅에서 정한다.

왜냐면 너희가 육신을 입기 시작할 때 아직 부족한 혼의 상태를 개선시키게 너희에게 이 땅의 시간이 주어 졌기 때문이다. (1959 년 4 월 22 일) 그러므로 자신에게 올바르고 쇠하지 않는 생명을 주는 일이 사람의 혼의 일이 되야 한다. 그래서 언젠가 자유와 빛 가운데 혼이 자신의 성장 상태에 따라 역사할 수 있는 나라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되야 한다.

실제 도달할 수 있는 성장 상태는 여러 가지 성장 단계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항상 혼이 언젠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이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족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심지어 더욱 어둡게 될 수 있다.

그러면 혼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와 같다. 그러면 혼은 이 땅의 삶을 잘못 사용한 것이고 혼은 육신을 입는 은혜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혼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태는 아주 슬프고 불쌍히 여길 만한 상태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잘못이다. 왜냐면 사람의 의지만이 혼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의지는 자유하다.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 후에 계속 존재함을 믿기 원했으면, 그들은 이 땅에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가장 깊고도 깊은 곳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사람에게도 믿게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에 도달하게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

아멘

육체의 죽음 후에 실제적인 삶이 시작된다.

B.D. No. **5696**
1953 년 6 월 12 일

너희가 너희의 혼을 위해 이 땅의 삶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보내면, 죽음이 더 이상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죽음을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환영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실제적인 삶이 이제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진 혼들과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행복한 활동하는 일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너희는 빛과 자유와 힘과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죽음을 이긴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축복될 것이다. 너희는 혼의 성숙에 도달해야만 하고, 너희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혼의 성숙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고난과 육체적 고난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줘야 하고, 적어도 한가지 좋은 일을 행하지 않은 날이 없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너희를 사랑이 되도록 형성하고, 항상 더 많이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 또한 자신의 사랑을 너희에게 더 많이 베푼다. 왜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자신에게 끌어드릴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결별할 수 없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은 끊을 수 없게 아버지와 자녀를 연결시키는 끈이고, 너희가 절대로 이 끈을 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너희에게서 모든 겉형체가 사라지고, 너희가 자유롭게 되고, 자유롭게 머물고, 너희는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생명이나 또는 죽음. 자유의지의 결정.

B.D. No. **6175**
1955 년 1 월 25 일

너희는 생명을 얻거나 죽음을 향해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어떤 상태를 택할지는 전적으로 너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너희는 고통이 충만한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 수 있고 죽음에 빠질 수 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너희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의식하는 가운데 죽음을 아주 큰 고통으로 느끼게 된다. 너희에게 삶의 길과 죽음의 길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고 너희 자신이 영원 가운데 너희의 운명을 정한다.

그러나 생명은 빛과 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고 끊임없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전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 즉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고 이로써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일을 의미한다. 너희는 이 땅에서 이런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얻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힘을 받고 이제 풍부한 빛과 힘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전해진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볼 수 있게 살려는 너희의 자원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단지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고 이런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진리 자체인 그가 또한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보여주었고 그는 사랑을 유일하게 생명으로 도달하는 길로 가르쳤다. 사람이 빛과 힘을 가진 생명에 도달하는 목표에 달성하려면 그의 가르침을 영원한 사랑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반드시 영접해야만 하고 순종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이런 사랑의 길을 가지 않는 혼이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혼은 영원히 빛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고 영원히 불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삶과 죽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혼이 갈망했던 것을 단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은 획득해야만 한다. 영원한 생명은 너희의 의지와는 반대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얻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고 죽음의 상태에 빠졌다면, 너희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서 일생 동안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지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설명해주고 이런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또한 이 땅에서 그들을 가르치신 분을 믿지 않고 그는 그분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생명을 절대로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 축복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빛과 힘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육체의 죽음의 시간이 그에게 다가오면, 무기력하게 저세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의 혼은 자유의지로 죽음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혼 자신이 자유의지로 죽음을 택했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이나 생명. 세상을 극복하는 일.

B.D. No. **6571**
1956 년 6 월 13 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고 세상을 멸시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왜냐면 세상은 혼에게 죽음을 주지만 세상을 극복하는 일이 혼이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실제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너희가 배정 된 이 땅의 장소를 채우는 일이 또한 너희의 이 땅의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런 과제에 더하여 이 땅의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즉 너희가 세상 보다 다른 목표를 더 높게 여기고 너희가 세상 한가운데서 영적인 추구를 하면서 너희의 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너희의 실제적인 이 땅의 과제는 먼저세상을 극복하는 일을 요구한다. 즉 세상이 너희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세상을 다스려야만 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위에서 머물러야만 한다. 너희는 세상을 너희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것이 단지 너희를 섬기는 정도로 세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주 된 관점을 영의 나라로 향하게 해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면, 너희는 영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너희는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유일하게 몸이 죽은 후에 너희 혼의 상태를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빠지고 너희가 단지 세상적인 재물과 세상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를 잘 생각하고 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추구하라.

너희는 이 땅의 나라와 영의 나라를 동시에 소유하거나 얻을 수 없다. 너희는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결정해야만 한다. 왜냐면 두 나라가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이고 각 나라가 너희에게 부과하는 요구가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나라는 사라지는 반면에 다른 나라는 영원히 지속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의 힘과 너희의 염려와 수고를 너희가 다시 잃어버리게 될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대신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생명력을 사용하라.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결과는 생명이나 죽음이고 너희가 스스로 이 땅의 삶의 결과를 정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또 다시 경고와 권면을 받아드리라. 너희가 피할 수 없고 너희에게 확실하게 눈 앞에 있는 너희 삶의 마지막을 알려고 하라. 너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려면, 너희는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미 그렇게 되도록 돌봐야만 한다. 이를 위해 너희는 너희의 몸보다 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혼의 생명이 깨어나게 하고 유지시키려고 시도하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육체는 태연하게 피폐해지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 단지 육체에게 유용하지만 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희가 세상이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세상을 단지 적으로 본다면, 너희는 또한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랑을 잃게 될 것이고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향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단지 모든 죽은 존재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해서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축복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세상을 극복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 한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 혼을 위해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삶과 죽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

B.D. No. **6802**
1957 년 4 월 9 일

너희는 미움이 있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내 사랑을 갈망해야만 한다. 내 사랑은 너희에게 절대로 제공되지 않고 머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 사랑을 받기 위해 단지 너희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언제든지 나로부터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내 사랑의 따뜻함을 갈망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생명을 부여하거나 또는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가장 차갑고 모든 살아 있는 존재들이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무덤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나에게 내 심장으로 도망쳐 내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기 원하는 한 분을 생각한다. 단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생명에 도달하고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왜냐면 유일하게 사랑이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 없음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한다. 나는 너희 모두를 내 사랑으로 감싸 너희가 생명으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 모두에게 아주 필요하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모든 굳어진 존재들이 사랑의 불 가운데 생명에 도달하게 하는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저항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내 사랑으로 붙잡힘 받으려고 하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는 죽음의 굳어진 상태에 머물고 절대로 생명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모든 사랑의 불씨를 죽이기에 합당하다. 왜냐면 전혀 사랑이 없는 내 대적자가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사람들 간의 싸우게 하고 사람들이 항상 단지 사랑이 없는 생각하게 만드는 자기의 성품을 너희 안에 넣어 주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 사람들은 서로 원수를 맺고 사람들은 서로 간에 지나치게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자기 사랑을 강하게 하고 항상 단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절대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의 한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위험에 대항해 싸우지 않고 그들은 의지가 없이 사랑이 전혀 없는 자에 의해 이끌려 다닌다. 그들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끝이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뒤따르고 그들이 죽음의 영역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생명으로 향하게 그들을 돕기 원한다.

단지 사랑이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단지 사랑이 생명을 주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사랑 없음은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전파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 진실로 너희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물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너희에게 아무런 의문이 없어야 한다. 너희는 이 행복을 세상에서 구하지 않고 영원으로부터 사랑이고 생명인 나에게 구해야 한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내 사랑을 너희 안에 비춰 줄 수 있게 허용하고 너희 스스로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나에게 너희 심장을 자유의지로 열고 너희 스스로 나에게 다가와 내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면,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생명을 선물해줄 수 있다.

너희는 이런 순간부터 너희 안에서 생명을 느낄 것이고 너희는 진실로 새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의 화염이 너희 안에서 불타오르고 너희 안에 죽은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깨어나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아직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너희는 죽음의 영역에서 살지 않는다. 너희의 사랑의 따뜻함이 죽은 자의 죽음의 굳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원해 감싸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의 불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죽은 영역에서 구원하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나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므로 항상 능력을 얻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그는 모든 굳어진 사람들에게 중개자로써 나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사랑의 샘은 마르지 않고 스스로 사랑의 샘으로 다가오는 사람과 생명에 도달하기 원하는 사람과 그러므로 자신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도망쳐 내 가까이로 오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나에게서 생명을 찾는 그들의 희망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뜨거운 사랑으로 내 팔을 펼쳐 그들의 이웃의 사랑 없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러므로 나에게 달려온 모두를 내 심장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진실로 그들 심장 안에 사랑의 불씨를 가장 큰 불길로 타오르게 한다.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

B.D. No. **7911**
1961 년 6 월 5 일

나는 모든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왜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은 쉬지 않고 빛과 능력 가운데 일하는 상태였다. 왜냐면 모든 존재들의 근원인 내 사랑의 힘이 한때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실존하는 존재들에게 흘러 갔기 때문이고 이 능력은 이제 쉬지 않고 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일은 계속하여 창조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창조하는 방식에 대해 너희에게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의 아직 제한 된 생각으로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창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을 했고 이런 일이 생명을 증명했다.

존재들이 나를 떠났을 때 그들이 내 사랑의 힘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서서히 일하지 않는 상태에 빠졌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에서 죽음에 도달했다. 그들의 성분이 굳어졌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고착이 되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됐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축복되다고 할 수 없게 됐다.

한때 내 피조물로써 나로부터 전적으로 온전하게 생성되어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이런 죽음의 상태 가운데 처했다. 이런 존재들은 빛과 능력 가운데 제한이 없이 역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넘치게 축복 되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대적했을 때 내 사랑의 비추임을 거부했을 때 마찬가지로 나를 떠난,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인 내 대적자를 따라 깊은 곳에 갔을 때 그들의 온전함을 잃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생명으로부터 죽음에 도달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영원히 이 상태에 두지 않는다. 나는 모든 죽은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려고 시도한다. 나는 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다시 생명의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귀환하는 일은 언젠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끝 없이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고 그러나 귀환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존재가 스스로 정한다. 왜냐면 나는 모든 존재들이 신적인 특징으로 소유한 귀환의 과정의 방식과 기간을 정하는 자유의지 한가지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너희 주변에 보는 모든 창조의 작품들은 이런 귀환과정을 위해 단지 생성 된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내 사랑과 지혜가 성공할 것으로 깨달은 대로 내 권세가 실행하는 구원계획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나는 죽은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 원한다.

다시 말해 모든 굳어진 것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이 서서히 다시 일하게 허용받아야만 한다. 나 자신이 이 일을 정한다. 왜냐면 내가 나를 대적하는 의지를 성장 과정의 어느 기간 동안 묶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서히 다시 생명의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나 의무

상태에서 다시 말해 존재가 자유의지가 없이 그러나 그는 끝 없이 긴 성장기간이 지난 후에 언젠가 다시 확실하게 자유의지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이제 내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만 한다. 이런 성장 과정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너희가 모든 창조의 작품의 생명이 각각의 혼의 입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는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혼의 입자들은 한때 타락한 존재들에게 속해 있는 죽은 상태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들로 분해되어 이제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 창조물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행한다.

너희 사람들은 창조물이 근원적으로 무엇인지 단지 작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는 창조물이 임의 대로 의미와 목적이 없이 생성 된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깨우는 일에 도움을 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한때 나를 떠난 존재는 내가 내 형상으로 생성되어 나오게 한 내가 행복하게 해주었고 나도 이 가운데 내 행복을 찾기 원했던 존재이기 때문이다.

존재들은 내 사랑의 피조물들이다. 나는 그들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만든 죽음의 상태로부터 그들이 벗어나게 되길 원한다. 나는 그들을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인도하기 원한다. 한때 나에 의해 창조 된 존재에 대한 내 사랑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죽은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노력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내 사랑의 역사를 자신에 적용해 완성시켜야만 한다.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멀리한 것처럼 그들은 자유의지로 나를 다시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 생명의 상태를 선택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들의 마지막 완성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의지가 정하기 때문이다. 의지가 실패하면, 존재는 스스로 실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기간을 연장시킨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확실하게 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한때 자유로운 생명으로 빛과 능력 가운데 내 사랑으로 생성한 어떤 존재도 죽음의 상태에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는 일. 머무는 기간. 하루와 같은 천년.

B.D. No. **5476**
1952 년 8 월 31 일

나는 너희 모두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너희가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찾기를 원한다. 나는 그런 일을 원하고 또한 그런 일을 성취시킨다. 왜냐면 너희를 향한 영원한 내 사랑이 내가 성취시키는 일을 너희에게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도 너희의 역할을 해야만 하고, 너희가 생명을 원해야만 하고, 너희가 죽음의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음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너희가 아직 머물고 있는 상태인, 생명이 없는 상태의 기간을 스스로 정한다. 비록 너희가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의 영은 죽었다. 나는 너희의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를 원하고, 이로써 너희가 영원히 축복될 수 있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만 너희의 의지를 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내가 제공하는 영원한 생명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의

지가 나를 대적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축복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항상 너희의 의지를 바꾸기 위해, 너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자발적으로 바꾸도록 너희의 생각을 항상 인도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이일은 단지 너희가 실제 거부할 수 있지만 또한 너희가 너희에게 이미 유익을 의미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진리를 제공하는 일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너희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줄 것이다. 왜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내 선물을 거절할지라도, 내 선물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그들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고, 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내가 이 땅에서 성취하지 못한 아직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내 사랑을 갈망하고 스스로 나 자신을 추구할 때까지 그들의 의지를 바꾸는 일을 새로운 구원 시대가 이뤄야 한다. 왜냐면 한때 나에 의해 생성된 마지막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쉬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의지는 변하지 않고, 내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내 지혜와 권세는 영적인 존재가 귀환할 모든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의 의지가 기간을 정한다. 영적인 존재는 끝없이 긴 시간 동안 나에게서 멀어진 가운데 머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끝없는 긴 시간 동안 영적인 죽음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 생명으로 깨어나게 된다. 영적인 존재는 언젠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 인식하고 깨닫고, 나에게 도달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활용하고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축복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땅의 삶은 단지 고향을 향하는 길에 통과하는 과정이다.

B.D. No. **6325**
1955 년 8 월 4 일

너희를 항상 단지 이 땅에서 잠시 길을 가는 사람으로 여겨라. 그러나 절 대로 지속적으로 이 땅에 거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왜냐면 진정한 너희의 고향은 영의 나라이기 때문이고 게다가 너희가 자유한 가운데 단지 이 땅의 과정을 통해 영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또한 다른 생각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특정한 목표를 확신하면, 너희가 이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야 하고 너희를 묶지 않게 해야 하고 너희는 이를 항상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 즉 너희가 이를 마치 빌린 것처럼 여기고 잠시 동안 길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 너희는 항상 단지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 땅을 떠나야만 하고 이제 너희의 진정한 고향으로 귀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저세상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풍성한 재물을 모아 들어가도록 돌보라. 너희가 가난하고 비참하게 너희의 고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빛나는 가운데 충성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가운데 들어가도록 돌보라. 왜냐면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너희 영적인 재물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너희는 너희 자신이 이 땅의 재물에 묶임을 받도록 허

용하지 않아야 하고 항상 세상 재물이 헛된 것이고 너희가 어떠한 세상의 재물도 저세상의 나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영적인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왜냐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위험이 있고 너희가 항상 영적인 위험과 세상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이 땅의 삶에서 주는 것을 너희는 영적인 재물로 다시 돌려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도움을 요청받는 모든 곳에서 베풀고 도와야 한다. 너희가 곤경을 보게 된다면, 요청을 받지 않고 도움을 줘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육신의 죽음 후에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베푼 대로 너희에게 다시 베풀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을 이 땅의 주인으로 느끼고 이 땅의 재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과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고 소유물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전적으로 벌거벗은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을 가난함을 쓰라리게 느끼게 될 나라에 들어 가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뒤에 둬야 하고 그가 영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자신을 길가는 자로 느끼지 않고 이 땅의 지속적인 주인으로 느꼈고 그는 자신의 진정한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는 또한 극심하게 부족한 상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B.D. No. **6789**
1957 년 3 월 23 일

비록 너희가 아직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 있고 죽음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 생명에 도달해야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힘이 죽은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힘과 접촉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런 접촉을 허용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너희와 접촉하기 때문이다. 죽음의 상태에서도 너희의 의지는 정함을 받지 않고 이미 자신을 의식하는 단계에 도달한 존재인 사람과 이 땅의 과정을 거친 후에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저세상에 들어갔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졌고 그러므로 그의 거처가 하나님의 대적자의 어두운 영역인 존재도 그의 의지에 정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존재가 아직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아직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의식하는 동안에는 그가 자신의 죽은 상태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힘이 자신에게 도달하게 하면, 그는 다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자유하고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에 저항을 포기하지 않을 큰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는 더 깊숙이 타락하고 그의 영적인 입자가 굳어지고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잃게 되고 창조물 안으로 새롭게 파문을 받게 된다. 이런 새로운 파문을 피하게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존재를 새로운 파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런 어두운 혼들에게 계속하여 역사한다.

영의 나라에서 이전에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큰 규모로 구속역사가 진행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를 구원하려고 시도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심장을 가진 빛의 존재가 구원의 역사를 수행하고 이런 역사는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빛의 사자들이 어두움의 존재들에게 항상 또 다시 다가간다. 그러나 빛의 존재들은 그들의 빛나는

빛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두움에 맞추어 온유와 인내로 이런 혼들이 자신들을 따라 덜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도록 설득한다. 개별적으로 혼이 항상 또 다시 자신을 환경을 떠나게 된다. 혼이 초기에는 마지 못해 떠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구세주의 사랑은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고 혼들이 빛의 존재들의 인도에 자신을 맡긴다.

이제 이런 혼들 중 한 혼이라도 단지 구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면, 영의 나라에서 한 돕는 존재가 다시 나타나 이런 존재들이 더 많아지고 그가 절대로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열심을 가지고 이제 혼에 대한 구속역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는 이제 모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불행한 혼을 올바르게 대하고 그들을 더 빠르게 설득할 수 있게 된다. 구원하는 일은 이제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한 지식을 주는 일이고 그들이 구원주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해주는 일이고 그들에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행복의 상태로 인도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 분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소개해주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종말 전에 어두움으로부터 혼을 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을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해 질문하는 생각이 혼에게 떠오르면, 이런 혼 앞에 처음에는 번쩍임처럼 십자가가 번쩍이고 계속하여 항상 더 밝아지고 이로써 그들의 생각이 세상의 구세주와 구원주에게 더 오래 머물게 되면, 혼이 최종적으로 십자기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모든 일이 이미 힘을 받게 한다. 그러나 힘을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혼의 자세에 맞추게 된다.

그러나 단지 생명을 갈망하는 혼은 피할 수 없게 생명에 도달하게 된다. 어두움 속에서 끝없는 고통의 상태가 지나면, 혼의 생명을 향한 갈망이 점점 더 커지고 도움을 주기를 원한 혼들이 다른 혼들에게 자신들을 따르도록 요구하면, 항상 더 많은 혼들이 어두움을 벗어난다. 혼들의 인도자는 항상 혼들을 혼들이 약간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혼들은 이런 빛이 주는 행복을 느끼게 되고 이로써 대부분의 혼들이 더 이상 빛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 비록 혼들의 상태가 아직 아주 부족하고 불쌍히 여길만 할지라도 혼들은 가장 깊은 심연에서 자신을 해방시켰고 이런 일은 또한 확실한 성장을 의미한다. 그러면 혼들이 이제 주저하지 않고 수고하며 가장 적은 힘을 공급을 잘 활용하고 그들 편에서 도움을 줄 준비가 되고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새로운 파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끝없이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된다.

아멘

혼의 수면. 잘못 된 가르침.

B.D. No. **6541**
1956 년 5 월 6 일

이 땅을 떠난 혼이 심판이 날이 임할 때까지 영원한 잠을 잔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 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혼의 성장 과정에 대해 전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런 생각은 더 나아가 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죽음 후에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왜냐면 영원한 기간 동안 죽음의 잠을 잔다는 것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잘못 된 생각이 이 땅을 떠난 혼들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왜냐면 이런 혼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혼들이 아주 필요할 수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잘못 된 가르침을 받아 아직 이런 오류를 복음처럼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가르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막기 원하는 대적자의 역사이다. 왜냐면 이런 기도가 대적자가 묶어 두려고 시도하는 혼들을 자유롭게 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가 이런 잘못 된 가르침을 대항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선명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오류를 수정해주는 사람들을 믿기를 원하지 않으면, 단지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설명해주기를 구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은 가르칠 수 없고 오류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이런 혼들은 기도를 통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큰 위험 가운데 있고 이 땅에 사람들도 영의 나라로부터 더 나은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이 빛의 세계와 이 땅에 사람과의 연결을 믿지 않고 생각으로 이런 지식을 가진 세력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단지 인간으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유효하다.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혼이 영원히 잠을 잔다는 그들의 생각은 영적인 존재들이 구속을 받는 과정에 관한 어떠한 지식도 없고 사랑과 지혜와 전능한 내 성품과 예수의 구속사역에 관해 어떠한 지식도 없다는 것을 단지 증명한다.

그들의 지식은 아주 제한되어 있고 가장 적게라도 진리에 합당하지 않다. 그들에게 진리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들은 진리를 거부한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깨어난 영이 이런 성경의 구절을 찾게 하지 않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면, 내 말씀도 활용하는 내 대적자가 찾게 한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이 역사하고 사람이 설명을 받기 원해 나 자신에게 영을 통한 깨달음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 곳에서 내 대적자는 단지 성공한다.

문자는 죽이고 영이 비로소 생명력이 있게 한다. 문자가 그의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해주도록 자신을 나에게 드리지 않는 사람이 진실로 죽음으로 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도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전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해 가장 큰 오류를 사람들이 영접할 만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혼이 죽음의 잠을 잔다는 가르침은 진실로 문제가 있는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은 저세상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혼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이런 혼들은 살아 있지만 아주 연약해서 사랑의 기도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힘에 대해 감사하는 혼들이다.

사람들은 이런 혼들을 자주 기도하며 돌봐야 한다. 이로써 혼들이 힘을 얻고 위로 성장하게 하고 이제 그들 편에서 이 땅에서 이런 잘못 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신들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 생각을 통해 역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땅에서 행한 사랑의 삶이 혼에게 곧 밝은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럴지라도 혼이 자신이 일할 영역을 받기 전에 혼은 먼저 오류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면 영의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은 순수한 진리를 전하는 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혼은 쉽게 잘못 된 관점이나 오류를 가진 영적인 내용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행복한 혼이다. 그러나 다른 혼들은 가장 큰 위험 가운데 있다. 왜냐면 모든 잘못 된 가르침은 혼에게 해를 입히는 역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잔다는 가르침은 특별히 해롭다. 왜냐면 이 가르침은 실제 죽음과 같은 어두움으로 인도할 수 있고 동시에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믿음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런 가르침이 잘못 된 것인지 밝고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혼이 잠잔다는 가르침의 오류 **(**가톨릭**)**

B.D. No. **8991**
1965 년 6 월 7 일

위로부터 너희에게 전해진 내 말을 위해 너희의 일하려는 의지가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어떤 오류가운데 있었는지 알려주게 했다. 이는 혼이 잠을 잔다는 가르침에 관한 것인데 너희가 영의 나라에 들어 갈 때 너희에게 혼과 혼의 상태에 대해 전적으로 잘못 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성경 어느 곳에도 혼이 죽을 수 없음을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 한 문장으로 반박할 수 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수면은 죽음과 한 형제이다. 잠자는 자는 살지 않고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밤에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은 아주 불리 하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진실로 모든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 가닥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는 눈먼 봉사의 상태로 이 땅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았다면, 너희는 저세상에서 아주 작은 빛을 받는다.

너희가 이런 잘못 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전까지 너희는 너희가 죽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왜냐면 너희가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계속 살고 있다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는 다른 곳에 처하게 된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잠

자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식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 비록 너희가 계속 산다 할지라도 축복된 상태가 아니라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 동안 지지했던 가르침에 상응하게 혼돈 된 생각의 상태 가운데 산다.

나에 의해서 창조 된 모든 것은 영원에 영원까지 존재한다. 그러나 죽음의 상태로 저세상으로 갈 수 있다. 잘못 된 가르침을 전파한 너희 모두가 이 죽음의 상태를 선택한 것이다. 너희가 영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너희의 운명이 되야 할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이런 잘못 된 가르침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날 때 너희의 생명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덤에서 자고 있는 모두가 깨어나게 되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런 가르침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너희의 운명이 될 것이다. 저세상에서 너희 존재는 행함이 없는 잠자는 상태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너희가 이미 벗어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상태가 될 것이다. 잘못 된 가르침을 옹호하는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어떤 악한 영에 빠졌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갑작스럽게 실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깨달으려고 하면, 너희는 아주 큰 사랑을 해야만 한다.

너희가 이 땅에 너희가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돕기 위한 중보 기도자를 두고 왔다면,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깨달음이 번개같이 임하게 되는 것은 항상 너희의 사랑의 정도가 결정적이다.

그러나 너희가 혼이 불멸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영의 나라에서 전달받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때문에 너희는 불리한다. 왜냐면 영계에 들어간 혼들이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지식을 얻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막으려는 목표를 가진 사탄적인 것으로 잘못 된 가르침을 거절하였을 것이고 너희가 언젠가는 한번 도달해야 할 올바른 삶을 살려고 했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심판의 날**....** 저 세상에서 선한자와 악한 자의 운명**....**

B.D. No. **0634**
1938 년 10 월 22 일

너희는 마지막 날에 낙원의 문에 서서 들어가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산자와 죽은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여 타락한 사람들은 하늘의 낙원에 합당하지 않게 된 죽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영접을 받지 못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 땅의 주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은 듣지 않고 사라지게 했고, 그들 자신의 불신앙에 더하여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고, 이 일에 성공하면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신에 빠지게 하는 죄를 더했다. 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혼을 심연으로 밀어 넣는 일은 말할 수 없게 슬프고 사악하지만 그러나 이웃사람들의 각각의 혼이 멸망을 받는 일에 기여한 죄를 범하는 일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혼은 이미 여기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세상에 하나님의 복수자의 노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았고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한 사람들은 영광을 기뻐할 것이다. 저 세상에서 그들에게 밝은 빛이 비출 것이고, 불멸의 기쁨이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그들에게 하늘의 모든 행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주님 안에서 살게 될 의로운 모두 사람에게 영원 가운데 의로운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주님을 그들의 창조주 아버지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두는 주님 근처에서 쫓겨날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거리가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빛이 그들에게서 거두어 지고, 가장 깊은 어두움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부적절 함의 정도가 그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러운 회개의 상태를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묶고 있는 냉혹한 힘에 반항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한 영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을 통해 이 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을 시작한다.

그러한 시작은 말할 수 없게 오래 걸리고, 모든 종류의 저항이 사랑의 영의 존재에 대항한다. 누구든지 인정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극심한 고통을 겪을 지라도 서서히 높은 곳을 향해 간다. 그러나 증오와 악이 모든 의지로 종종 영원한 어둠에서 빛으로 이어지는 길을 막는다. 그러면 그의 상태는 동시에 가장 크게 불행한 상태이다. 그런 혼들은 그들에게 향하는 자비가 받아드릴 때까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항상 그들의 욕망의 불을 겪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이 영원에 걸쳐 계속 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영원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친다. 그들은 모든 존재의 원래 시작인 영원한 신성과 연합이 된다.

아멘

심판의 날. 저세상의 문을 닫히는 일.

B.D. No. **4432**
1948 년 9 월 13 일

너희가 심판의 날을 체험하게 될지는 영원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면 심판의 날에 산 자와 죽은 자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단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정죄 받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혼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혼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단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말의 날에 저세상 나라의 문이 닫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단지 새 땅으로 옮겨진 살아 있는, 즉 육체적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과 이 땅이 삼킨, 즉 파괴의 역사에서 그들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의 혼이 가장 굳은 물질 안으로 다시 육신을 입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영적인 존재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마지막 날이 이 땅에 임한다. 이 날에 심판이 있게 되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모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이 날은 이번 구원 시대가 시작이 된 이래로 선견자와 선지자에게 예고한 날이고, 믿지 않아서 올바른 지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의심한다. 이 날은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가 이뤄지는 날이다. 이 날에는 나에게 속한 사람 외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날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환난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영광 가운데 나를 보고 이 땅에서 휴거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날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날이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들이 위험에 처할 때 나를 부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확실한 죽음을 자신의 눈 앞에 보고, 그들이 이제 끝이 없는 오랫동안 내 근처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이 내가 다스리고, 단지 나의 본래의 성품을 덧입은, 즉 사랑이 된 혼을 받아드릴 수 있는 나의 나라에 들어 갈 권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의 모든 끔찍한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 왜냐면 내가 마지막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깊은 어두움 속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들이 영원한 시간 동안 나로부터 추방을 받기 전에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나에게 내밀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를 잘 활용하는 모든 사람은 아직 나에게 다가올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측량할 수 없게 제공된다.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도 내 은혜를 활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의 자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결산의 날이 될 것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이 임할 것이다. 나의 대적자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죽음과 멸망이 임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어두움 속으로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들의 죄에 대해 속죄해야 만하기 때문이다.

아멘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죄짐.

B.D. No. **4888**
1950 년 5 월 1 일

마지막 날에 죄가 드러날 것이다. 죽은 사람은도 또한 그들이 행한 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죽은 혼들이 이 땅의 삶에서 행한 모든 악한 역사와 모든 악한

생각과 의지가 마치 불로 지져 기록한 것처럼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혼은 자신의 완고함을 깨닫게 되고, 또한 자신이 빛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왜냐면 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요구에 순종했을 때 혼이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1950 년 5 월 3 일)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고, 어떤 것도 숨겨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선과 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하고 생각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의 처신이 악했던 사람에게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해결 받지 못한 동안에는, 즉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고 가,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땅에서 이미 용서를 받지 못한 동안에는 모든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적은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을 진실로 아주 희귀하게 찾아볼 수 있다. 왜냐면 믿음이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되지 못한 동안에는, 단순한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고,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영적인 위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세상의 구세주로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단지 공허한 말을 한다. 자신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가장 깊은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고 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왜냐면 자신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가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일을 막는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에서 많은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을 무리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가 그들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면, 다시 말해 한때 일어난 어떤 일도 비밀로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혼이 그들의 죄를 깨달아야만 하게 되면, 사람들의 죄짐은 아주 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즉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는 그들이 끝없이 긴 시간이 지날지라도 저세상의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면 그들 안에 사랑이 없고, 저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지 사랑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또한 저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가 그들에게 내려갈 때, 구세주의 구원하는 손을 잡는다.

사랑이 없이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돕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죄가 그들을 끌어내리고 사슬로 묶는 것처럼 깊은 곳에 단단히 묶어두기 때문이다. 단지 한 분이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고,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로 눈이 먼 가운데 이런 한 분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영들을 구별할 것이다. 그럴지

라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손이 죄인에게 향할 것이고, 누구든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자신을 끌어 올리게 하는 사람은 새롭게 새 땅의 굳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의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지에 합당하게 마지막 심판 후에 혼들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가까운 종말에 대한 예고. 마지막 심판의 날.

B.D. No. **5159**
1951 년 6 월 26 일

너희 모두는 내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너희 모두는 마지막 때에 너희 주변에 많은 변화를 체험하면서 세상의 재물을 잃는 일과 삶의 한 가운데 갑자기 이웃이 죽는 일을 체험하면서 특별한 자연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내가 종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기 위해 선견자와 선지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해준 옛 예언들과 일치되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분명하게 종말을 예고 받아야 한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도록 자극을 받을 것이다. 너희 자신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너희에게 질문이 주어질 것이고 너희는 세상적인 불안과 영적인 불안에 빠질 것이다. 왜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희를 불안하게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너희 자신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적인 의미에서 질서를 세웠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희를 놀라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적인 것을 대신할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적인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 생각은 "모든 것이 끝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질문이 너희 안에서 떠올라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이 임하게 한다. 왜냐면 너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직 너희 자신을 바꾸기를 진지하게 원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다.

종말 전에 너희에게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비록 너희가 이를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기 원하지 않을지라도 은혜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 일은 너희가 갑작스럽게 이 땅을 떠날 경우에 너희가 얼마나 불쌍한 상태에 있는지 생각하게 할 수 있다. 너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라. 눈과 귀를 열라. 아직 너희 안에 불씨만큼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무관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내면으로 들어가 마지막날에 내 앞에서 너희 자신을 증명해야 할 때에 너희 자신이 가진 실제 가치에 대해 침묵하는 가운데 관찰하라. 왜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 모두에게 가까이 있는 그들의 죽음의 날이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아주 빠르게 죽음이 다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아직 많은 일을 앞두고 있다.

너희의 때가 되면, 너희는 육체의 죽음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혼의 죽음을 막을 수 있고 혼에게 실제 진정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에 혼이 한번 영의 생명으로 깨어나면, 혼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이런 진정한 생명은 너희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자주 육체의 죽음을 목격하게 하고 이로써 너희는 너희 주변에서 죽음을 자주 본

다. 너희는 너희에게 가치가 있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일을 보고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일을 본다.

나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게 하여 너희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육체가 사라지고 이 땅에서 더 이상 거하지 않게 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가져야만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너희가 이에 대해 생각하고 너희 안에 음성에 단지 적게라도 귀를 기울이면, 너희는 은혜의 수단을 활용한 것이다. 왜냐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는 너희를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마치 너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여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이를 영접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항상 마지막 때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 아직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을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은 빠르게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종말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얻기 원한다. 그러므로 내 은혜가 중단없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내 은혜를 깨닫고 이런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그에게 종말의 날이 임할지라도 또는 비로소 마지막에 가서 종말의 날이 임할지라도 종말의 날에 멸망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은혜가 그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이다.

아멘

올바른 사랑은 생명이다**.**

B.D. No. **6311**
1955 년 7 월 14 일

질서의 법칙은 사랑이고 축복의 본질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원래의 입자는 사랑이다. 이런 법칙에 복종하는 모든 존재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것이다. 이는 힘을 소유하고 진리의 빛 안에 서는 일을 의미하고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서 최고의 지혜로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고 세계와 그 세계의 거주자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 이 세계는 사랑을 통해 온전해진 사람에게 그가 구원하는 의미로 이제 일하도록 맡겨지는 세계이다.

온전함은 단지 사랑으로 도달할 수 있고 온전하게 된 존재는 원래의 원천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과 힘을 중단 없이 받게 된다. 사람이 이런 온전함에 가까이 도달하지 못한 동안에는 이런 온전한 상태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사하게라도 묘사해줄 수 없다. 그는 아직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랑을 행하도록 강요당하지 않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목표를 추구한다. 왜냐면 그들의 잘못 된 사랑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목표를 추구하는 일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 된 사랑이 빛과 어두움 사이의 장벽이고 행복과 고통 사이의 장벽이고 힘이 충만한 상태와 전적으로 연약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사이의 장벽이다.

사랑이 아직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빛과 힘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대적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 가는 일을 막는다. 즉 사람들이 힘의 원천에 접근할 수 없게 한다. 그릇 된 사랑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사람들을 병들게 만든 유전 된 악이다. 사람들이 한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까지는 이런 유전 된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이 한 분은 사랑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했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요청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어디로 향하게 해야 하는 지를 가르쳤고 이 땅에 살았을 때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랑을 행하는 모범을 보였다. 그는 사람들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생명은 빛과 힘을 소유하고 최고로 행복한 가운데 역사하고 창조할 수 있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 왜냐면 영원한 생명의 원천에서 이제 사랑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존재에게 끊임없이 빛과 힘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런 힘의 원천이 이제 너희에게 개방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힘의 원천에 도달하기 위해 너희가 스스로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 힘의 원천은 이제 계속해서 너희를 먹이고 너희에게 축복된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에 맞서 싸우

라. 이런 사랑이 너희에게 단지 죽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대항해 싸우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그가 설교한 사랑의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힘과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고 그에게 속하고 그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길은 생명의 계곡으로 안전하게 인도받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의 사슬 아래 있는 동안에는 타락한 존재인 너희에게 부족한 힘을 너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이 사슬에서 풀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하나님께 향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 자신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룩한 하나님과 최종적인 연합을 이루도록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들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죽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이제 거할 수 있는 겉형체로 자신을 형성했다.

아멘

죽음과 부활**.** 생명

B.D. No. **6234**
1955 년 4 월 10 일

나는 나를 위해 정해진 길을 갔지만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와 완전히 연합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자원해서 길을 가야만 했다. 나는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갔고 어두움을 통해 빛으로 향하는 길을 갔고 셋째 날 부활을 통해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증명해주었다. 나는 실제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생명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과 단지 연결을 이루는 일이 생명이다.

이 생명은 인간이 생명이라는 말로 쉽게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큰 생명을 말한다. 이 생명은 창조 된 피조물이 목표로 정함받은 대로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다. 완전하게 신적인 존재가 되는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 깊은 곳을 극복해야만 하고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가야야만 한다. 죽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것이고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다. 처음으로 창조 된 수많은 존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존재들은 이제 회복돼야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와야만 하고 영원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던 무덤의 밤을 벗어나 낮의 빛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나는 죽은자 가운데 살아났고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죽게 될지라도 너희가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를 너희 사람들에게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을 증명했고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면, 너희 모두가 죽음의 밤에서 나와 낮의 빛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너희에게 죽음이 더 이상 없게 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너희가 속한 이 땅의 육체를 버려야만 한다. 이 땅의 육체는 단지 자유와 축복된 삶에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적으로는 죽어야만 한다. 너희 혼은 이전에 닫혔던 무덤에서 일어나 빛을 발산하며 너희 혼의 진정한 고향인 나라로 들어가고 혼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활한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가 모든 공포를 없앴기 때문이다. 나는 사흘 만에 부활했고 내 영화 된 육체를 봐야 할 내 제자들의 눈에 띄게 되었다. 이로써 내 제자들이 스스로 믿고 온 세상에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선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기 전의 사람들은 죽음 후에 아직 깊숙한 곳에 머물렀고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죽음 후에 깊은 곳으로 내려가 깊은 곳에서 위로 향하고 내 나라로 향하는 다리를 세웠고 깊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혼들이 나를 뒤따를 수 있었다. 내 사랑이 나를 따르도록 그들을 불렀다. 깊은 곳에 거하는 혼들에게도 부활의 날이 임했고 그들도 내 구속사역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내 사랑의 역사를 통해 죽음이 극복되었고 내가 했던 것처럼 영원한 아버지와 연합을 추구하는 모든 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거듭남은 부활과 같다.

B.D. No. **6593**
1956 년 7 월 12 일

거듭나는 날은 너희에게도 부활의 날이다. 너희의 혼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자유의지로 나와 접촉하고 영의 나라와 접촉하고 나와 내 나라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무덤을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난다. 왜냐면 혼의 새로운 탄생은 내 대적자의 영역을 벗어나 내 영역으로 들어가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혼은 아직 이 땅에 거하지만 그러나 혼은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초기에 어두움 속으로 태어났고 자유의지로 빛에 도달하기 위해 투쟁했다. 그러므로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그들의 겉형체를 벗어나고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들의 생각과 추구하는 일이 이제 영으로 향하면, 그들은 그들이 무덤을 벗어 나게 된다. 그러므로 혼은 또한 죽음의 밤에서 낮의 빛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부활의 날은 이런 변화를 의미한다. 혼이 이 땅에서 이미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이런 변화가 저세상의 나라에서 빛과 힘을 가진 생명을 혼에게 보장 된다. 반면에 혼은 이 땅을 떠난 후에 죽음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는다. 왜냐면 어떤 혼도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이 아주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이 땅을 떠나 혼이 힘이 없이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 죽은 것 같은 상태에 거할지라도 혼은 존재한다. 그러나 혼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아직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했다.

이 땅의 삶에서 영의 나라와 연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은 확실하다. 즉 의지를 드려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자원하여 추구하고 유일하게 이 땅의 존재하는 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과 그가 내면의 변화를 완성하고 자유의지로 나에게 헌신한다면, 그의 혼이 거듭남을 체험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은 확실하다.

그런 혼은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혼이 단지 겉형체인 육체를 벗어나 영화 된 몸으로 저세상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이 첫째로 불멸하

고 혼이 영의 나라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하는 죽음과 어두움과 무기력을 극복했기 때문이고 어떤 살아 있는 존재를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존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혼도 자신의 육체를 벗어나지만 그럴지라도 묶임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혼은 자신의 무덤과 어두움과 깨달음이 없는 상태와 자신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머문다. 그러나 이런 혼들도 만약에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했고 죽음을 이긴 분을 불러 그 분이 그들의 무덤의 돌을 치우기를 구하고 그 분이 그들을 죽음의 밤과 무덤에 가두고 있는 죄짐을 가져가 그들이 낮의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기를 구한다면, 아직 저세상의 나라에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고 그들의 무덤을 벗어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빛에 도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도와줘야만 한다. 사람이 이 땅에서 이미 그의 도움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해주기를 구한다면, 혼은 또한 이 땅에서 이미 자신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사람이 세상적인 죽음을 겪을지라도 혼은 영원히 더 이상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혼은 불멸한다. 다시 말해 혼은 더 이상 소멸되지 않는다. 혼이 아직 자신의 죄의 무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은 무덤의 어두움을 견뎌야만 하고 자신의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를 알게 돼야만 한다. 혼은 자신의 무덤을 벗어날 수 없고 도움에 의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혼이 자신에게 사랑으로 제공되는 도움을 받아들이면, 혼은 유일하게 자신을 부활하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을 기억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무덤을 벗어났고 죽음을 이겼다. 그는 모든 속박을 풀 수 있고 혼이 무덤을 벗어나 이제 더 이상 잃을 수 없는 생명에 도달하도록 자신의 손을 모든 혼에게 제공한다.

아멘

부활. 육체의 부패.

B.D. No. **7262**
1959 년 1 월 21 일

이 땅에 사는 너희 모두의 육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혼은 생명으로 부활하거나 또는 혼이 이 땅에서 생명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죽음 가운데 머물 것이다. 즉 생명을 갈망하는 너희 모두에게 부활은 확실하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혼의 생명을 갈망하지 않고 단지 이 땅의 육신의 삶의 그에게 아마도 갈망할 만한 것으로 보고 그 자신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육신의 삶을 연장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비록 그에게 언젠가 부활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죽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혼의 생명을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 후에 혼이 생명으로 부활함을 확신할 수 있다. 왜냐면 3 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해 죽음을 극복하고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를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단지 믿지만 그러나 아직 이런 믿음을 올바른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지 않는 동안에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이런 가장 큰 기적을 의심하기 때문에 자주 작은 의심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그의 부활을 의심한다. 그러나 내 영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면, 그의 의심은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그에게 이제 자신의 부활에 대한 선명한 증거가 된다.

그는 자신이 죽지 않고 단지 이 세상의 삶을 떠나 영원히 살게 될 저세상의 나라로 들어감을 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이 항상 논쟁하던 문제였다. 왜냐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부활을 통해 육체의 부활을 이끌어 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3 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수가 단지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항상 단지 그들의 영의 눈 앞에 볼 수 있게 나타난 예수의 영적인 육체를 보았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선명하게 알지 못했다. 예수의 육체의 모든 입자들은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영화되었다.

즉 인간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셨을 때 영의 의복을 입었다. 너희 사람들도 너희가 생명으로 부활할 때에 마찬가지로 이런 영의 의복을 입게 될 것이고 물질로 된 육체는 남겨 둘 것이고 육체의 입자들의 성장 과정은 계속 진행 된다. 다시 말해 육체는 부패되고 육체의 입자들은 다시 성장 과정의 초기에 있는 다른 형체들을 살아 있게 한다.

그러므로 입자들은 절대로 더 이상 혼을 감싸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겉형체로 자신을 제공하지 않고 혼과 함께 부활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혼이 내가 인간 예수로써 이 땅에 거할 때 그들에게 약속해 준 생명에 도달하기 위한 추구를 하면, 즉 이 땅에서 내 뜻을 성취시켰다면, 혼은 부활한다.

너희 모두에게 부활은 확실하다. 그러나 부활의 때는 너희 자신이 결정한다. 너희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해야 한다. 육체 안에서 너희가 행한 역사는 실제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에 따라 부활이 이뤄진다.

생명으로 부활하거나 또는 너희가 행한 역사가 너희 자신을 대적하며 굳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맞는 죽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는 다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어두움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고 죽음의 상태이다. 그럴지라도 이는 너희 자신이 이 땅에서 추구했던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너희가 생명을 위한 정함을 받았지만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위해 죽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이런 증거를 주기 위해 내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랑의 삶을 통해 너희 영이 깨어나게 하면, 이를 단지 믿을 수 있다. 깨어난 영이 이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증명해줄 수 없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을 추구하라. 너희는 영원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능력과 빛과 자유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생명으로 부활

B.D. No. **8794**
1964 년 3 월 30 일

너희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단지 이 땅의 육신만을 벗어나게 되고 혼은 영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나는 너희에게 이에 대한 증거를 주었다. 나는

나를 통해 이 과정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줬다. 왜냐면 전 세상이 내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이 땅에서 자신의 혼의 성장을 이룩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필요 없음을 사람들의 영화되어 이 땅을 떠난 후에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생명으로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혼은 죽음에 빠져 있다. 왜냐면 혼이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동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혼은 묶여 있고 전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구속받지 못한 혼들이 거하는 곳은 진실로 죽음의 상태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구매했다. 혼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혼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혼을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혼은 자유 가운데 저세상으로 들어 간다. 혼은 자신의 무덤에서 일어나 이전의 묶여진 상태와 전적으로 다른 빛의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3 일째 되는 날 내 부활을 통해 사람들에게 증거를 준다. 왜냐면 사후의 계속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의미하게 미지근하게 그들의 이 땅의 삶을 살았고 혼이 빛 가운데 부활하는 것을 보장해주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안 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육체의 부활을 통해 육체가 죽음의 족쇄를 풀어버리는 것을 통해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 나에게 속한 자에게 나 자신을 다시 나타내 보이는 것을 통해 내가 3 일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내 예언의 성취를 증명해 주었다. 너의 모든 인간들은 너희가 단지 이 땅만을 위해 창조 된 것이 아니고 너희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비로소 시작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성품을 바꿔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화시켜야 한다. 혼뿐만 아니라 너희 육체도 죽음 후의 무덤으로부터 다시 나올 수 있게 이로써 진정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증명해 주었다.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사람들의 무지와 영적인 눈이 먼 상태는 아주 커서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생각에 합당하게 그들은 단지 순수하게 세상만을 향한 생각으로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혼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록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믿을만 한 것으로 영접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내 육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다.

내가 그들에게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나타내 보인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졌고 나는 그들에게 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후에 계속 산다는 것을 믿을 만하게 만들어 주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 제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무덤으로부터 내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파송했다.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책임감을 강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죽음 후의 부활을 추구해야 한다. 그들이 나를 믿고 내가 죄악 된 인류를 위해 완성한 내 구속사역을 믿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이 내가 그를 한때 영원 가운데 깨어나게 할 것이라는 나를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의 부활을 말을 해야 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에

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리라.“ 비록 그의 육체가 죽을 지라도 진정한 자기인 그의 혼은 죽을 수 없다. 혼은 단지 거하는 장소를 바꾸어서 저세상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저세상은 자신의 이 땅의 삶에 합당하게 조성되어 있다.

나 자신이 혼들을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으면, 너희는 축복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나를 믿은 것처럼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찾았고 그들의 죄를 내 십자가 아래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혼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어렵지 않게 그가 살게 될 저세상으로 가게 된다. 그는 이 생명을 더 이상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나라가 아니다.

B.D. No. **6397**
1955 년 11 월 10 일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도달하려고 수고하는 것은 내 나라에서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기쁨과 축복과 저세상의 기쁨과 축복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두 가지는 그들의 요구가 서로 반대되고 그들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도 반대가 된다. 그러나 나 자신이 거하는 영의 나라가 너희에게 단지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을 줄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은 항상 너희의 이 땅의 기간이 단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적게 모았을지라도 모은 것을 놓고 가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히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깨달음 가운데 너희 육신의 죽음 후에 가치를 잃지 않는 부를 위해 애쓰는 일이 진실로 너희에게 조언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이 말을 내 입을 통해 듣는다. 너희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긴급하게 심장 안에서 세상적인 추구를 뒤로하고 대신에 쇠하지 않는 영적인 재물을 얻으라는 말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너희에게는 단지 세상적으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에 합당하게 또한 너희의 깨달음의 정도가 정해지고 너희가 너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내 대적자가 그의 나라인 세상의 유혹을 통해 너희에게 역사할 수 있고 너희가 세상 재물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깨달음의 정도는 항상 낮아질 것이고 낮은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다.

두 주인 사이에 타협은 없고 너희는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결정에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다. 너희 자신이 너희의 결정을 통해 육신의 죽음 후의 너희 운명을 정한다. 너희는 모든 자유함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영의 나라가 실제 너희에게 모든 영광을 가진 절대적인 진리라는 보장을 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에 대한 증거를 통해 영의 나라를 위한 결정을 하도록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땅의 세상은 너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나라를 모든 감각으로 추구한다.

그러나 너희 육신의 죽음은 확실하고 너희는 육신의 죽음을 예상해야만 한다. 너희는 내적으로 생각해보는 일을 통해 너희 혼이 존재하는 일을 마칠 수 없다는 확신에 도달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창조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런 창조의 작품의 특징을 통해 단지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불쌍하게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목적을 섬겨야만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삶의 목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실제적인 존재하는 목적을 대한 설명을 구하고 그는 그의 의지와 그의 진리를 향한 자세에 합당하게 설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의 나라로부터 그에게 이런 설명이 절 대로 주어지지 않고 이런 설명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은 나라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이런 설명은 모든 사람의 목표가 내가 영

원으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증명해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그가 생각할지 진리를 추구할지 또는 이 세상의 제물로 만족할지를 정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내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한번 이 말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내 나라로부터 그를 내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마중 나가는 길인 이 나라를 향한 길로 발걸음을 이미 옮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뒤에 둬야만 하고 자유의지로 내 대적자의 나라와 결별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항상 내 나라로 인도하는 문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스스로 또한 한때 영원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정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아멘

죽음 후의 혼의 상태. 빛의 상태와 황혼의 상태와 어두움의 상태

B.D. No. **5146**
1951 년 6 월 8 일

어떤 일도 숨겨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든 일이 공개가 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에게 마지막 날이 다가와 너희의 혼이 너희의 몸을 떠나 저 세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영원한 재판관이 영원 가운데 너희의 운명을 정하고, 모든 혼에게 혼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진실로 공의에 따라 판단한다. 사랑을 행했고, 그들의 성정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빛으로 둘러싸여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진리를 추구하여 하나님을 추구한 것을 알 수 있게 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하늘의 아버지와 올바른 자녀의 관계에 있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접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나 사랑이 전혀 없는 혼을 어떤 어두움이 감싸고 있는가! 이런 혼들도 또한 알아볼 수 있다. 왜냐면 이런 혼들은 암담하고 빛이 없고 가장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두움은 그들의 사랑 없는 삶을 보여주고, 그들의 불신과 그들이 사탄에 속한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심판하기 원하는 분을 두려워하고, 그들과 그들 주변이 항상 더 어두워지고, 아주 형편없고 매력이 없는 지역이 그들을 받아드리고, 그들은 자신을 불행하게 느끼고 그들의 운명에 반항한다. 그러나 그런 운명은 정당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혼이 다시 황혼 가운데 서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극심한 어두움이 그들을 괴롭히지는 않고 그들에게 아직 빛이 부족하다. 그들은 빛을 갈망하고, 비록 때때로 작은 여명의 빛이 비추고 그들이 그들의 위험 가운데 이런 빛을 향해 추구하지만 자신의 주변에서 길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런 혼들은 악한 혼들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분별력이 없었고, 사랑을 행함으로 밝고 빛나는 옷을 입지 못했고, 그들은 생각이 없이 살았고, 악한 일도 하지 않았고, 좋은 일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고, 그들의 혼을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가난하고 어두움을 두려워하고, 이런 어두음을 피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빛을 염려하며 추구하는 가운데 영의 나라에 도착한다. 반면에 비록 어두움이 어두움의 혼에게 고통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혼은 빛을 피한다. 그러나 이런 혼들이 그들의 의지를 바꿀 때까지는 그들의 상태에서 어두운 혼들은 빛을 감당하지 못한다.

모든 혼은 공의와 정의에 따라 받는다. 왜냐면 혼이 자신의 성품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눈 앞에 공개되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영의 나라에서는 실제적인 성품을 숨기는 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땅에서 행한 인간의 모든 행동이 스스로 빛의 상태나 어두움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러므로 모든 혼을 깨달을 수 있고, 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여명 가운데 있는 혼들을 긍휼히 여기라. 왜냐면 너희의 사랑의 기도가 이미 그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너희의 사랑의 기도가 빛의 섬광을 의미하고, 이는 작은 힘을 공급해주는 일이고, 그들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단지 사람의 사랑이나 빛의 존재의 사랑이 그들의 불행한 형편에서 구원한다. 그들은 이런 불행한 형편을 특별하게 심하게 느끼고 개선시키기를 원한다.

어두운 혼들도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두운 혼들은 그들의 고집으로 자주 도움을 거부한다. 그러나 그런 혼을 위한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왜냐면 중보기도가 힘의 흐름과 같고, 힘의 흐름이 혼들에게 흘러가고, 혼이 이를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할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으로 어두움의 나라에서 아직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일이 좋다.

너희는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야 하고, 너희를 떠난 모든 사람을 기억해야 하고, 그들 모두에게 아직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의미하는 이런 힘의 공급에 대해 그들이 깊이 감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보기도를 통해 너희는 너희와 가까운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그들이 영의 무기력함에서 깨어나고 그들이 사랑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인 영의 나라에서, 자원하여 어두움의 나라나 여명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영의 나라에서 많은 일을 뒤늦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돌보는 일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야 한다. 왜냐면 그들에게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들은 혼자서는 너무 의지가 약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얻은 정도로 빛을 단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의 심장으로 돕기 원하는 위험에 처한 그들을 생각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빛을 줄 수 있다.

아멘

육체의 일은 드러나게 된다. 저세상.

B.D. No. **5670**
1953 년 5 월 7 일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역사는 저 세상의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일은 육체가 한 일이고, 이 일을 하게 한 원동력에 따라 선하거나 악할 수 있다. 왜냐면 인간은 자신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상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몸의 갈망은 대부분 영이 추구하는 일과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은 사랑을 행하도록 이끌

고, 그러므로 사람이 육신 안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일하면, 그는 사랑을 행하고, 그는 이런 일 후에 언젠가 보상을 받게 된다. 반면에 육체의 욕망은 항상 자기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은 마찬가지로 저세상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보상은 단지 축복을 의미하지 않는 형태이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 이기심으로만 역사하고 일한 사람들은 이미 보수를 받은 것이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스스로 이 땅의 운명을 만들었고, 저세상에서 어떤 임금도 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랑이 그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서 부와 행복 속에서 살 수 있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 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게 어떤 선한 일도 뒤따르지 않고, 그는 가난하고 비참하게 저세상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러면 육체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의 역사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왜냐면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힘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불쌍한 상태로 저세상에 도착하면, 그가 이 땅에서 놓친 일을 보충할 힘이 없게 되고, 그러면 그는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 도움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도움도 또한 이 땅에서처럼 그의 의지를 전제로 한다. 한 혼이 이 땅에서 가졌던 의지가 저세상에서 달라지는 일은 희귀한 일이다. 그가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단지 그의 의지였다. 왜냐면 자기 사랑이 너무 강했고, 자신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일한대로 영의 나라의 너희의 상급이 정해진다. 비록 너희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하지 않은 일은 너희의 잘못으로 간주될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을 위해 역사하고 일하라. 이 땅의 삶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말고, 육체의 죽음 후에 혼의 운명을 생각하고, 이 생명을 위해 일하라.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땅을 떠나고, 너희의 역사에 따라 심판을 받은 날에 단지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라. 왜냐면 너희가 단지 사랑의 역사에 대해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저 세상의 삶은 지속적으로 규칙적인 일을 하는 삶이고, 쉬는 상태가 아니다.

B.D. No. **1623**
1940 년 9 월 20 일

이 땅의 삶은 영원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다. 항상 죽음 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로써 삶을 의식적으로 사는 방식으로 이 시간을 활용한다면, 사람은 그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이 성장 정도가 그가 이제 성공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영원 가운데서 사는 삶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이 삶은 쉬는 상태가 아니고, 이 삶이 항상 행하는 일로 채워져 있다면,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된다.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는 저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에 습관이 된 삶은 저 세상의 실제적인 과제를 위해 좋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어떤 시간도 활용하지 않고,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이 땅의 삶이 그에게 요

청하는 모든 요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를 자극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그에게 주어질지는 항상 단지 그의 의지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그에게 일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단지 행복한 상태는 그의 의지가 그가 행하게 하는 일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저 세상에서 하는 일은 받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영접하고, 이를 전해주는 일이다. 다시 말해 지식이 부족한 혼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 땅에서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이미 연습한 사람이 저 세상에서 일하게 될 영역은 아주 클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이 그로 하여금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그가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베풀도록 재촉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는 빛을 전파하기 위해 돕기를 원할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일할 것이다.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랑에 근거를 둔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절대로 기쁨을 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삶은 언젠가 그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는 규칙적인 일을 위해 자신이 복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규칙적인 일의 본질은 존재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의미한다.

아멘

영원 가운데 사는 삶. 연결. 다시 만나는 일.

B.D. No. **1772**
1941 년 1 월 10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마친 혼이 머무르게 되는 환경은 말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환경이다. 이 땅의 계곡에 비하면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은 특별하게 아름다운 지역이다. 비록 이 지역이 혼을 비할 데 없게 행복하게 하지만, 이 땅의 영역을 연상시키는 곳이기도 하다. 이 땅에서 혼에게 특별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현재의 환경에서 분명하게 존재한다. 단지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완벽하게 존재한다.

이 땅의 삶이 혼에게 구원을 가져왔다면, 저세상에서도 이 땅에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땅의 삶이 영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혼은 영의 환경 속에 거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의 행복한 상태는 이 땅에서 갈망했던 기쁨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더 많이 성장한 혼들은 더 이상 그런 체류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혼들은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혼들의 현재의 환경은 빛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땅의 자녀들은 빛의 나라를 적게 이해한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자녀들에게 빛의 나라를 분명하게 해줄 수 없다.

세상의 창조물에는 전혀 없는 마법처럼 빛이 충만한, 상상할 수 없는 창조물들이 있다. 혼은 빛의 존재들에 의해 진정으로 돌봄을 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고향으로 인도를 받는다. 새로운 고향의 주변에 모든 빛나는 빛이 있고, 영의 눈이 아주 크게 아름다운, 지금까지 가졌던 느낌에 알맞게, 가장 특이한 형상을 본다. 이로써 혼은 행복하게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혼이 가장 크게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은 결코 혼자서 행복을 누리지 않게 될 것이고, 항상 같은 느낌, 같은 영적 성숙함을 가지고,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들이 혼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많은 혼들의 감각의 영적인 일치가 혼을 최고로 매료시킨다. 영적으로 같은 수준에 있는 혼들은 긴밀하게 뭉쳐서, 불화나 어떤 영적인 갈등이 없이 다시 조화로운 전체를 이룬다.

그러나 그런 혼이 이전에 죽은 많은 친척들을 다시 보게 되는 일은 드물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영적 노력이 그들 모두에게 내재된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또한 그런 혼들의 환경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풍부한 빛을 가진 정도에 따라 그들은 또한 이 땅의 근처에, 즉 그들과 영적으로 연관된 혼들 가까이에 머문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혼들 주위에는 이 땅의 창조물들이 있다. 그러나 단지 이 땅과 이 땅의 재물을 향한 갈망을 가진 혼들 만이 이 땅과 이 땅의 재물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영적인 재회를 묘사하는 것을 항상 잘못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단지 그런 영역이 혼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은 또한 아주 세상적인 일이고, 아주 인간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일을 사람들이 아주 잘 이해하게 만들 수 없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조화로운 영역의 거주자들은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일을 좋아하지 않고, 또한 그들의 친척들에게 단지 희귀하게 다가간다. 왜냐하면 친척들의 근처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어서,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떠나, 자신들의 진정한 고향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진정한 고향은 그들에게 아주 많은 영광스러운 것들을 제공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들과 연합하여 항상 빛나는 빛을 전파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순수하게 영적인 영역에 들어 갈 수 있게 되려고 하기 보다, 아직 아주 많이 세상에 관심을 가진 이 땅의 자녀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사후에 영원 가운데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영의 눈으로 보는 일을 통해 단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땅에서 가졌던 동일한 관계가 저세상에 만들어지는 일이 단지 희귀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가장 드물게 같은 영적인 자세와, 같은 영적 성숙과 하나님을 향한 같은 부지런한 노력이 이 땅에서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원 가운데 단지 같은 영적인 성숙만이 존재들을 연합하게 만들 것이다. 이 땅과 저세상에 거하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을 위한 사랑을 행함으로 형언할 수 없게 행복하기 위해, 그곳에 거하는 인간의 혼들은 세상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혼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B.D. No. **5024**
1950 년 12 월 20 일

살려는 의지는 죽음에 대해 확실한 승리를 의미한다. 너희가 세상적으로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만약에 사람 안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의지가 강하면, 이런 육체의 죽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비록 내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지라도, 이런 생명에 대한 의지를 내가 좋게 여긴다.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지, 단지 육체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불려가는 것에 대한 전혀 권세가 없고, 이에 대항할 수 없음을 곧 느낄 것이다. 살려는 의지가 이런 죽음에 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은 혼의 올바른 삶을 갈망해야만 하고, 사람의 의지가 이런 삶을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하여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에게 영원한 죽음은 없고, 그는 빛과 능력 가운데 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진실로 죽음을 극복한 것이고 혼이 그의 육체를 떠나는 일은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는 일이고, 육체의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사모하고, 언젠가 이런 삶을 살수 있도록 단지 이런 삶만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죽음이 오기를 바라고, 영원가운데 올바른 삶을 위해 이 땅의 삶을 드릴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나치게 그들의 육체적인 삶에 연연해하고,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세상의 삶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을 잃고, 그의 운명은 죽음이 된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삶을 사랑한 혼이 피할 수 없게 나락으로 떨어질 영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런 죽음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 왜냐면 그는 자신을 잃기 때문이다. 그는 이 땅의 삶을 헛되이 보냈고, 그의 혼은 빛과 능력이 없이 아무런 권세가 없이 깊은 흑암 안에 거한다. 영적인 죽음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다. 왜냐면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의식하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은 단지 살아있는 사람 만이 이룰 수 있는 소원이다. 왜냐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 있는 존재에게 내재해 있는 힘이 필요하고 반면에 힘이 없는 존재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흘러간 삶의 힘이 영적인 나라에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단지 순수하게 세상 일만을 위해 세상 재물을 모으기 위해 사용될 수 있거나 또는 쇠하지 않는 보물을 주는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영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지가 진지하게 영원한 생명을 향해야 하고 이로써 그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삶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죽음에 대한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인간이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이 죽었지만, 단지 영적인 생명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인 반면에, 죽은 생명은 육체에게만 해당이 되는 생명이고, 비록 혼이 주변의 즐거운 환경 가운데 살지라도, 혼에게 빛이 없고, 결과적으로 힘이 없는, 죽음 상태가 혼의 운명인 상태이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은 지속되지 않는 단지 것보기의 삶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깨달음이 없고, 그러므로 것보기의 삶을 실제적인 삶인 영원 가운데 사는 영의 삶보다 앞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너희는 영적인 존재이고, 물질의 겉형체로 둘러싸여 있고, 사라지는 겉형체를 벗으면, 혼이 어떤 상태로 육체를 떠나는 지와 관계없이 너희 안의 영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된다. 혼은 겉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지만, 모든 혼이 자유롭게 원하고 창조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 원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일이 혼의 축복이고, 그들이 원래 정함을 받았지만 잃게 된 상태이다. 그러나 원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의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땅에서 "생명"은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장애가 없이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면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장애가 동반된 이 땅의 삶은 충분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람이 아직 자신의 이 땅의 과제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하는 대신에 세상 욕망을 성취시킴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 그의 혼의 성장을 위해 그에게 주어진 매일을 헛되이 보내면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또는 의식적으로 일하지 않는 게으름을 벗어나도록 돕는다. 반면에 혼은 영의 나라에서 모든 마취시키는 수단을 사용할 수 없고, 자신의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짓눌리는 상태로 느껴야만 하고, 혼에게 고통이 돼야만 한다. 이로써 혼이 이런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게 한다.

혼의 무기력이 혼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바꾸는 일을 막는다. 혼은 모든 면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혼과 가까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위험에 빠진 혼에게 도움이 주어질 때까지 굶주려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이 그런 기도를 영원으로 보내는 곳에서 혼에게 번개와 같이 깨달음의 순간이 임하기 때문이다. 혼이 이런 순간을 활용하면, 곧 혼 주변의 빛이 더 강해지고, 빛이 없는 끔찍한 고통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생명을 향한 갈망이 이제 혼 안에서 깨어나, 혼이 일을 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나 저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일은 사랑을 행하는 일이다. 이는 혼이 이 땅에서 단지 혼에게 비로소 올바른 생명을 주는 사랑의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고, 영원하게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적인 삶에 단지 유일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은 죽음의 가시가 유지가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죽음 후에 진정으로 죽음의 상태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들이 존재한다는 의식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뿌리 박혀 있고, 자주 그들이 단지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 주변의 혼들의 고통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죽음

의 상태에 거해야만 하게 될 가장 큰 위험에 처한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사랑의 법은 저세상과 같이 이 땅에서 성취시켜야만 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인간은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과 죽음이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그의 죽음을 의미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이 땅의 생명은, 영이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면, 사람이 영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열심히 추구하면, 그가 그의 영이 그에게 하라고 지시한 대로 사랑을 행한다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의 잠과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깨어나는 일의 오류와 진정한 의미.

B.D. No. **3916**
1946 년 10 월 27 일

죽은 사람은 몸이 단지 쉬게 된다. 즉 몸은 모든 이 땅의 활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 땅의 물질은 자신이 다시 전적으로 영적인 입자로 변화되어 날라가게 되기까지,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체의 거주지를 제공하면서, 창조주가 부여한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혼은 몸의 휴식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혼은 실제 활동하지 않고 없이 저세상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안식 상태가 아니라, 가장 크게 무기력한 상태이고,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왜냐면 혼이 이를 의식하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휴식이라고 말할 수 없고, 빛의 영역으로 가는 길을 찾는 온전함에 도달한 혼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게 휴식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면 이런 혼들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그들의 활동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깨어날 때까지 잠을 잔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실제 일어날 것이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권세를 깨닫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덤에서 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저세상의 영역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죽음의 쉼을 생명을 증명하는 활동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런 혼들은 또한 심판의 날에 물질 안으로 새롭게 파문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갈망할 만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쉬는 상태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왜냐면 혼이 저세상에서 퇴보를 한다면, 혼이 스스로 물질을 추구하고, 혼의 의지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깨어나는 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육체는 실제 더 이상 혼을 섬길 필요가 없는 안식을 찾는다. 그러나 물질의 영적인 입자는 계속하여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켜야만 한다. 육신이 죽은 후 혼이 생명의 상태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 혼은 불쌍하게 된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거나 또는 영원한 멸망으로 부활하는 일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지식을 얻고, 가장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일로 이해해야만 하고, 그러나 악한 사람은 심판 받기 위해 깨

어나는 일로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면 선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 후의 삶의 상태를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혼들은 또한 그들의 창조물을 통해 새 땅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들은 오래 전에 이 땅을 떠난 후 영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바꾸고 활동적이 될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들의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고, 죽음의 쉼을 선호했기 때문에 점점 더 무기력 해져, 영적인 존재가 자신을 더 굳어지게 하고, 이 땅의 창조물 안으로 새롭게 파문을 받기에 충분하게 만들었다. 이런 혼들도 동시에 그들의 무덤에서 깨어난다. 왜냐면 그들이 다시 낮의 빛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비록 생각할 수 없게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제공될지라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죽은 모든 존재가 마지막 날에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명을 위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 깨어날 것이다. 이런 죽음의 잠을 가며 쉬지 않고, 이 땅이나 영의 나라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그들의 활동이 세상적인 수고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쉼을 구하고, 자신을 게으른 잠에 빠지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면 그들은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깨어나는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

B.D. No. **5255**
1951 년 11 월 16 일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너희에게 생명을 약속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을 다스리고, 자신이 스스로 영원한 생명이고,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높은 자립적인 존재의 힘에서 나왔고, 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의 사랑이 그가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죽음의 법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인간으로서 다시 죽음에 맞서 싸우게 했고 죽음을 정복했다. 이로써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왜냐면 사탄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 왔기 때문이다. 죽음은 무기력하고 어두운 상태이고,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의 결과이다.

빛과 힘은 생명을 의미하고, 반면에 무기력함과 어두움은 존재가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굳어 있게 한다. 죽음보다 더 강하고 죽음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래 초기에 영의 존재로서 가졌지만 한때 반역한 죄로 인해 잃었던 생명을 다시 준 구세주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이 땅의 사람들은 육의 삶을 마친 후이 이런 경직된 상태가 돼야 할 것이고, 그들은 절망적으로 어두움 속에 빠지고, 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1951 년 11 월 16 일) 사람들은 생명을 잃게 되었다. 즉 사람들은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왜냐면 지혜로운 법에 따라 끊임 없이 활동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일이 생명이고, 그러므로 무한하게 축복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어떤 조건 하에 약속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명을 갈망해야만 하고, 자신을 진정한 생명에, 영의 나라의 삶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한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야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힘을 소유해야만 하고, 힘의 원천과 연결을 이뤄야만 하고, 혼의 죽음에 맞서 싸워 승리해야만 한다. 승리하는 일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왜냐면 그들이 두려워해야만 하는 일은 혼의 죽음이고, 육체의 죽음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인간인 혼이 소멸되지 않고, 완전히 힘이 부족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헤아릴 수 없게 크고 끝이 없는 고통을 받는 영적 죽음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일을 원하지 않고, 너희가 살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이런 생명을 약속했다. 왜냐면 죽음을 이긴 그가 유일하게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는 자유하다. 너희 모두가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고,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또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원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왜냐면 너희의 의지에 반하여 너희를 축복되게 해줘야 하는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은 그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고,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너희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약속과 함께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의 미래가 너희 앞에 놓여 있게 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는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성취시킬 것이고, 그의 신적인 사랑의 가르침대로 살 것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힘을 축적시킬 것이다. 비록 육체의 힘은 줄어들지라도, 너희의 겉형체가 육체의 죽음을 향해 갈지라도, 사랑이 너희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혼이 자유롭게 되고, 모든 힘으로 죽음의 장벽을 벗어나고, 너희에게 죽음을 주기 원했던 자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혼은 자신을 힘을 가장 축복되게 의식하고 이제 끊임없이 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영의 나라가 혼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영의 나라에는 단지 생명 만이 있고,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하고, 새 생명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이 없고,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된 곳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 활동**.** 하나님에게서 나온 힘과 사랑**.**

B.D. No. **5017**
1950 년 12 월 10 일

생명을 깨우는 힘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머문다. 왜냐면 사랑이 유일하게 사랑의 원천이고 또한 힘의 원천과 연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일은 단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사람과 연합하고 이런 연합이 또한 생명을 보장하는 힘을 공급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힘이 전달되는 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일은 증가된 사랑을 행하려는 추진력을 통해 나타날 수 있고, 영적인 추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직접 힘을 받는 일로 느낄 수 있고, 자체가 힘이고 특히 생명이 깨어나게 하는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로 느낄 수 있다.

혼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나 갈망을 통해 영의 영역으로 올라가면, 혼은 살기 시작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혼 안의 영이 역사하고, 역사하는 일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혼이 영적인 삶을 시작하고, 자신이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 선다. 이런 단계에서 혼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살아 있는 것은 항상 일하고, 항상 일하는 일이 이 땅을 마친 후에 영의 나라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영적인 재물로 구성된 부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즉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고, 그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왜냐면 그가 한번 하나님의 힘을 받는 사람이 되면, 그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 그가 영적인 일을 하도록,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하고 끊임없이 위를 추구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결은 항상 인간 자신이 이뤄야만 한다. 이루는 일은 단지 사랑이 이룰 수 있다. 그러면 힘을 받는 일이 보장되고, 사람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 자유의지.

B.D. No. **6108**
1954 년 11 월 14 일

내가 처음부터 설정한 목표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축복 가운데 활동하고 그러므로 빛과 힘을 충분히 소유한 가운데 창조하고 역사하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 목표는 너희가 이런 축복을 얻는 일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스스로 수행해야만 한다. 비록 내 권세가 무한할지라도 내 권세로 너희를 형성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내 곁에 의지가 없는 피조물을 갖는 일이 내 목표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자유하게 온전함에 도달한 자녀들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그러면 내가 자녀들의 축복을 계속하여 높여줄 수 있고 자녀들의 축복으로 나 자신이 기뻐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내 사랑의 자녀가 돼야 한다. 이런 일이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고 내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 의해 생성 된 존재들인 창조 된 모든 존재들이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끝 없이 긴 시간이 아직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단지 내 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일로 머물러야 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항상 너희에게 도움을 주고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너희의 과제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모든 방식으로 너희에게 역사해서 이로써 너희의 의지가 이제 너희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은 항상 단지 내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 내 말씀이 너희에게 내 뜻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선포한다. 내 뜻을 성취시키는 일이 동시에 너희의 이 땅 과제의 성취시키는 일이다.

나는 너희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인 나는 내 말씀을 통해 내 피조물인 너희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 내 음성이 내 자녀들에게 향한다. 내 자녀들은 내 안에서 그들의 아버지를 깨달아야 하고 내 사랑을 느껴야 한다. 이로써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에게 도달해야 한다. 그들이 나에게 사랑을 드리게 하는 일에 도달하면, 그들은 또한 나를 추구하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영원을 위해 얻는다. 왜냐면 그들이 또한 그들을 축복되게 하는 온전함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유의지로 그들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고 그러면 내가 내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도 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나를 피하고 있고 그들은 내 사랑이 그들에게 비춰줄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들은 은혜가 충만한 모든 기회를 물리치고 그들이 원하면, 헤아릴 수 없게 받을 수 있는 곳을 피한다. 이런 사람들은 내 자신과 간격을 크게 만들고 나는 그들의 의지를 존중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내 목표에 확실하게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내 피조물들은 그들 자신에게 고통이

되도록 불행한 시간을 연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의 상태에 있고 그들이 생명을 갈망하게 되면, 그들이 비로소 내 말씀에서 생명력을 얻는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말하게 하면, 그들은 비로소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고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영원에 영원까지 축복되게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B.D. No. **7974**
1961 년 8 월 24 일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생명을 더 이상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히 축복될 것이라는 약속보다 더 아름다운 약속이 있느냐? 왜냐면 생명은 자유 가운데 빛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생명은 내가 너희에게 창조해준 너희의 온전함을 보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의 자유의지가 이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불가능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전에 죽음의 상태 가운데 거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의 자유의지가 이런 죽음의 상태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었고 바꿀 수 있다.

생명은 더 나아가서 너희의 생명에 필요한 능력을 제공하는 나와 너희에게 제한이 없이 흘러 들어가고 영원히 더 이상 제한이 없게 될 능력을 제공하는 나와 계속하여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생명은 내 뜻 안에서 그러나 너희가 전적으로 내 뜻에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뜻 안에서 나와 함께 창조하고 역사하는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온전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형상이 되었고 더 이상 나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고 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말할 수 없이 축복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한때 나로부터 내 능력으로 피조물로 생성되어 나온 존재들의 마지막 목표이다.

존재들은 실제 최고로 온전한 가운데 있었다. 왜냐면 나로부터 어떠한 온전하지 못한 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의지로 그들의 온전함을 버리고 나를 떠나 타락하여 이제 자유의지로 다시 최고의 온전함에 도달하기 위해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라 내 자녀로서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을 가야만 했다.

그는 자신을 자유의지로 스스로 사랑을 통해 자녀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 사랑은 그의 원래의 성분이다. 왜냐면 그는 내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유의지로 이 사랑을 자신 안에서 최고의 불길로 불타오르게 해야만 한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된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 보장 된다.

나는 이런 생명을 너희에게 약속해 주었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이런 축복된 생명을 선물하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언제 도달하든지 간에 이런 높은 사랑의 정도에 도달하게 너희를 지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젠가 생명의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이 생명은 영원히 더 이상 잃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희망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다. 너희는 진실로 버림받을 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는 영원히 죽음의

상태에서 거할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했기 때문이다. 내 말은 진리이다.

단지 너희 스스로 너희가 생명의 도달하는 시간을 정한다. 너희 스스로 죽음을 벗어나는 시간을 너희가 돌아와 나와 다시 연합이 되는 시간을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에 도달하는 시간을 정한다. 그러나 너희는 죽음의 상태를 영원히 연장시킬 수 있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의 자유의지를 새롭게 잘못 사용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을 행하게 자극하는 내 사랑이 충만한 재촉에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1961 년 8 월 24 일) 그러면 너희는 불행한 상태를 연장시킨다. 왜냐면 단지 생명 만이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자유의지가 나로 하여금 너희의 의지와 반대로 너희에게 내가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막는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온전함에 너희 스스로 도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서는 너희는 영원히 단지 내 피조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목표는 자유의지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내 자녀가 되는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빛과 능력이 없는 동안에는 너희는 사랑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자유의지로 행하는 사랑이 너희에게 빛과 능력을 주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는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의 상태에 다시 빠지지 수 없다. 왜냐면 너희 안에 빛이 있고 너희는 이제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이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에 도달하기를 원하면, 너희 안에 사랑이 불타올라야만 한다. 영원한 사랑인 나는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고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단지 생명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절대로 죽음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나야 한다. 이 일을 언젠가 내 끝없는 사랑이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땅의 기간을 올바른 사용하는 일.

B.D. No. **6185**
1955 년 2 월 6 일

이 땅의 삶은 짧지만 그 후의 시간은 끝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이 땅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고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모든 힘을 사용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삶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고 이런 포기를 통해 영적인 재물에 대한 너희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너희 몸은 세상의 재물로부터 유일하게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재물을 영원히 간직하지 못한다. 이런 너희의 몸이 죽은 후 영원 가운데 영적인 재물이 너희의 운명을 정한다.

이 땅의 삶은 영원에 비하면 한 순간과 같다. 너희는 이런 순간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순간을 너희의 혼을 위해서는 다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라. 너희는 실제 너희의 이 땅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너희에게 하루동안 일년동안이라는 감각이 있다. 그러나 끝없는 시간들이 이미 이 땅의 삶보다 앞서 있었고 영원이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나 너희는 단지 이 땅의 시간을 의식한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시간이 너희에게는 모든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죽은 후에 몸에게 없어서는 안 되고 몸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것도 너희에게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먼저 이를 고려하고 너희가 죽은 후에 너희를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을 돌보라.

너희는 이 땅의 삶에서 너희 혼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너희 혼에게 고통과 어두움의 상태를 마련해줄 수 있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너희가 계속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를 믿기를 원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이를 모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능성을 예상하고 예비하라. 이 땅에서 선한 사람을 살라. 너희 심장이 너희가 다시 빼앗길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 너희의 혼을 희생하면서 몸을 생각하지 말라. 먼저 너희 혼을 돌보라. 그러면 육체도 굶주릴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생각이 몸 때문에 혼이 굶주리게 하는 잘못 된 길로 가지 않게 하라. 왜냐면 혼이 너희의 실제 소멸되지 않고 너희가 이 땅에서 혼의 축복을 위해 창조하고 일하면, 언젠가 축복되게 될 너희 자신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세상의 쾌락이 너희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세상의 삶은 빠르게 지나간다. 그러나 너희는 영원 가운데 처하는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이 운명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즉 영원한 생명이나 또는 영적인 죽음이 될 것이다. 너희가 유일하게 영원 가운데 너희의 상태를 택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지가 너희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올바르

게 활용하라. 이로써 너희 혼이 성숙하게 만들라. 그러나 단지 육체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 왜냐면 너희가 단지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은 끝 없이 길기 때문이다.

아멘

영원으로부터 원래의 법인 자유의지의 법. 축복을 받는 일. B.D. No. **5301**
1952 년 1 월 22 일

나는 사람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죄를 사해줄 수 없고,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의지로 온전하지 못한 동안에는 그들을 축복되게 해줄 수 없고, 그들이 영의 죽음을 선호하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단지 내 사랑의 힘으로 창조한 존재의 의지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면 나는 자유의지가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온전한 존재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들의 온전함을 버리고 지식과 힘을 잃게 된 일은 그들의 자유의지의 결과였고, 마찬가지로 나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자유하게 빛과 힘을 얻기 위해 추구하고, 그의 온전함을 올바르게 스스로 원하는 가운데 증명하면서, 그의 온전함을 높일 수 있었다.

자유의지가 위로 향하는 일과 아래로 향하는 일을 허용한다. 존재가 스스로 타락한 일은 존재 자신의 잘못이었고, 존재는 이제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자유의지로 다시 위를 추구해야만 한다. 나는 이런 존재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존재의 자유의지를 빼앗는다면, 내가 원래의 영원의 법칙을 어기고 나 자신에 대항해 행한 것이다.

왜, 내가 내 맘대로 너희 인간이 높은 곳으로 도달하도록 도울 수 없는 지를 이해하느냐? 왜, 너희가 스스로 깊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는 변화를 이뤄야만 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향하게 하고, 이제 의식적으로 나를 추구하도록 내가 왜, 항상 너희의 생각에 단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이해하느냐? 왜, 내 사랑이 너희가 마침내 너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도록 허용받기 위해 끝없이 오랜 기간이 필요했던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너희를 돌보는 지를 이해하느냐?

너희는 진실로 의지와 성품의 변화를 위해 포괄적인 기간을 받았다. 그러나 오랜 기간도 언젠가 끝이 나고, 너희가 이제 이 끝에 서있다. 나는 맘대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를 형성할 수 없고,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하고, 너희가 원해야만 한다. 왜냐면 언제든지 너희를 내 나라로 받아들이는 일이 내 뜻이기 때문이다. 의지가 한때 나를 떠나 너희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간 것처럼, 의지가 나를 갈망하면, 내 뜻은 절대로 너희의 뜻에 대항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영적인 존재가 의지의 변화를 이루기 전에 세상들이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내 사랑은 너희 사람들이 영원히 나를 떠난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너희를 돕기를 원하고, 너희가 아직 너희의 의지를 묶인 상태에서 또는 너희 인간이 나와 하나가 되는 마지막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형체 안에서 영원히 머물러야만 할 필요가 없도록 너희를 돕기를 원한다. 너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성장해야 할 마지막 단계에 있고, 너희가 축복받은 영의 존재로서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형체로부터 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 너

희가 원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의 의지와는 반대로 너희가 축복을 받도록 도울 수 없음을 알라.

너희는 내 아버지의 사랑이 주는 훈계와 경고를 받아드리고, 아직 짧은 시간이 남았음을 깨닫고,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형성하라.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빛과 풍성한 힘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축복된 존재가 되도록 너희를 형성하라. 너희가 정함받은 바를 생각하고,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라. 왜냐면 너희가 남김없이 구원을 받도록,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주어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이 끝나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너무 늦기 전에 이 시간을 활용하라.

아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힘을 활용하라. "누가 사랑 안에 거하는 지는..."

B.D. No. **4629**
1949 년 5 월 4 일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사랑을 가르쳐야만 한다. 사랑이 없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힘이 없는 가운데 머문다. 사랑을 행하는 일이 너희가 힘을 소유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힘은 사람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소유한 삶의 힘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력은 그가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그가 쉽게 자신을 영적인 힘을 소유하게 하고, 이 힘으로 그가 혼의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왜냐면 사람이 단지 이웃사랑을 행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이 이웃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이로써 그가 그의 삶의 힘을 빼앗기는 반면에 그가 사랑을 행함으로 얻은 영적인 힘은 그에게 머물게 되는 그의 죽음 후의 때를 위해 어떤 것을 확보해야 한다. 그는 영의 나라에서 영적인 힘으로 자신의 혼의 완성을 위해 일할 수 있고, 그의 아래에 있는 혼들의 성장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사랑을 행하라는 계명을 지키라. 이 권면은 너희에게 아무리 말해도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너희가 미지근하고 무관심하고 내 계명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이웃 사랑이 나에게 다가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모든 이웃 사랑이 동시에 사랑을 행하는 나 자신을 너희에게 이끈다는 것을 너희가 선명하게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의식적으로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추구를 했을 것이고, 너희의 혼을 위해, 영원을 위해 말할 수 없게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다. 사랑을 행하는 일은 이미 너희 안에서 이웃 사랑을 행할 의지가 깨어나면, 너희에게 제공되는 나의 힘을 사용한 것이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임재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고, 사랑을 행한다면, 나를 향한 갈망과 내가 임재한다는 의식이 이미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역사하도록 이끌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는 일은 이미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 어떤 일도 내 눈앞에 가치가 없는 일이다. 너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너희 심장에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이룬 일로 인해 즐거워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런 일이 영원을 위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너희의 혼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너희는 가난하고 공허하게 영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를 뒤따르는 사랑의 역사가 없으면, 너희는 언젠가는 이로 인해 몹시 후

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할 수 있고,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행복을 누릴 수 없지만, 그의 혼은 소리치며 기뻐할 수 있다. 왜냐면 그의 혼이 나와의 연합을 이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끊임없이 그의 가까이에 있고, 모든 사랑의 역사가 나의 임재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

사랑 없이는 사랑이 비로소 이루게 하는 나와의 연합을 이룰 수 없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자체가 사랑인 나의 원래의 성품을 닮아 간다. 그는 이 땅에서 그리고 저세상에서 힘이 충분한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고, 항상 새로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기 때문이다. 생명력을 활용하고, 사랑을 행하라. 나는 항상 또 다시 이를 권면한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너희를 구원하고, 사랑이 대적자의 사슬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영원한 사랑 자체인 나와의 연합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에서 영적 보물을 모으는 일. 저세상에서 하는 후회.

B.D. No. **4455**
1948 년 10 월 9 일

이 땅에서 영적인 보물을 모으지 않은 사람이, 즉 빈 손으로 저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통해 저세상으로 간 사람이 영의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런 운명으로부터 구해내기를 원한다. 왜냐면 너희가 뒤돌아보고 너희가 사용하지 않은 많은 기회를 깨닫게 될 때, 너희가 가장 쓰라린 후회를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의 나라에서 가난함은 너무 억압적이고 절망적이어서 가난이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의 의지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고통이 충만한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나를 생각하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적 재물을 얻는 일은 아주 쉽다. 이런 갈망이 이미 다양한 형태로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제공되는 일을 보장한다.

너희가 생각을 통해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너희의 생각에서 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너희가 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항상 인도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생각으로 나와 접촉하면, 즉 나에게 도달하려고 시도하면, 너희가 사랑을 행하라는 내적 충동을 느끼게 되는 일이 확실하다. 왜냐면 내가 사랑을 행하라는 권면을 통해 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면 내가 비로소 너희와 완전하게 연결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먼저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하고, 자극해주는 일을 직접 내면의 음성을 통해, 또는 외부로부터 주는 암시와 권면을 통해, 또는 단지 사랑을 설교하는 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 행한다.

너희가 설교를 듣고, 내 안에서 나온 말씀을 따르면, 너희는 너희에게 영원히 머물고, 이 땅이나 저세상에서 너희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영적인 재물을 얻게 된다. 이 재물은 비록 너희가 계속 나눠줄지라도 즉시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런 재물로 축복을 받고 저세상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진실로 가장 갈망할 만한 일이다. 왜냐면 이런 일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영의 나라에서 유일하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고 너희가 아주 행복하게 느끼게 될 활동하는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히 빈 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비록 완전히 절망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의 나라에서 영적인 재물을 단지 어렵게 얻을 수 있다. 왜냐면 저세상에서도 혼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만 이 땅에서와 같이 혼에게 복음을 받아드릴 자유가 있고, 이 땅에서와 같이 단지 받아드리려는 혼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이 의지가 아주 약하게 되어, 힘을 공급받는 도움없이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힘의 공급도 또한 이 힘을 사랑을 행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려는 혼의 의지에 달려있거나 또는 사람이 행하는 사랑의 중보 기도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런 불쌍한 혼들에게 긍휼을 아무리 베풀어도 충분할 수 없다. 왜냐면 혼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저세상의 상태를 축복된 상태로 만드는 영적인 재물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혼들의 고통이 크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난하고 어두운 영으로 저세상의 나라로 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약. 죽음과 생명.

B.D. No. **6528**
1956 년 4 월 21 일

너희는 스스로 생명을 얻어야 하고 인간이 살고 있는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약이 제공돼야 하고 이런 약을 통해 너희 안에 놓여 있는 힘이 자유롭게 되야 한다. 새로운 생명의 흐름이 너희를 통해 흘러야만 하고 이전에 너희 안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굳어졌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해야만 하고 너희는 끝이 없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야만 한다.

너희가 살아나게 해주는 확실한 수단이 있다. 이 수단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이다. 이 말씀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기에 충분한 힘을 발산한다. 왜냐면 높은 곳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발산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하는 존재가 생명이 없는 상태로 머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비추임에 저항하지 않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언제 생명으로 깨어나는 지는 존재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이 땅의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생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인간과 동물과 식물도 생명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생명은 단지 실제적인 생명에 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적인 생명은 영원히 더 이상 끝나지 않는 빛과 힘을 가진 상태로 이해해야만 하고 모든 존재의 목표로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생명은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이런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자원하여 듣고 너희 심장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또한 너희 자신에게서 말씀의 힘의 역사를 느끼게 될 것이고 이로써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생명의 명약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생명을 주는 말씀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죽었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빛과 힘이 없이 경직 된 상태에 빠지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존재에게 고통스럽다. 왜냐면 죽음이라는 개념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존재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왜냐면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존재는 단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가 생명을 포기했고 그가 빛과 힘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즉 활동하기 위한 조건을 잃었고 굳어진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상태를 벗어나야 하고 한때 가졌던 생명을 다시 추구해야 한다. 그는 힘과 빛을 다시 얻어야 하고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영원한 사랑의 빛이 자신 안으로 흐르게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이제 자신을 밝혀야 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 자신이 힘의 저장소가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 자체가 힘이기 때문이다. 이 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죽었던 상태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런 생명을 절대로 잃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직접 듣는 음성이나 또는 영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감정을 통해 감동을 주고 사람 안에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을 주는 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에게 느낌의 형태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생명으로 변화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 불가결하고 존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 죽은 존재가 생명에 도달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나 사랑은 빛이고 힘이고 사랑은 생명이다.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죽음의 상태가 바뀌야만 하고 존재가 활동하도록 자극을 받아야만 하고 활동은 생명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죽은 모든 존재가 다시 생명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는 원래에 빛과 힘을 가진 존재로 창조 되었고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 생성되게 한 어떤 생명이 있는 존재였다. 그가 한때 이런 생명을 소유했고 자유의지로 버렸다. 존재는 이런 생명을 피할 수 없게 되찾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는 영원히 불행과 고통 속에서 머물러야만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일.

B.D. No. **6302**
1955 년 7 월 3 일

모든 사람은 그가 내 말씀을 어떻게 활용했는 지에 대해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내 말씀이 자신에게 역사하게 했는 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가 나 자신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 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가 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나는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젠가 은혜의 선물을 거절한 일을 몹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가 진지하게 옳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진리를 체험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은혜의 선물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럴지라도 편안함과 부주의로 내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아직 나를 저항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내 음성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야만 한다.

나는 사람의 내면에 나에 대한 저항이 없다면, 이런 모든 사람에게 그의 심장에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내 말씀은 그의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고 사람이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그의 심장과 그의 귀를 닫고 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했고 내 말을 영접하는 일의 중요성을 너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나 자신이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 혼을 위한 양식을 주기 때문이다. 너희 혼의 양식으로 유일하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혼을 위한 양식을 무시할 수 없다. 너희는 혼의 양식 없이는 살 수 없다. 너희 혼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과 음료를 너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된다.

너희는 너희 안에서 나를 영접해야만 하고 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는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내 말씀이 제공될 때 너희가 무관심하게 지나치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너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에게 제공 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너희가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해 어떻게 처신했는 지를 깨닫게 되면, 너희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너희가 나 자신이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 혼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제공했지만 너희가 경솔하게 이를 거절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너희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내 말씀이 너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 말씀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왜냐면 움추리고 굶주린 혼이 언젠가 내 앞에 서서 자신의 상태를 통해 이 혼이 이 땅의 삶에서 내 말씀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증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혼의 상태와 다른 방식으로 혼을 도울 수 없다. 왜냐면 혼이 생명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을 혼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혼은 자신의 비참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에게 이제 시급히 필요한 것을 힘들게 얻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혼에게 풍성하게 제공되었고 자신에게 저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마련해주었을 것을 이 땅에서 활용하지 않은 일에 대한 혼의 후회는 크게 될 것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지 소수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혼을 위한 음식과 음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제 이 땅의 육체를 떠나면 영광스러운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이 내 말씀을 무시한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왜냐면 혼은 자유의지로 자신을 형성한 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혼은 잘못 형성된 상태로 저세상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내 말씀이 혼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거듭남. 은혜.

B.D. No. **3266**
1944 년 9 월 23 일

영적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는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한 증거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일으킨다면, 어떤 사람도 영의 어두움 속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고, 이 사랑은 절대로 식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거듭남은 성장한 신호이고, 온전하게 되기 위한 단계이고, 단지 자유의지로 도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듭남은 은혜의 역사이다. 다시 말해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역사하게 했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여,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효과는 영적인 거듭남이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긴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힘을 받기 위해, 자신을 여는 사람이 단지 영이 거듭나는 일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 안의 영이 깨어나는 일은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자신의 영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한다.

사람의 의지가 없이는 영이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혼이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자신을 지배하는 사탄의 강력한 권세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적인 개입이 없이도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영을 해방시킬 수 있다. 왜냐면 그가 그런 점유된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빼앗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은 이미 어느 정도 성숙 해졌고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는 또한 하나님께 향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왜냐면 영이 깨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간주돼야만 하는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의 의지는 끊임없이 활동해야만 하고, 끊임없이 은혜의 공급을 구해야만 하고, 그는 항상이 이런 은혜에 자신을 열고, 이런 은혜를 활용해야만 한다. 왜냐면 영이 깨어나는 일은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이 온전함에 도달하도록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은혜이다. 그러나 사람이 완전히 자유의지로 자신을 열 때에 비로소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자유의지가 은혜를 요청하고, 자유의지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가 다시 영을 깨어나게 하고, 영적인 활동이 다시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한다.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신적인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낮은 성장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무가치함을 간과하고, 사람이 자원하여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 원하면, 그에게 신적인 선물을 준다. 의지는 기도를 통해, 사랑을 행함을 통해 표현된다. 왜냐면 사랑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이고, 사람들에게 더 강렬한 은혜를 주기 때문이다.

(1944 년 9 월 23 일)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역사한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 왜냐면 영이 이제 그를 이끌고 인도하고, 끊임없이 그가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하고, 그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그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이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넘어 질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 질 수 없다. 왜냐면 사람을 지키고 끊임없이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일을 막기 때문이다.

인간은 진실로 그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넘치게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한다. 왜냐면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는 그렇게 받을 권리를 주장할 정도로 선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활용한다면, 그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왜냐면 은혜는 인간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간에게 제공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높은 곳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난도 또한 올바르게 사용하면, 무한한 축복을 주고 혼의 영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은혜이다.

영이 생명으로 깨어난 사람은, 즉 영이 거듭난 사람은 또한 고난을 짊어져야만 한다. 왜냐면 고난이 그를 성장하게 해야 하고, 그를 정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어떤 혼도, 심지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조차도 혼이 이미 그렇게 맑고 순수해서 정화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영이 깨어난 사람들이 더 높게 성장하도록 돕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여겨야만 한다. 왜냐면 이 땅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성숙에 도달하는 일이 영이 거듭난 사람의 목표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가 얻고자 하는 은혜의 분량을, 그가 요구하는 은혜의 분량을, 그가 자신을 개방함으로 받기 원하는 은혜의 분량을 그가 자유롭게 정하게 한다.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를 절대로 전혀 넘어지게 하지 않고, 그의 혼이 쉬지 않고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도울 것이다.

아멘

혼의 거듭남**.**

B.D. No. **3704**
1946 년 3 월 5 일

영의 거듭남은 이 땅의 인간의 목표이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가 죽을 때 혼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나 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혼은 완전히 소멸될 수 없다. 영의 거듭남은 혼에게 생명을 의미하고, 영의 거듭남이 없이 혼의 생명을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 영의 거듭난 사람

은 내면의 충동으로 영의 나라와 접촉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의 혼은 육체적인 생명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고, 혼은 또한 이 땅의 세계에서 혼이 갈망하는 것의 성취를 얻지 못하고, 혼이 실제적으로 속한 나라를 추구한다. 혼의 의지가 진지한 정도에 따라 사람은 짧은 시간 내에 또는 오랜 기간이 걸려 거듭나게 될 것이다.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랑을 행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면 사랑을 행하는 일이 사람의 영을 깨우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혼 안에 잠들어 있는 영의 불씨가 영원부터 아버지의 영과 연결이 되어, 활동하게 되고, 활동이 생명이다. 사람이 자신 안의 영의 불씨에게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활동할 기회를 준다면, 그는 또한 이미 영이 거듭나고, 그는 더 이상 죽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면 한번 깨어난 영이 이제 그를 절대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영은 자신을 둘러싼 겉형체로부터 끊임없이 역사한다. 다시 말해 영은 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사람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이 사랑을 행하도록 이끌고, 이로써 혼이 높이 성장하게 한다.

영의 거듭남은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의지나 말로 이루어질 수 없고, 행동으로 옮긴 의지가 비로소 영이 거듭나게 한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의 역사여야만 한다. 단지 사랑을 통해 사람의 영이 깨어나고, 단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영이 역사하게 한다. 따라서 혼은 단지 사랑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은 영의 거듭남의 결과이다.

그러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또한 영원한 사랑과 끊임 없이 연결된 가운데 산다. 따라서 영원한 아버지의 영이 인간의 영의 불씨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를 영원한 사랑이 자신에게 이끌 것이다. 그러면 혼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단지 생명이 있게 된다. 즉 힘과 빛 가운데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죽음의 사슬이 풀리고, 죽음을 극복하게 된다.

따라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의 혼이 이 땅의 모든 것의 무상함과 영의 나라에 속한 것의 불멸성에 대해 알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혼은 육체가 죽은 후에 혼의 삶을 믿을 뿐만 아니라, 혼은 그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는다. 왜냐면 생명에 깨어난 영이 혼을 가르치고, 혼에게 가장 깊은 확신을 주는 지식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 왜냐면 혼이 자신 안에 영원한 아버지 영의 일부인 깨어난 영을 증거로써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영이 거듭나면, 그는 영적인 관계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 안의 영의 역사가 깨달음의 힘을 증가시키고, 영원한 신성과 영원한 신성의 통치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주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다.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 뿐만이 아니라 지식이다. 왜냐면 그에게 제공된 지혜는 영이 거듭난 사람의 눈 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놓여 있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그가 이제 이 지식을 심장과 이성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이 진리임을 완전히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이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고, 그가 사

랑을 통해 찾던 것을 찾게 된다. 따라서 사랑은 지혜의 열쇠이고, 지혜는 진리에 합당한 지식이고, 영의 나라에서 나와 영의 나라로 제공이 된다.

사람의 혼이 육체를 경시하고, 단지 영이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 추구하고, 무의식 가운데 성공을 의식하는 가운데 육체가 갈망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가장 깊은 내면에서 동인이 되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고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의 영이 단지 거듭날 수 있다. 이기심이 없는 사랑으로 세상의 재물을 나눠주는 일이 그가 영적인 재물을 얻게 한다. 그러나 영적인 재물을 나눠주는 일은 그가 측량할 수 없게 성장하게 한다. 왜냐면 사람 안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제한이 없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진리를 준다. 그러나 생명은 중단 없는 활동이다.

영이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제 열심히 일하다. 그는 이 땅의 오류에 빠지 혼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참여한다. 왜냐면 사람 안의 영이 쉬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의 영처럼 항상 계속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의 거듭남은 항상 사람이 영의 나라를 위해 일하려는 소원을 느끼는 결과를 가져 온다. 그는 이 땅의 삶에 단지 아주 적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관점은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알고, 깨달음이 없는 곳을 도우려는 갈망 가운데 영적인 삶으로 향한다.

왜냐면 영이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의 빛이 없음을 알고, 이 땅의 삶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무기력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혼의 고통과, 혼이 이미 이 땅에서 그리고 언젠가 영원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것을 알고, 무기력한 상태가 혼에게 고통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고, 혼이 이런 상태를 더 힘들게 의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혼이 이 땅에서 행했던 것처럼 모든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혼을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사랑과 열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따른다. 그는 빛을 발산하고, 이 빛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 빛을 주기 원하고, 그를 또한 생명으로 깨어나기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삶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람이 단지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 본다면, 모든 사람이 영의 거듭남을 알아볼 것이다. 왜냐면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를 진정한 지혜로 깨닫기 때문이다. 왜냐면 의지가 있는 곳에 영의 힘이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있는 영을 깨어나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원래 초기부터 너희를 위해 세워진 이 땅의 목표에 도달했다. 혼이 육체에서 분리가 되면, 너희는 풍부한 힘과 지식을 가지고 영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는 단지 이 땅에서 아직 영화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물질을 남겨 둔다.

그러나 너희 자신은 자유롭게 축복받은 영들의 나라로 들어가고, 너희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역사하고 창조하는 일에 어떤 것도 너희를 방해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너희 안의 사랑이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이끌고, 너희 안에 축복된 상태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는 이런 축복된 상태를 측량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가 자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기 위해,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에게 이끄는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융합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영의 거듭남을 체험하는 일이 너희의 목표이자 소망이 돼야 한다. 그러면 너희도 또한 나와 연합이 되고, 너희의 성장이 보장된다. 너희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 났고, 너희 안에 나의 일부분인 불씨가 잠자고 있다. 그러나 이 영의 불씨는, 비록 너희가 이 땅에 살더라도, 아직 생명이 없다. 너희가 먼저 영의 불씨에게 생명을 줘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 안의 영이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일은 유일하게 너희의 일이고, 너희의 과제이고,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 이 과제의 성취에 달려있다.

영이 거듭나는 일은 육체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너희 안의 영이 너희 삶에서 나타낼 기회를 주는 일이다. 즉 너희 안의 영에게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을 의미한다. 나의 일부분인 너희 안의 영은 너희의 이 땅의 삶에서 발언권을 갖기 원하고, 너희에게 조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가르치기 원하고, 자신의 말이 경청되기를 원하고, 혼을 자신에게 끌어 들이기를 원한다. 즉 너희가 축복될 수 있도록 너희가 나와 연합하도록 돕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너희 안의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너희 안에 영의 불씨를 넣어주어, 영의 불씨를 통해 아직 나와 멀리 있지만 아직 이 땅에서 나와 결합을 이뤄야 할 너희와의 연결을 확립하기 원하는 분의 뜻을 행하면서, 너희 안의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나의 뜻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너희가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고, 너희의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면 영의 거듭남이 아주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생각의 정리로 이뤄져 있고, 생각은 이제 영의 나라로 향하게 된다. 너희의 생각은 영을 향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적인 일을 다루기 전의 이 땅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을 우선에 두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갈망은 혼의 생명과 관련된 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죽음 후의 삶을 생각할 것이고, 나를 구할 것이고, 나는 내 자신을 찾게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 안의 영의 불씨는 아버지 영과의 연합을 추구하고, 너희가 같은 추구를 하도록 만들기 원하고,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너희가 영의 나라를 향하도록 자극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의 불씨에게 역사할 기회를 준다면, 영의 불씨가 이 모든 일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영이 거듭나게 되고, 너희는 또한 너희의 목표에 확실히 도달하게 된다. 왜냐면 나는 영의 불씨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너희가 너희 안의 영에 의해 이끌리게 한다면, 너희가 한번 너희 안의 영이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고, 너희가 그의 영향력을 따르면, 너희가 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혼과 몸은 이제 너희 안의 영의 불씨와 연결을 통해 이제 유익을 얻을 것이고, 혼과 몸은 영의 세계와 연결하기 위해 이 땅의 세계를 버릴 것이고, 혼과 몸은 나에게 향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영의 불씨가 이제 생각과 느낌과 의지를 정하고, 영이 거듭난 사람은 영의 영향력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더 이상 어두움 속에 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빛을 찾았고, 그는 생명력을 얻었고, 그의 생명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고,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는 일.

B.D. No. **5489**
1952 년 9 월 17 일

나는 너희가 생명으로 깨어나기를 원한다.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되야 한다. 그러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고, 혼은 새로운 의식의 단계에 들어간다. 혼은 자신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고, 혼에게 혼의 겉형체를 분해하는 일을 알려주고 혼에게 힘을 주는 내 영과 항상 함께 자신의 겉형체를 분해시키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 혼은 이제 내 영에게 자신을 종속시키고, 내 뜻대로 자신을 형성하기 위해 시도한다.

이 땅의 작은 식물을 관찰하라. 작은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 지 관찰하라. 식물이 어떻게 빛을 향해 추구하고, 빛에 자신을 열고, 성장하고 자라는 지 관찰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혼은 내 영의 태양 빛을 받고, 빛의 효력에 자신을 맡기고, 혼이 성장하고, 혼 안의 모든 힘이 깨어나 역사하게 된다. 왜냐면 혼 자신이 단지 영원한 빛인 나에게 향하면, 내 영이 이제 혼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내 사랑의 빛이 혼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혼은 아직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겉형체인 사슬을 깨고, 내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고, 내 지원을 통해 자신을 정화시킨다. 혼은 또한 나 자신이 혼을 인도하고 지도한다는 것을 안다. 왜냐면 혼 안의 내 영이 혼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혼은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한다. 이로써 혼 안에서 나에게서 나온 힘이 아주 강력하게 되고, 혼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정도와 같은 정도로 혼은 내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 혼은 생명으로 깨어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한때 올바른 생명을 얻은 혼은 더 이상 다시 영의 죽음에 빠질 수 없고, 내 힘이 혼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이 힘이 항상 또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너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초기에는 아직 영적으로 죽었고, 혼은 아직 활동하지 않고, 단지 육체의 생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혼은 자신의 감각을 단지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너희 안의 영의 불씨는 완전한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쉬고 있다. 영의 불씨는 실제 나에게서 나왔고, 나에게서 나온 것은 생명이다. 내 영은 절대로 전혀 쉬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의 의지와는 반대로 그의 혼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혼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 사랑을 행하고, 이로써 내 일부인 사람 안의 영의 불씨가 행하게 만들고, 이제 행하는 일을 더 이상 중단하지 않게 하는 내 사랑의 비추임에 자신을 열면, 내 영이 비로소 혼에게 역사한다. 내 사랑의 비추임이 한번 혼에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이미 생명의 단계에 들어갔고, 혼은 자신의 생명을 기뻐하고 더 이상 잃지 않게 된다.

내가 창조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에게 아주 고통이 큰 죽음의 상태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영적인 존재가 생명으로 깨어나기를 원한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자신이 존재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고, 자신의 존재를 축복으로 느끼고, 빛과 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한다. 나에게서 나온 사랑과 지혜를 사용하는 일이 유일하게 생명이고,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명을 얻어야 한다. 너희가 이런 생명을 받아들이기 원하면,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므로 이런 생명을 원하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심각한 경고.

B.D. No. **5329**
1952 년 3 월 4 일

너희 중 어느 누구도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동안 살지를 모른다. 아무도 자신이 부름 받는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고, 아무도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할 시간이 있는 지를 모른다. 너희의 인간은 너희가 내일 너희의 재판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재판관이 너희의 이 땅의 삶과, 너희의 의지를 사용한 일에 대해, 너희가 행한 일과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너희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또한 너희가 이 땅의 삶의 결과를 생각해야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부름 받는 시간인 너희의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일은 은혜이고, 너희는 이 은혜를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몹시 후회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말할 수 없게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 가운데 축복된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힘을 잘못 사용하여 단지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부름을 받는 일이 너희에게 불행이다. 왜냐면 너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고, 저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놓친 일을 보충하기 위해 절대로 돌아갈 수 없고, 너희는 큰 어려움 가운데 너희에게 견딜만 한 운명을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직 살고 있고, 무관심하게 너희의 마지막에 대한 가르침과 훈계와 경고를 무시하고 육체의 생명을 돌봐 확실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죽음 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 땅에서 떠날 때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지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너희가 얻은 영적인 재물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라. 너희가 많은 영적인 재물을 보여줄 수 있느냐? 죽음에 대한 생각이 너희를 놀라게 하느냐? 너희가 재판관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재판관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너희의 상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너희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너희의 상황을 바꾸라. 왜냐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자신이 언제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시간이 다되었을 때 단 한 시간이라도 너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이 시간이 자신에게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할 수 있다. 모두가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고 소멸되지 않고, 저 세상에서 그에게 생명을 보장하는 재물을 모을 수 있다. 너희가 이룰 수 있는 일을 성취시키려고 시도하라. 왜냐면 너희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단지 육체의 생명을 위해 일하고 혼의 생명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저 세상에서 너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점을 보상하는 일이 말할 수 없게 너희에게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아직 주어진 매일을 활용하라. 왜냐면 너희가 재판관 앞에 서게 되는 죽음의 시간이 아주 빨리 오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너희가 축복되기 원하고, 나의 목표는 세상 축복이 아니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은 영원에 비할 때 단지 짧고, 너희에게 영원히 축복된 삶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가 이 땅에서 증명한 것에 대한 상급이 돼야 하고, 다른 어떠한 것도 이 땅에서 너희에게 갈망할 만한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너희의 관점은 죽음 후의 삶을 향해야 한다. 너희가 가벼운 심장으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면, 너희는 영원을 위해 성숙해진 것이다. 너희는 세상적인 것 들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야만 하고, 강요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이 땅에서 너희에게 사랑스러운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만 한다. 너희는 모든 심장으로, 모든 혼으로 영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재물을, 유일하게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너희를 축복되게 해주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

영적인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재물을 경시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너희가 필요한 것을, 세상의 재물을 내가 너희에게 공급함을 확신하라. 그러면 너희 자신을 전적으로 나에게 드리라. 나는 모든 방식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굶주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축복되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너희 혼을 위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

너희 사람들은 세상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너희 스스로가 영적 공급을 받기 위해 추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의지의 자유때문에 너희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 음식과 세상 음료는 너희 육체를 항상 단지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시키고, 만약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불러들이면, 절대로 이 땅의 삶을 연장시킬 수 없다. 반면에 영적인 양식은 너희에게 영원한생명을 보장한다. 너희가 한번 받은 영적 양식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또는 효과가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양식을 영원까지 가지고 가서, 그 위에 너희의 삶을 세워 나간다.

축복되게 영원히 살기 위해 너희는 행복하게 하는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한다. 너희는 너희가 베풀수록, 줄어들지 않고 항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영적인 부를 필요로 한다. 나는 이런 영적인 부를, 너희가 영원히 축복되도록 하기 위해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그러나 나의 재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너희 심장이 단지 전적으로 비어있다면, 너희는 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영적인 재물은 세상적인 재물을 견딜 수 없고, 심장 안에서 둘이서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어떤 재물을 위해 너희 심장에 자리를 마련하기 원할지는 너희의 자유에 달려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가 축복되게 해주기 원하면, 나는 지혜로운 아버지로서 나의 자녀에게 조언해주고, 진정한 재물을 물리치고, 받을 수 없게 하는, 심장의 방을 합당하지 못한 재물을 청소하는 일을 도와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너희 심장이 아직 갈망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너희에게 방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되도록 돕기 원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실패를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너희를 세상과 세상의 헛된 재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내가 도와주는 수단으로 여겨라. 이러한 일을 단지 너희를 자유롭고, 영원히 염려나 두려움이 없이 항상 행복하게 살게 되는, 다시 말해 쉬지 않고 사랑의 역사를 행하는, 넘치게 축복된 존재로 만들려는, 너희의 최종목표를 위한 나의 돌봄으로 깨달아야 한다. 나는 너희가 축복되기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기 원한다. 왜냐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너희가 이 양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멘

부활절에 주는 계시.

B.D. No. **5363**
1952 년 4 월 13 일

내가 다시 너희 심장 안에서 부활하게 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축복된 단 둘이서 함께 사는 삶을 살라. 너희가 아직 사랑 없는 삶을 사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내가 죽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너희가 실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죽음과 동등한 상태 가운데 삶을 산다. 왜냐면 매시간 너희가 육체를 잃을 수 있고, 그러면 너희는 즉 너희의 혼은 끔찍한 무덤의 침묵과 어두움에 둘러싸이고, 힘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속하고, 너희 혼에게 나로부터 나온 힘을 주면서 혼이 이 땅에서 이미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라. 내가 너희 심장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더 이상 영원히 죽음이 없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추구하라. 즉 영적인 변화를 이루라. 이로써 너희가 언제든지 육체의 겉 형체의 무덤을 떠나 영원한 생명의 가장 빛나는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라.

삼일 째 되는 날의 내 부활은 진리 안에서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주었다. 사랑을 통해 나를 그의 심장 안으로 영접한 사람도 또한 부활할 것이고, 그는 힘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빛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는 물질의 겉형체를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는 혼의 관점에서 죽을 수 없고, 혼에게 단지 속박이었던 육체를 남기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나라에서 그를 영접하여 인도하고, 그에게 어떤 인간의 눈이 본 적도 없고 어떤 인간의 귀도들은 적이 없는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내가 약속한대로 나는 그를 위해 거처를 준비해주기를 원한다. 하늘의 아버지의 영광이 그에게 계시될 것이고 그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심장 안에서 부활하게 하라.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했다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너희에게는 단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죄의 무덤에서 빛으로 영접을 받았고, 하늘의 영역에서 거할 수 있고, 나와 연합이 된 가운데 영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너희는 너희를 구속한 분이 가까이에 계심을 느끼고, 너희의 영을 가리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서 사라지고, 너희는 자유롭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멘